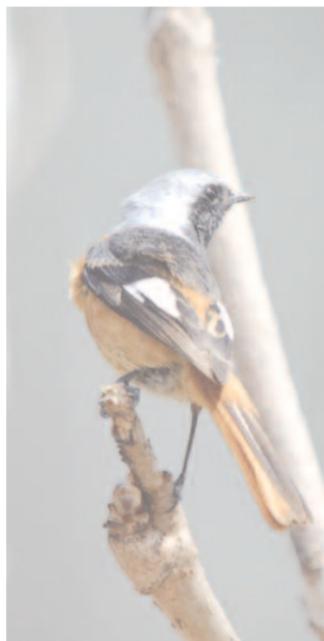




새  
 황성에서  
 보는







황성군수  
장 신 상

황성문화원의 향토사료 제37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에서 볼 수 있는 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향토사료집은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황성에서 서식하는 새에 대해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주신 한상균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황성의 역사와 문화, 향토사 발굴에 앞장서며 황성의 가치와 자존감을 드높여주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탐조문화의 활발한 보급과 탐조인구의 증가로 한국에서 조류학이라는 학문과 조류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새들의 서식지 또한 많은 장소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조를 즐기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들의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고 서식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372종에서 74종의 새가 황성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여전히 황성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농촌 지역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결과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지역에서만이라도 새들의 편안한 서식과 개체수 증가를 위해 군민 모두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료집이 황성에서 볼 수 있는 새에 대해 군민들의 큰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널리 값진 자료로 애용되기를 기원 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사료집에 모든 열정을 쏟아주신 한상균님과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군의회 의장  
권 순 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주는 향토사료 제37집 「황성에서 보는 새」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발자취를 찾고 이를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과 이번 사료집 집필에 힘써 주신 한상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황성의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새들의 발자취를 찾아 섬강과 천천 및 3.1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에 대한 관찰 과정을 담은 이번 사료집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향토사료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들어가는 말 / 10

II. 황성에서 보는 새 / 10

가.기러기목	오리과	1-부부금슬의 상징 원앙 / 12 2-사냥꾼 애를 태우는 쇠오리 / 18 3-집오리의 조상 청둥오리 / 22 4-암수 구별이 어려운 흰뺨검둥오리 / 27 5-아름다운 백조의 호수가 떠오르는 큰고니 / 31 6-행동이 민첩한 비오리 / 37
나.논병아리목	논병아리과	7-새끼를 업어 기르는 논병아리 / 41
다.닭목	평과	8-매 사냥감 평 / 43
라.도요목	A.도요과	9-꼬리를 위 아래로 흔드는 갑작도요 / 46 10-뽁뽁 소릴 내며 날아가는 뽁뽁도요 / 49
	B.물떼새과	11-종종걸음이 귀여운 꼬마물떼새 / 51 12-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는 흰목물떼새 / 53
마.두루미목	뜸부기과	13-물에 살면서 닭과 유사하게 생긴 물닭 / 56 14-이마가 빨간 쇠물닭 / 58
바.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15-딱따구리 무리 중 가장 작은 쇠딱따구리 / 60 16-번식기 때 드럼소리 내는 큰오색딱따구리 / 65 17-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오색딱따구리 / 67 18-개미를 좋아하는 청딱따구리 / 70
사.매목	A.매과	19-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 73
	B.수리과	20-정찰기처럼 천천히 날면서 먹이를 찾는 말뚝가리 / 74 21-꼬리깃이 흰 흰꼬리수리 / 76
아.비둘기목	비둘기과	22-훈련이 가능한 바위비둘기 / 78 23-다양한 색깔의 양비둘기 / 79 24-구구 구구하며 노래하는 멧비둘기 / 82
자.뺨꾸기목	두견새과	25-다른 새 동지에 알을 낳아 기르게 하는 뺨꾸기 / 85

차.사다새목	가마우지과	26-기후변화로 이사 온 민물가마우지 / 89
카.올빼미목	올빼미과	27-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 93
타.참새목	A.까마귀과	28-영리한 새 까마귀 / 95 29-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 / 97 30-온가족이 함께 새끼를 돌보는 물까치 / 101 31-다른 새의 소리를 흉내 내는 어치 / 106 32-노래 소리가 맑고 고운 꾀꼬리 / 108
	B.동고비과	33-나무 줄기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동고비 / 115
	C.되새과	34-쫄로롱 쫄로롱 방울새 / 117 35-노래 소리가 아름다운 밀화부리 / 123 36-까만 투구를 쓴 병사 같은 되새 / 125 37-정장 신사의 모습 멋쟁이새 / 129 38-부리와 눈빛이 날카로운 콩새 / 131
	D.딱새과	39-파란색이 돋보이는 큰유리새 / 135 40-오목한 눈이 인상적인 붉은머리오목눈이 / 138 41-나무에 부리를 부딪쳐 딱딱딱 경계음을 내는 딱새 / 142
	E.때까치과	42-때때때 소리내는 때까치 / 147 43-먹이를 꽃아 저장하는 칩때까치 / 150
	F.멧새과	44-새봄의 노래 전령사 멧새 / 152 45-새봄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랑턱멧새 / 155
	G.박새과	46-갯버들 가지 끝에 매달려 먹이활동 하는 진박새 / 158 47-뺨의 흰무늬가 돋보이는 박새 / 161 48-종자를 저장하는 쇠박새 / 164 49-인간과 가까운 곤줄박이 / 166
	H.오목눈이과	50-행동이 민첩한 오목눈이 / 170
	I.제비목	51-중앙절에 강남 갔다 삼짓날에 돌아오는 제비 / 173
	J.지빠귀과	52-까치밥을 좋아하는 개똥지빠귀 / 177 53-몸매가 예쁜 되지빠귀 / 179

		54-경계심이 강한 흰배지빠귀 / 181
		55-나그네새 노랑지빠귀 / 183
K. 직박구리과		56-겨울에도 들리는 새소리 직박구리 / 185
L. 찌르레기과		57-모짜르트가 애지중지한 새 찌르레기 / 190
M. 참새과		58-겨울철새 발종다리 / 193
		59-내고기 한 점은 쇠고기 열 점과도 안 바꾼다는 참새 / 194
N. 할미새과		60-여름새 중 가장먼저 찾아오는 알락할미새 / 198
		61-꼬리를 위 아래로 많이 흔드는 노랑할미새 / 204
		62-자신의 모습을 시기하는 나르시스즘에 걸린 검은등할미새 / 206
O. 휘파람새과		63-개개개개 소리내는 개개비 / 210
파. 파랑새목	A. 물총새과	64-물고기 잡는 호랑이 물총새 / 212
	B. 파랑새과	65-전설의 파랑새 / 215
	C. 후투티과	66-우관이 예쁜 후투티 / 219
하. 황새목	백로과	67-천연기념물 248호 왜가리 / 220
		68-소등에서 먹이 활동하는 황로 / 227
		69-기다림의 고수 검은댕기 해오라기 / 231
		70-황성군의 상징 군조 백로 / 235
		71-제일 작은 백로 쇠백로 / 242
		72-미끼로 먹잇감을 잡는 중백로 / 246
		73-밤물까마귀 해오라기 / 249

### III. 나가는 말 / 253

#### I. 들어가는 말

#### II. 황성에서 보는 새

가. 기러기목	아. 비둘기목
나. 논병아리목	자. 뻐꾸기목
다. 닭목	차. 사다새목
라. 도요목	카. 올빼미목
마. 두루미목	타. 참새목
바. 딱따구리목	파. 파랑새목
사. 매목	하. 황새목

# 황성에서 보는 새

한상균

## I. 들어가는 말

삼일공원을 찾을 때 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언제나 내 마음을 즐겁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꾀꼬리, 밀화부리, 빠꾸기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퇴직 후 원로장학의원이 되어 관내 초등학교를 2년마다 방문하며 자연을 알게 하는 것이 자연 보호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야생화, 거미, 곤충 등을 교사와 학생에게 소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생각이 나서 이 새소리를 사진과 함께 학교에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새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나는 새로운 새 사진을 찍을 때마다 새 이름을 알아가는 새로운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덕분에 45종의 새 이름과 노래 소리를 알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황성에서 보는 새와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소리를 소개할 수 있어 큰 보람도 얻었다.

새는 척추동물의 한 강(綱)으로 앞다리는 날개로 변형되어 날 수 있고, 입은 부리로 되어 손을 대신 하는 구실을 하며, 온몸이 깃털로 덮인 온혈동물이다. 모두 난생이고, 폐에 이어 지는 기낭이 있고, 시력이 발달하였다. 전 세계의 새는 29개목 158과로 분류되며 총 8,600종에 이른다고 한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372종(털새 48종, 철새 266종, 미조 90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200여종 밖에는 관찰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알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황성에서 본 새들을 소개한다.

## II. 황성에서 보는 새

2004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서부터 새 사진을 촬영했다. 그동안 촬영한 새는 조류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한 결과 14목 31과 73종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지만 참새목의 새들이 35종으로 가장 많았고, 황새목 백로과 7종, 기러기목 오리과가 6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섬강과 전천에서는 오리과의 새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며 할미새 무리와 도요무리, 물총새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삼일공원에서는 딱따구리 무리, 멧비둘기, 빠꾸기, 꾀꼬리 등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새들을 목명과 과명은 가나다 순으로, 학명은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였다. 이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었다.

<표>황성에서 보는 새 목록

목명	과명	종명
기러기	오리	1-원앙, 2-쇠오리, 3-청둥오리, 4-흰뺨검둥오리, 5-큰고니, 6-비오리
논병아리	논병아리	7-논병아리
닭	꿩	8-꿩
도요	도요	9-갹작도요, 10-뺨뺨도요
	물떼새	11-꼬마물떼새, 12-흰목물떼새
두루미	뜸부기과	13-물닭, 14-쇠물닭
딱따구리	딱따구리	15-쇠딱따구리, 16-큰오색딱따구리, 17-오색딱따구리, 18-청딱따구리
매	매	19-황조롱이
	수리	20-말뚝가리, 21-흰꼬리수리
비둘기	비둘기	22-바위비둘기, 23-양비둘기, 24-멧비둘기
빠꾸기	두견새	25-빠꾸기
사다새	가마우지	26-민물가마우지
올빼미	올빼미	27-수리부엉이
참새	까마귀	28-까마귀, 29-까치, 30-물까치, 31-어치, 32-꾀꼬리
	동고비	33-동고비
	되새	34-방울새, 35-밀화부리, 36-되새, 37-멧쟁이새, 38-콩새
	딱새	39-큰유리새, 40-붉은머리오목눈이, 41-딱새
	때까치	42-때까치, 43-칠때까치
	멧새	44-멧새, 45-노란턱멧새
	박새	46-진박새, 47-박새, 48-쇠박새, 49-곤줄박이
	오목눈이	50-오목눈이
	제비	51-제비
	지빠귀	52-개동지빠귀, 53-되지빠귀, 54-흰배지빠귀, 55-노랑지빠귀
	직박구리	56-직박구리
	찌르레기	57-찌르레기
	참새	58-발종다리, 59-참새
	할미새	60-알락할미, 61-노랑할미새, 62-검은등할미새
휘파람새	63-개개비	
파랑새	물총새	64-물총새
	파랑새	65-파랑새
	후투티	66-후투티
황새	백로	67-왜가리, 68-황로, 69-검은맹기해오라기, 70-중대백로, 71-쇠백로, 72-중백로, 73-해오라기
14목	31과	7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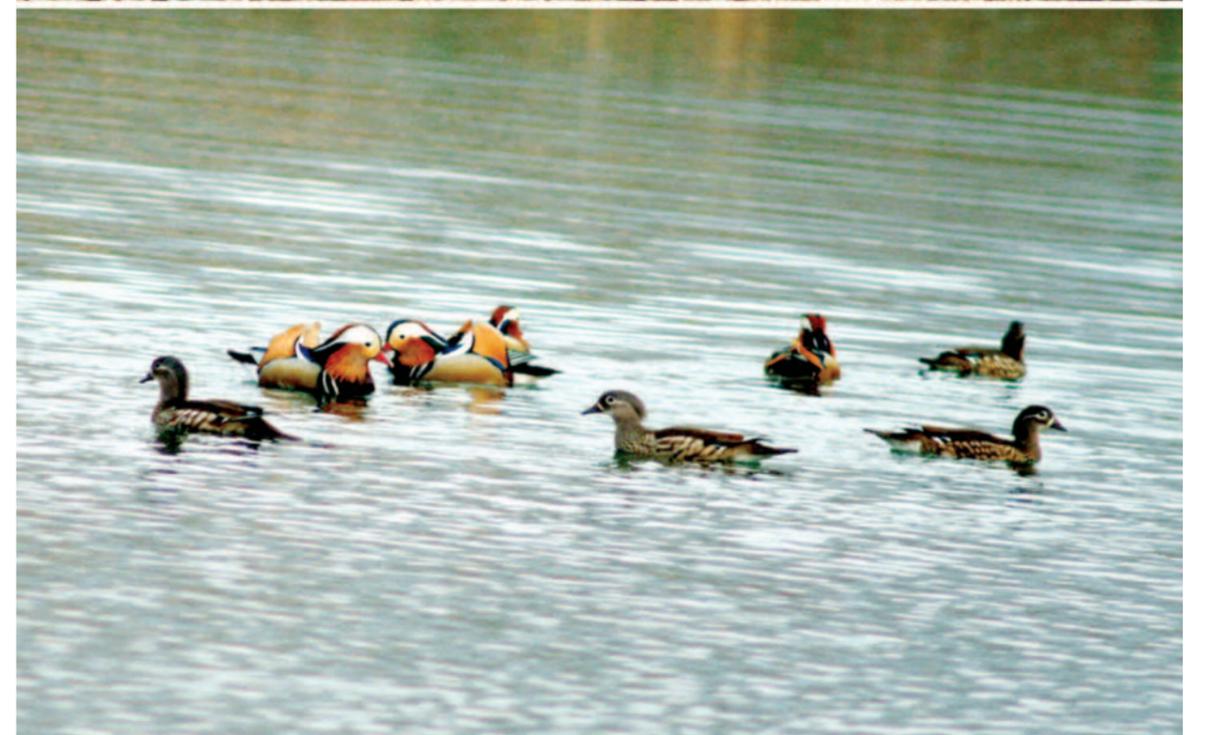
## 가. 기러기목 오리과

### 1. 원앙-Aix galericulata Linnaeus, 1758

〈부부금슬의 상징 원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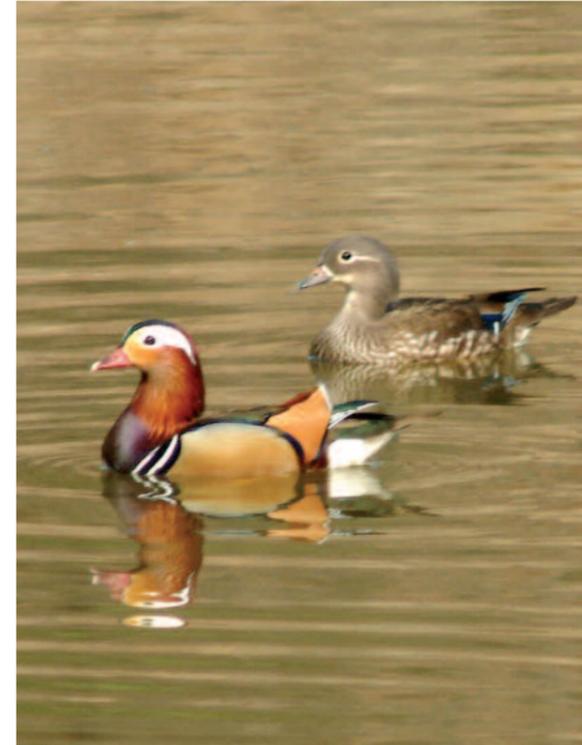
1-새벽에 날아와 저수지에 내리는 원앙새  
2005년 4월 14일 공근면 수백리 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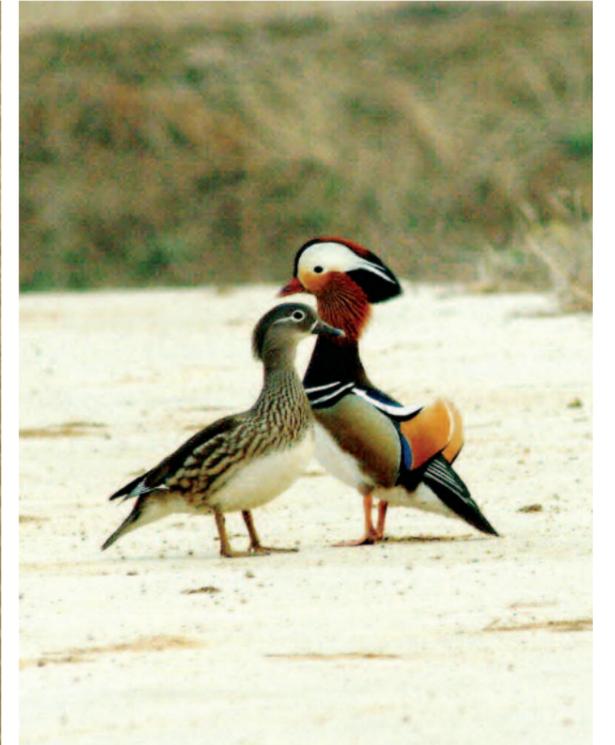
2-논이나 저수지에서 먹이 활동하는 원앙새 2005년 4월 17일 공근면 수백리



3-무리지어 휴식하는 원앙새 2005년 4월 17일 공근면 수백리



4-구애활동하는 원앙새 한 쌍  
2005년 4월 19일 공근면 수백리



5-구애활동하는 원앙새 한 쌍  
2005년 4월 19일 공근면 수백리 저수지



6-번식 활동하는 원앙새 한 쌍  
2005년 4월 19일 공근면 수백리 저수지



7-원앙새의 잠자리 2009년 5월 9일 황성읍 삼일공원

금슬 좋은 부부의 상징인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1982. 11. 4 지정)이다. 2005년 4월 중순경 수백리 저수지에서 이른 아침마다 백여 마리 원앙들이 울어대며 짝을 지어 헤엄치는 모습, 먹이활동, 짝짓기, 날아오르는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원앙의 암컷과 수컷은 다른 종으로 알았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특히 수컷은 매우 화려한 깃을 가지고 있고, 몸길이가 43~51cm 정도이다.

산간계곡 물가에 있는 나무 구멍에 번식하는, 비교적 드문 텃새이다. 계곡의 개울가, 숲속의 물 고인 곳, 작은 못 등지에서 생활하며 활엽수나 혼효림 속을 좋아한다. 새벽과 해질 무렵에 먹이를 잡고 낮에는 그늘진 곳에서 지낸다. 도토리를 가장 좋아하나 농작물도 곤잘 먹으며, 육상곤충이나 나무열매류, 풀 뿌리, 줄기, 종자 등의 식물성 먹이도 먹는다. 수컷은 ‘케케’ 또는 ‘윽윽’, 암컷은 ‘꽂꽂’ 하고 낮은 소리로 운다. 물위를 나란히 떠다니는 원앙의 모습을 보면 서로 싸운다거나 떨어져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쌍의 원앙 가운데 한 마리가 죽으면 끝내 나머지도 죽음의 길로 갈 것이라고 여기기 까지 한다.

어쩔든 원앙은 새색시처럼 아름답고 또 일생 동안 변함없이 암수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기 때문에 혼례 때에는 언제나 원앙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신랑, 신부가 함께 베고 자는, 모서리에 원앙을 수놓은 긴 베개를 원앙침이라고 일컫는다. 암수가 다른 모습인 원앙은 겨울철새였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번식이 확인되었다. 번식기에는 고목이 있는 산간 하천에서, 겨울철에는 얼지 않은 강이나 저수지에서 집단으로 생활한다.

4월 하순부터 7월에 나무 구멍을 이용하여 번식하나 때로는 쓰러진 나무 밑이나 우거진 풀 속에서도 새끼를 친다. 번식기가 되면 보통 한 마리 암컷에 열 마리 안팎의 수컷이 몰려와 구애작업을 벌이는데 암컷은 이중 한 수컷을 정한다. 특히 원앙의 수컷들은 낮이나 밤이나 늘 적으로부터 암컷을 지키려고 그 주변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암컷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있어 원앙이 사는 곳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고 한다.

하루에 한 개씩 한배에 9~12개(때로는 13~14개에서 22개까지) 알을 낳아 28~30일 동안 잠깐 동안의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온종일 암컷이 알을 품는다. 알에서 깬 새끼들은 둥지에서 하루쯤 머물면서 알에서 깬 때 묻은 물기를 말린 뒤 곧장 둥지에서 내려 뛰어 물에서 30여 일 동안 어미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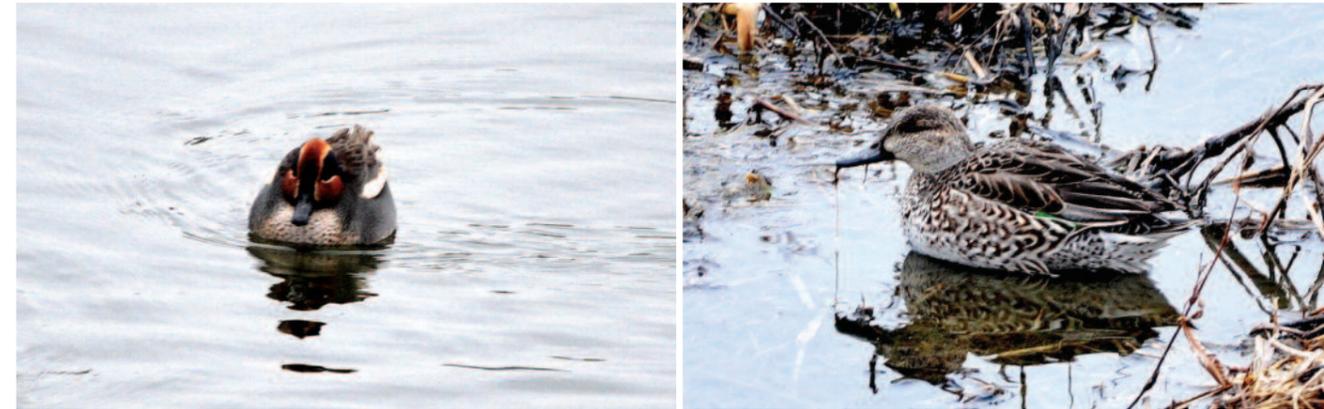
원앙 수컷은 일단 둥지가 정해지고 나면 새끼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즉 번식초기에 암컷과 짝을 이루어 생활하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하면 암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나버리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원앙 자신이 너무 화려해 적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떠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수컷은 털갈이 시기나 늦여름에 무리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한다.

## 2. 쇠오리-Anas crecca Linnaeus,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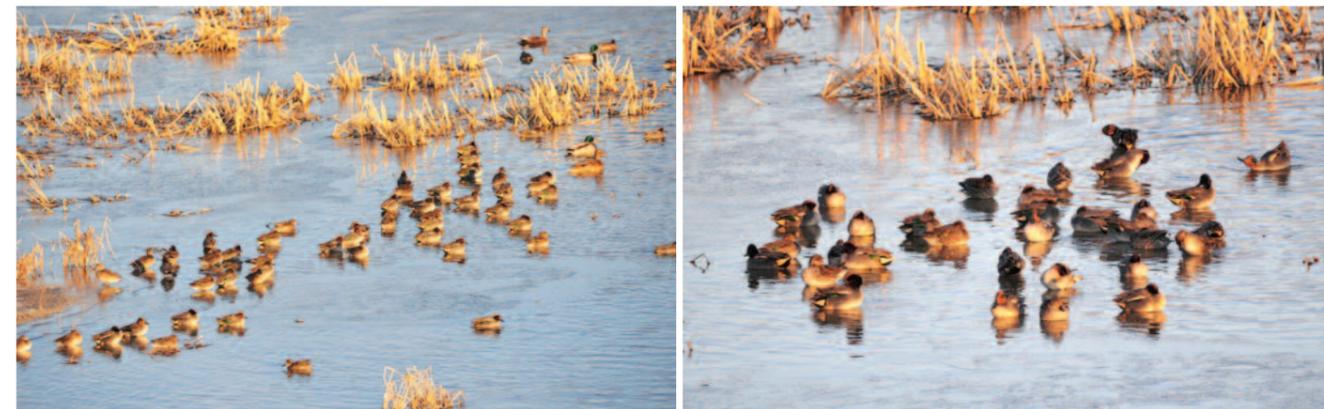
〈사냥꾼 애를 태우는 쇠오리〉



1-정답게 휴식하는 쇠오리 한쌍 2020년 3월 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먹이활동하는 쇠오리 수컷(좌)과 암컷(우) 2020년 3월 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3-집단으로 휴식하는 쇠오리 2020년 2월 5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020년 2월 5일 남산리 다리 밑에서 휴식하는 무리를 처음 만나 촬영을 시작했는데, 3월 25일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겨울철새로 몸길이 약 35cm의 소형 오리이다. 멀리서 보면 수컷은 얼핏 밤색 머리를 한 소형 회색오리로 보인다. 이마와 정수리·뒷머리는 붉은 갈색이고, 보랏빛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 선이 눈 주위에서 뒷목으로 이어진다. 아래꼬리덮깃 양쪽에는 삼각형의 크림색 얼룩점이 뚜렷하며, 날 때에는 날개의 흰색 줄무늬가 돋보인다. 암컷의 몸 빛깔은 전체적으로 얼룩진 갈색이다. 나는 속도가 빠르다. 먹이활동 하다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무척 빨랐다. 그래서 쇠오리는 쏘아잡기가 가장 어려운 야생 오리 중의 하나인데, 몸집이 작는데다 나는 동안 재빨리 예측불가능하게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다른 오리들처럼 소리를 내서 유인하거나 미끼를 써도 반응하지 않으므로 사냥꾼들에게는 참으로 까다로운 목표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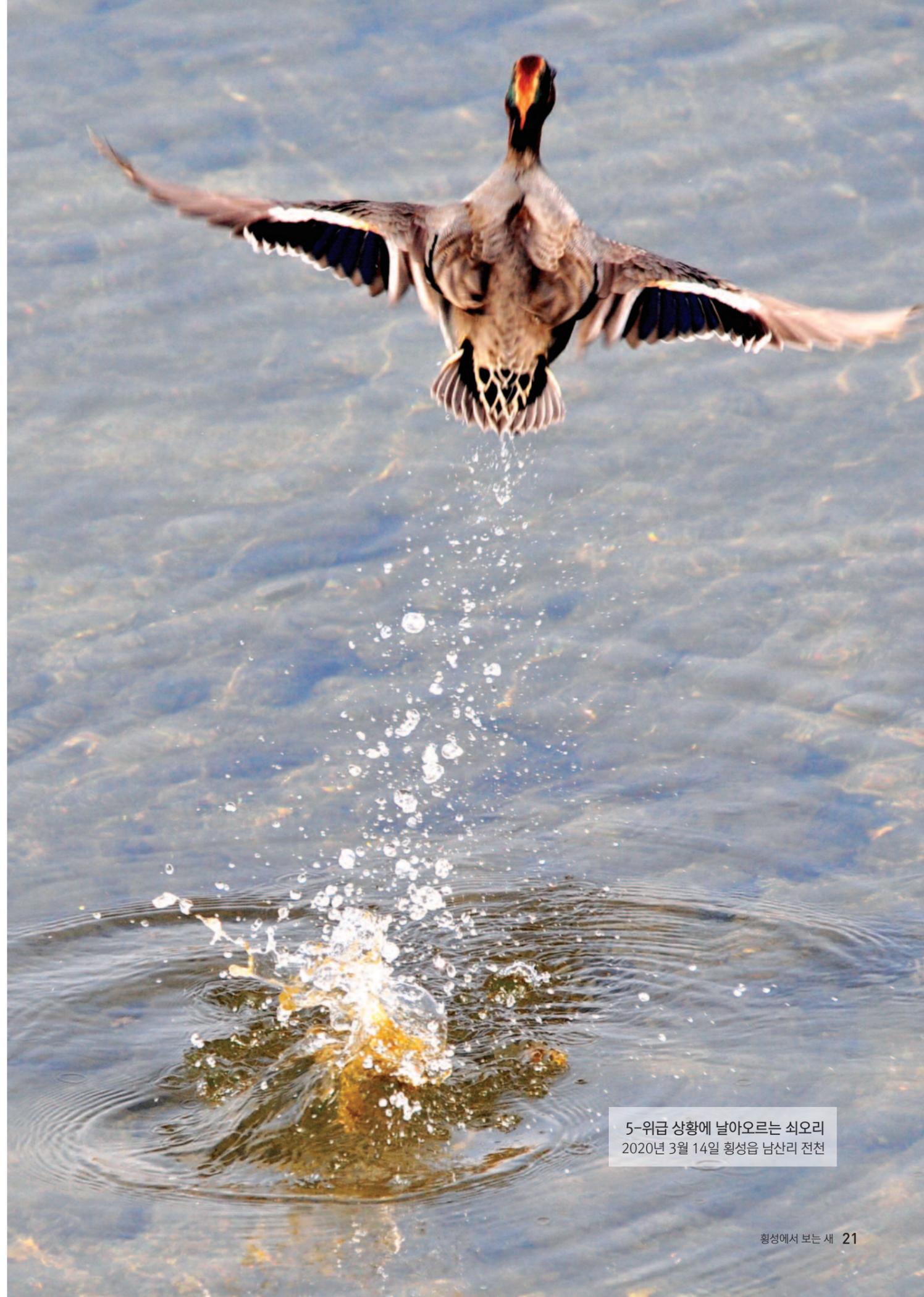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보통 작은 무리 단위로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이 썩 곳이나 하천·호수·늪·하구·바다에 살면서 낮에는 호수, 바다, 간척지, 강변 등 안전한 곳에서 무리를 지어 쉬고, 밤이 되면 논밭



4-먹이 활동하는 쇠오리 2020년 2월 5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이나 습지, 갈대밭, 냇가 등지에서 먹이를 찾는다. 얇은 못이나 좁은 물가에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대개 무리지어 다닌다.

물가 풀숲에 둥우리를 틀고 한배에 8~10개의 알을 낳아 21~23일 동안 암컷이 품는다. 여뀌 등의 열매와 새로 돋아난 잎, 작은 연체동물, 물에 사는 무척추동물 등을 먹는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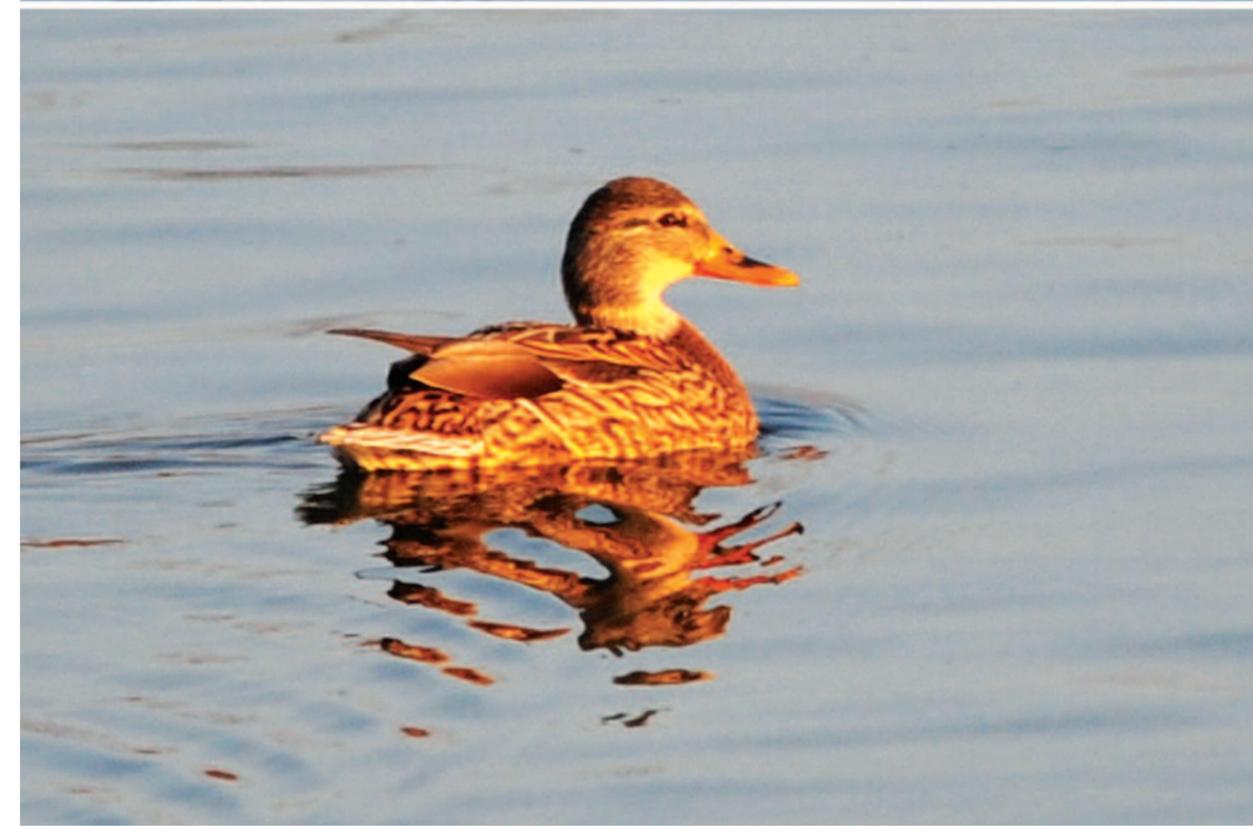
5-위급 상황에 날아오르는 쇠오리  
2020년 3월 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3.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Linnaeus,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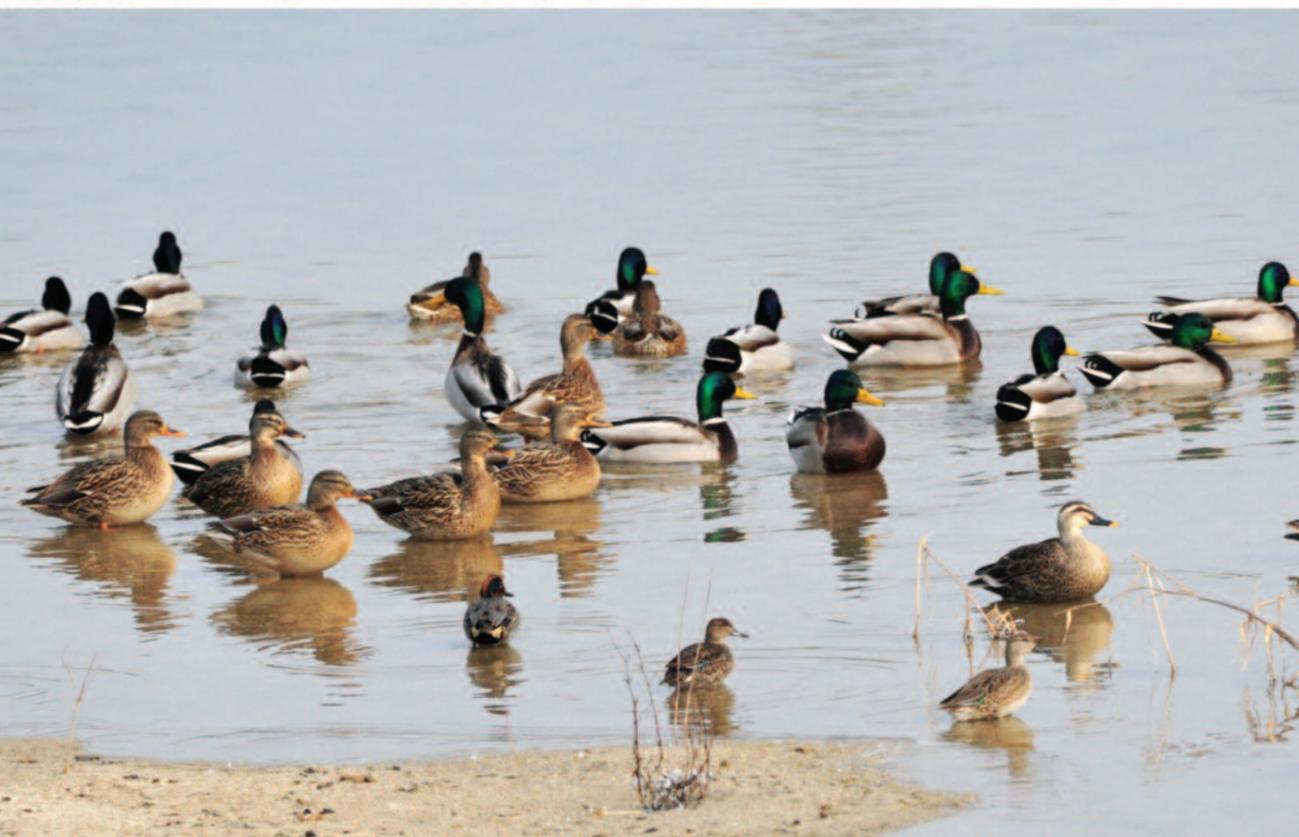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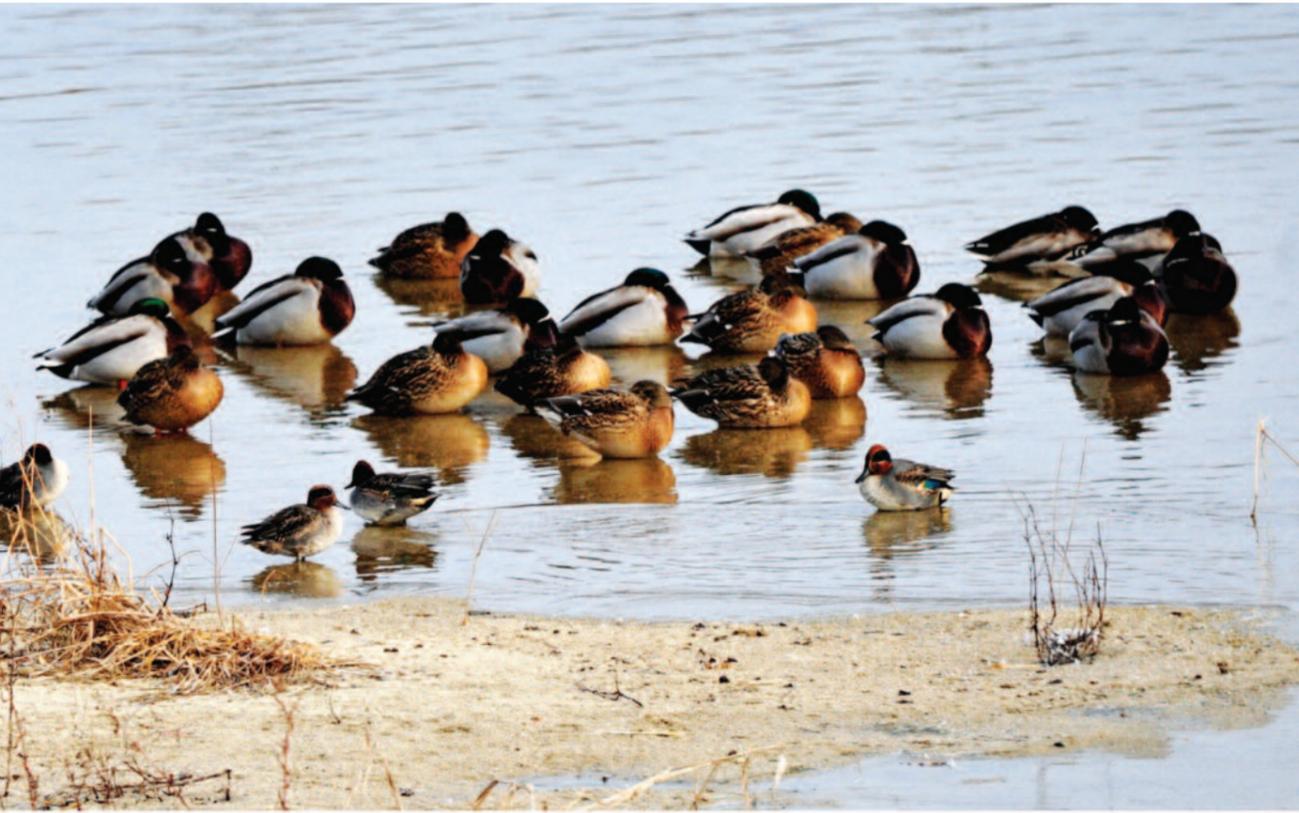
〈집오리의 조상 청둥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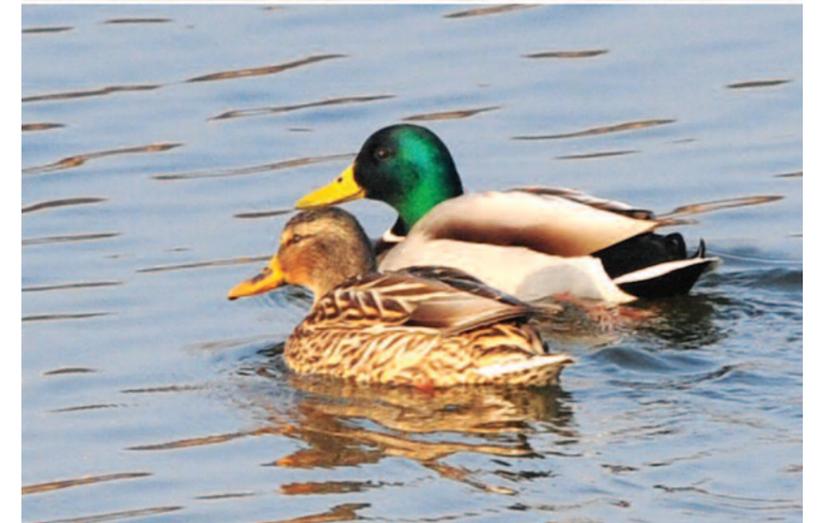
1-모래밭에서 휴식하는 청둥오리 수컷 2019년 12월 24일 황성읍 전천



2-먹이 활동하는 청둥오리 한 쌍(위 수컷, 아래 암컷) 2019년 12월 21일 황성읍 전천



3-넷가에서 휴식하는 청둥오리 무리 2019년 12월 21일 황성읍 남산리



4-짜지어 먹이활동하는 청둥오리 2016년 4월 20일 갑천면 황성호

2016년 4월 10일 오전 11시쯤 갑천면 구방리 황성호수길 제1구간에서 촬영하였다. 호수에서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었는데, 경계심이 강하여 접근이 힘들었다. 2019년 12월 초에 남산리 앞 전천에서 만나 비교적 접근해 촬영할 수 있었다. 몸길이 약 60cm, 수컷은 머리가 녹색을 띄고 암컷은 갈색 얼룩이 있다. 이름의 유래는 푸른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청둥오리가 청둥오리가 되었다는 설과 푸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청두오리가 청둥오리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가장 흔한 겨울새이자 대표적인 사냥용 새였다고 하는데,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9~11월에 남쪽으로 날아와서 겨울을 보낸다. 낮에는 물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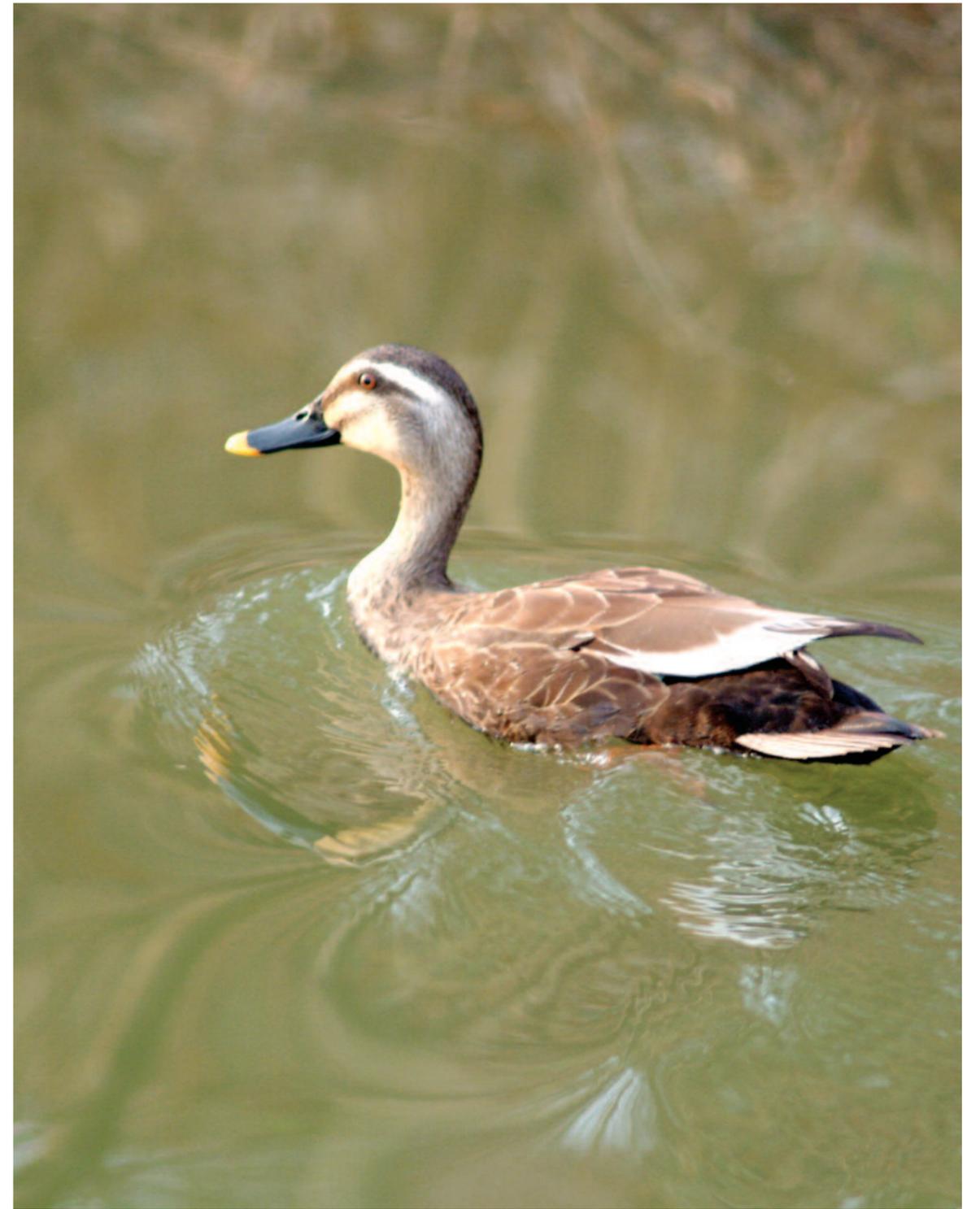
제방, 모래톱 등에서 쉬다가 해질녘에 농경지로 이동해 낱알 등을 먹거나 풀씨, 곤충, 새우, 게 등을 잡아먹는 잡식성이다. 평소에는 대개 무리 생활을 하지만 번식기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한다. 수컷은 몸 빛깔이 화려하게 바뀌는데, 4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한배에 6~12개의 알을 낳아 28~29일 동안 암컷이 품는다. 수컷은 번식이 끝나면 화려한 번식 깃이 암컷과 비슷한 소박한 색의 깃털로 바뀐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둥지를 떠나 수컷만의 무리를 만들며, 새끼를 키우는 것은 암컷이 전담한다. 수명은 야생에서 약 3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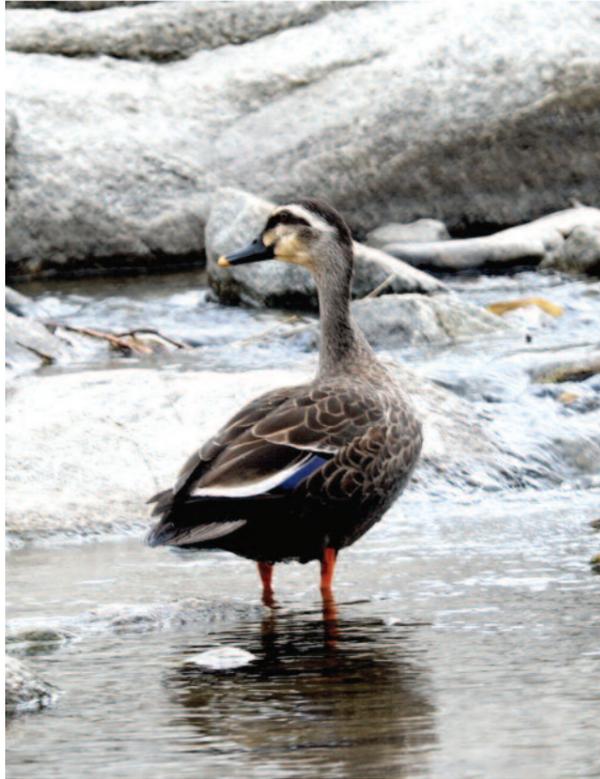
5-넛가에서 먹이 활동하는 청둥오리 2019년 12월 24일 황성읍 남산리

#### 4.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Forster, 1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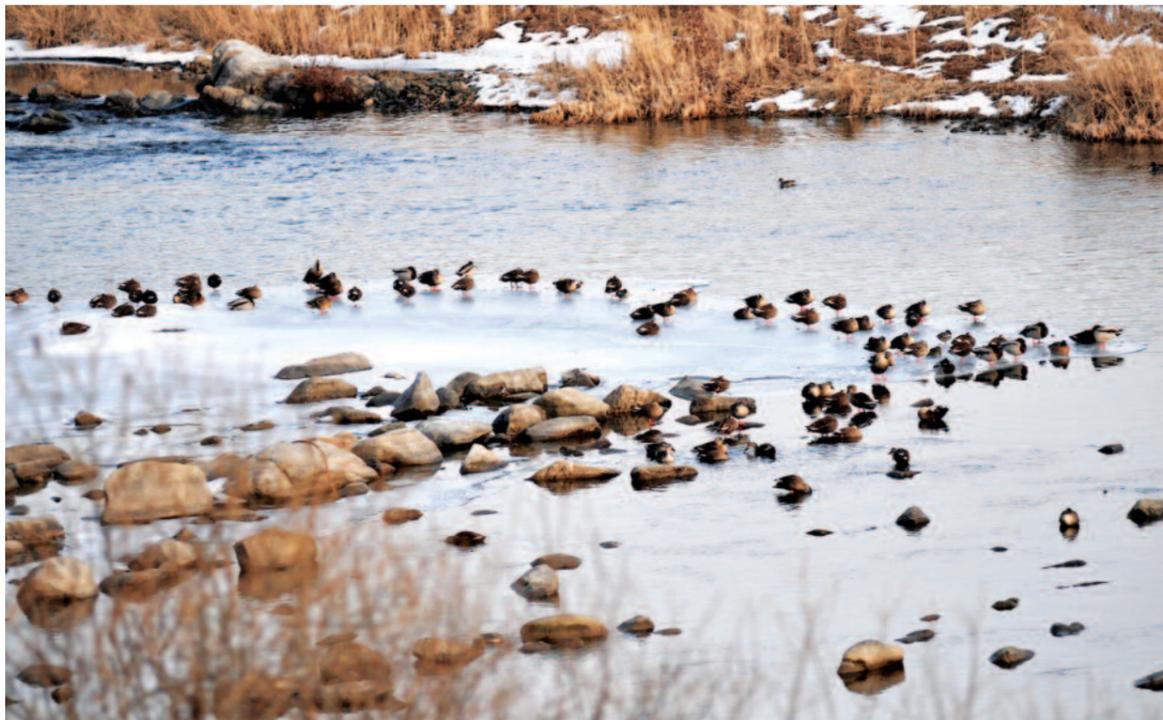
〈암수 구별이 어려운 흰뺨검둥오리〉



1-저수지에서 먹이 활동하는 흰뺨검둥오리 성조 2005년 4월 19일 공근면 덕촌리



2-섬강에서 먹이 활동하는 흰뺨검둥오리 성조  
2011년 4월 25일 황성읍 섬강



3-겨울철에 모여서 휴식하는 흰뺨검둥오리 무리 2007년 2월 7일 황성읍 섬강



4-흰뺨검둥오리가 날아오르는 모습 2016년 4월 3일 황성읍 섬강

섬강둘레길을 산책할 때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몸길이 약 52~62cm 정도의 크기로 대형 오리이다. 암수모양이 비슷해 구별이 힘들다. 늪지대나 초원 등에서 각종 식물이나 작은 동물들을 먹고, 겨울에는 주로 눈에 떨어진 벼 이삭이나 얇은 물에서 수초 등을 먹는다. 국내에서는 1950년대까지 흔한 겨울철새였으나, 1960년대부터 번식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의 야산, 풀밭에서 흔히 번식하는 텃새로 자리 잡았다.



5-흰뺨검둥오리 어미가 유조를 돌보는 모습 2019년 7월 18일 황성읍 섬강



6-휴식하는 흰뺨검둥오리 2019년 4월 24일 황성읍 섬강

겨울철에는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낮에는 호수, 저수지, 강에서 휴식하다가 저녁 무렵부터 식물의 종자, 풀줄기, 난알 등을 찾아 농경지로 이동한다.

번식기에는 낮에도 활발히 움직이며 저수지, 하천, 논, 강에서 수초, 수서곤충 등을 먹는다. 둥지는 논이나 저수지 주변의 초지 또는 야산의 덩굴 속에 오목하게 땅을 파고, 풀과 앞가슴 털을 뽑아 내부를 장식한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알을 7~12개를 낳아 약 26일간 포란한다. 알을 품는 것은 암컷의 몫이며 수컷은 포식자에 대비해 망을 본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둥지를 떠나 하천에서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먹이를 찾는다. 2019년 7월 18일에는 섬강둘레길을 산책하다가 운 좋게 어미가 8마리의 유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어린 개체는 생후 200일 정도 되면 생식능력을 갖는다. 수명은 15년이다. 암수구별은 울음소리와 꼬리깃털 색깔로 구분하는데 꼬리깃털이 검으면 수컷이고 하얀털이 조금 있으면 암컷이라 한다.

## 5. 큰고니-Cygnus cygnus Linnaeus, 1758

〈아름다운 백조의 호수가 떠오르는 큰고니〉

1-넷물에서 큰고니 성조의 먹이활동  
2020년 1월 3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넷물에서 큰고니 성조의 먹이활동  
2020년 1월 3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3-정다운 큰고니 성조의 먹이활동  
2020년 1월 14일 남산리 전천



4-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유조  
2020년 1월 8일 황성읍 섬강



5-큰고니가 날아오는 모습 2019년 12월 8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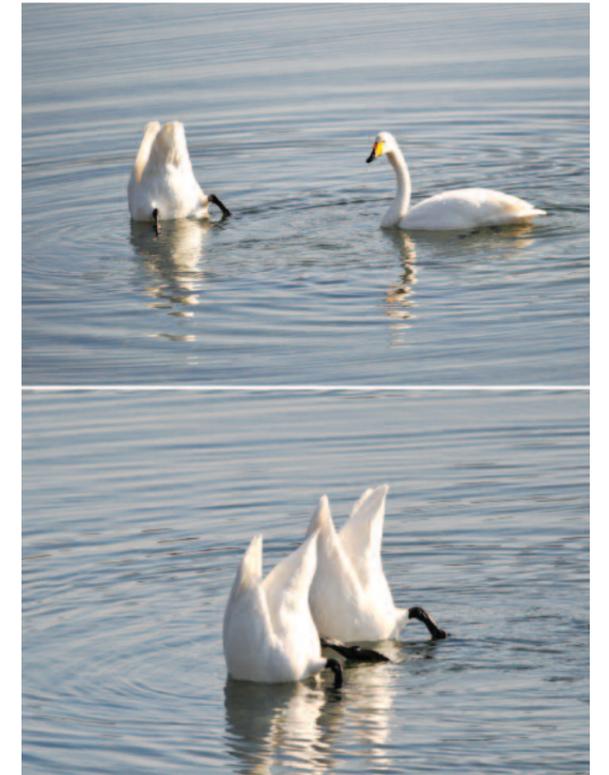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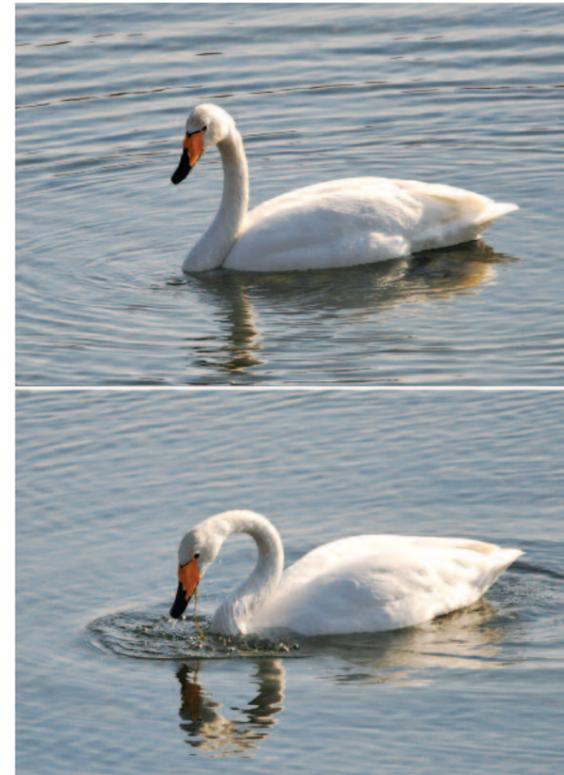
6-넷물에 내리는 모습(좌) 리더로 위엄을 보이는 모습(우) 2019년 12월 8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7-넷가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 1월 31일 황성읍 남산리



8-넷물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무리 2020년 1월 8일 황성읍 남산리



9-넷물에서 먹이 활동하는 큰고니  
2019년 12월 31일 황성읍 남산리

10-물속 수초를 먹는 큰고니  
2020년 1월 30일 황성읍 섬강

2019년 초에 북천리 섬강둘레길에서 큰고니를 처음 보고도 촬영을 못해 아쉬웠는데 남산리 전천에서 12월 8일 두 마리를 처음 본 후 그 수가 늘어나더니 황성읍 남산리 전천과 갈풍리 섬강에서 2020년 1월 중순에 20여 마리까지 관찰되다가 2월 28일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다. 2월 29일 저녁 무렵 황성호(망향에 동산)에서 수천마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 한국에 왔던 큰고니가 다 모여 쉬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촬영 못해 아쉬웠다.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떠올리며 사진 촬영을 하였다. 길이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 약 2.4m이다. 몽골에서 번식한 큰고니는 몽골에서 2,600km를 서해안을 따라 우리나라에 와 겨울을 난다. 무거워서 하루 종일 다리로 지탱하여 서 있기가 힘들어 넓은 공간의 호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자랄 때 더 그러하다. 큰고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물에서 수영하거나 물속에서 먹이를 찾거나 물 바닥에 있는 수초를 먹거나 하며 시간을 보낸다. 지상이나 수상에서 큰 무리가 목을 수직으로 세워 앞으로 꺼덕이며, 「훗호, 훗호」하는 소리를 내며 걷거나 헤엄 친다. 큰고니는 큰 몸에 비해서 아주 잘 난다. 봄이 오면 수컷과 암컷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들어 올리며 큰 울음소리를 내는 장면을 자주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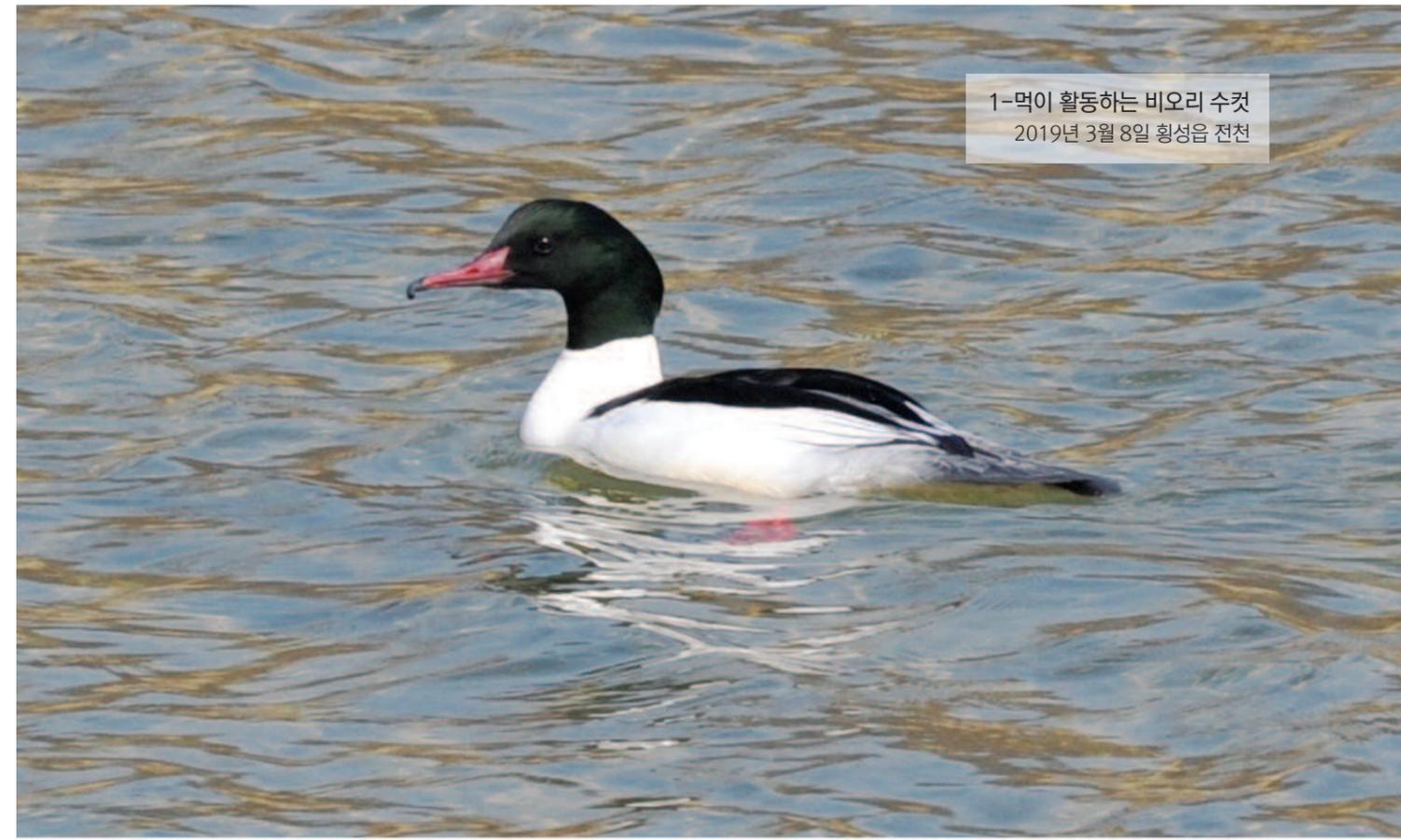
된다. 이것은 서로 짝을 찾기 위한 구애행동으로 대부분 짝을 맺어 번식지로 떠나게 된다. 큰고니와 고니는 가족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단위를 기본으로 무리를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5월 하순~6월 상순에 크림색 알을 3-7개 낳으며, 암컷 혼자서 알을 품어 35~42일이 지나면 부화한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약 120~130일이 지나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먹이로는 주로 호수나 냇물의 수생식물의 줄기나 육지산 식물의 열매를 먹지만 수생곤충과 민물에 사는 작은 동물도 잡아먹는다. 1968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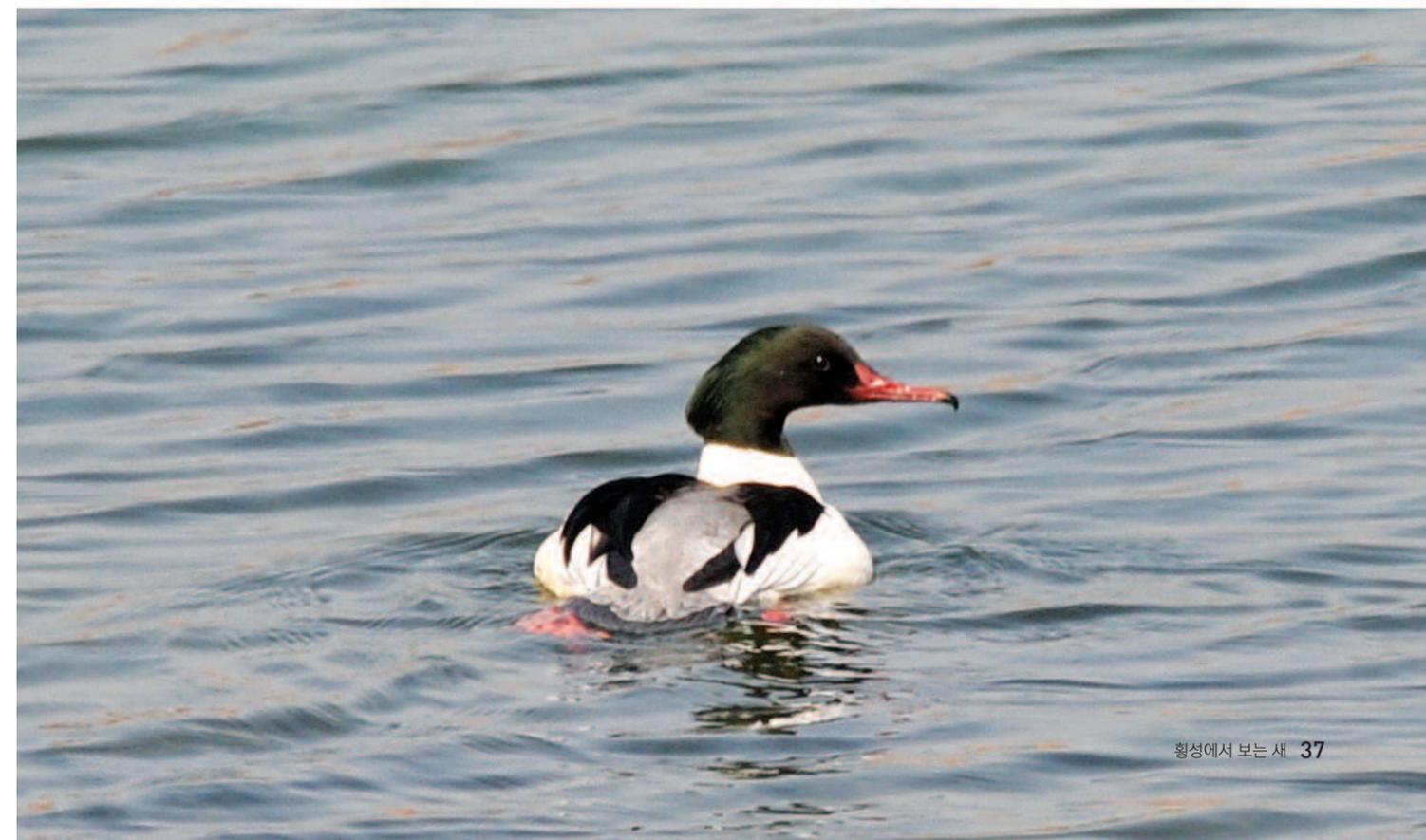
11-수초뿌리를 먹는 큰고니 2020년 1월 5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 6. 비오리-Mergus merganser Linnaeus, 1785

### 〈행동이 민첩한 비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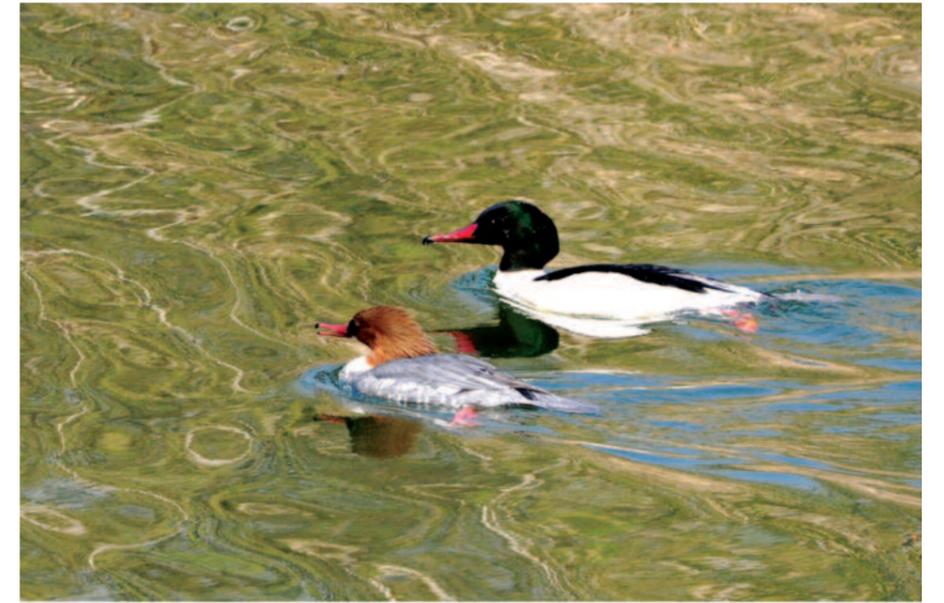


1-먹이 활동하는 비오리 수컷  
2019년 3월 8일 황성읍 전천





2-휴식하는 비오리 암컷 2020년 3월 25일 황성읍 섬강



3-정다운 비오리 한 쌍 2016년 4월 3일 황성읍 섬강

2011년 3월 11일 섬강에서 비오리 두 마리가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암수가 무늬와 색깔이 너무 달라 서로 다른 종으로 착각할 정도지만 항상 함께 빠르게 헤엄치며 먹이활동을 하는데 머리를 물속에 넣고 사냥하는 원앙이나 오리와 달리 수 십 초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수면 다이빙 방식으로 사냥을 하였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촬영할 틈이 없었다. 그래도 비디오로 촬영한 기록이 있어 지금도 보면 비오리의 먹이활동 모습이 생생하다. 몸길이 약 65cm 정도인 비오리는 10월 중순에 도래하여, 4월 중순까지 관찰되는 흔

한 겨울철새라지만 황성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최근 강원도 북부에서 번식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먹이는 주로 어류를 먹으며, 어린새의 경우 다량의 수서곤충을 먹는다.

둥지로는 땅 위의 구멍이나, 나무 구멍을 이용한다. 알을 낳는 시기는 4~6월이며, 알은 9~10개 낳아 32~35일간 품어서 부화시킨 후 60~70일간 새끼를 키운다. 수명은 8년이다.



4-물위에서 날아오르는 비오리 한 쌍 2019년 12월 15일 황성읍 전천



5-날으는 비오리 2019년 12월 15일 황성읍 전천



6-휴식하는 비오리 무리 2020년 3월 22일 황성읍 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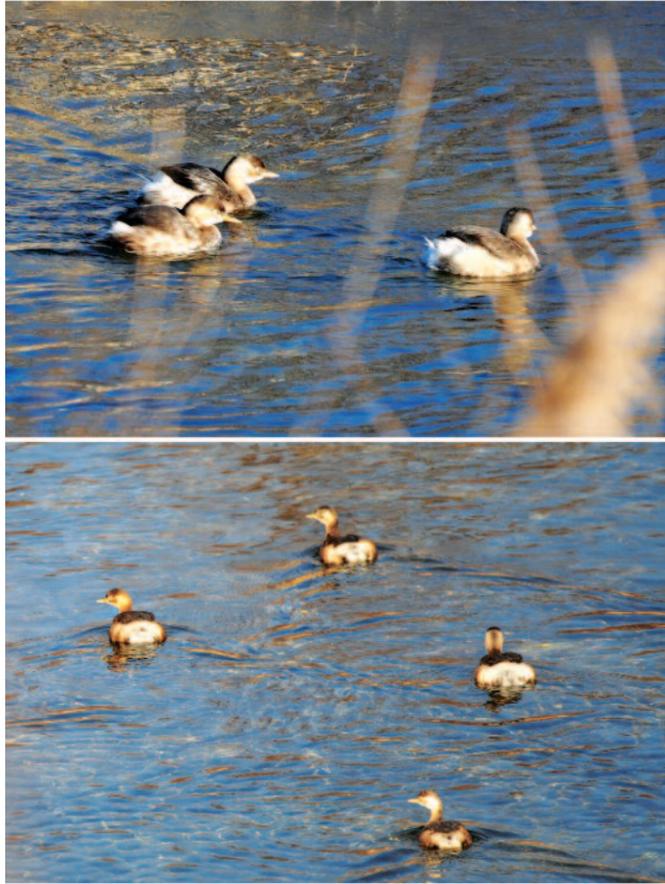
## 나. 논병아리목 논병아리과

### 7. 논병아리-Tachybaptus ruficollis Pallas 1764

〈새끼를 업어 기르는 논병아리〉



1-먹이 활동하는 논병아리 2019년 12월 14일 황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논병아리  
2019년 12월 31일 황성읍 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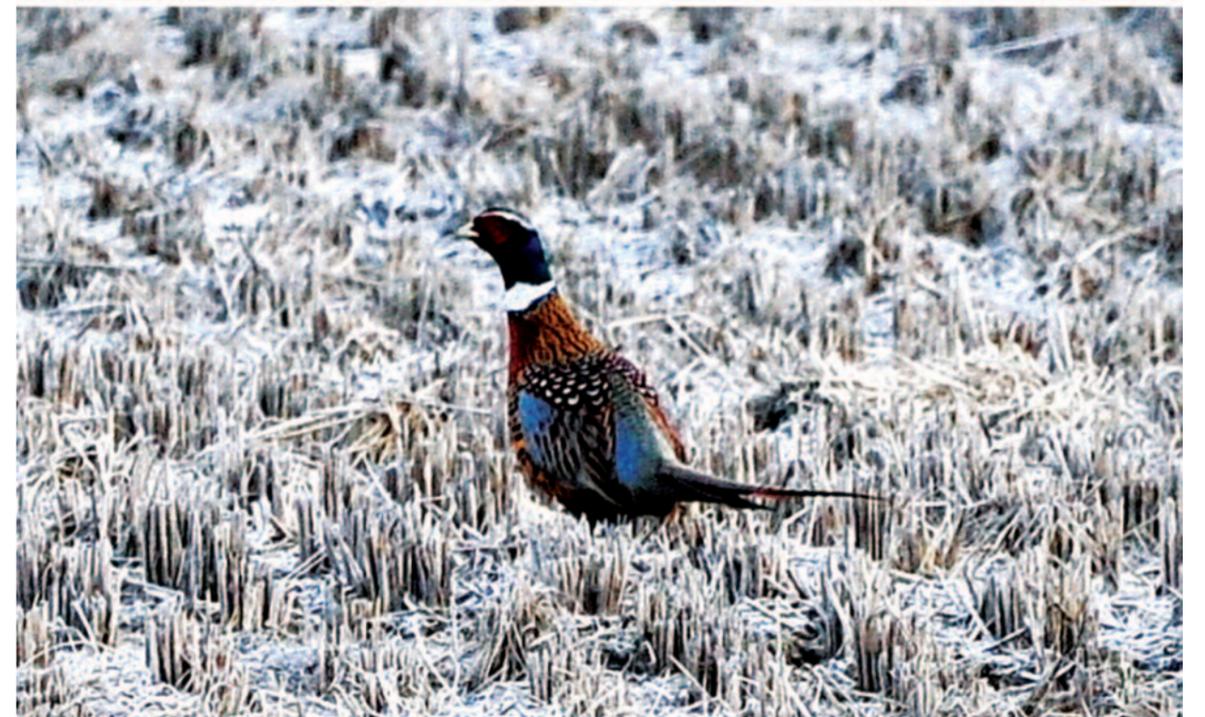
2019년 12월 14일 남산리 앞 전천에서 설 새 없이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몸길이 26cm로 논병아리과 가운데 가장 작은 논병아리였다. 내륙의 천, 호수, 저수지, 연못물웅덩이에서 작은 무리를 볼 수 있는데, 물갈퀴가 달린 발로 잠수해서 물고기, 수생곤충, 연체동물, 갑각류 따위의 동물성 먹이를 잡아먹는다. 잘 날지는 못해서 천적을 피할 때도 날개를 퍼덕이면서 물 위를 달릴 뿐 날아오르지는 않는다. 가을철에 찾아오는 흔한 겨울새이다. 4~9월에 전국의 습지 및 저수지에서 번식을 한다. 보통 암수로 짝을 지어 세력권을 가진다. 둥지는 갈대, 부들 같은 풀줄기 사이에 지으며, 풀줄기 및 뿌리를 이용하여 수면 위에 뜨게 만든다. 한배에 3~6개의 알을 낳고 암수가 교대로 품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20~25일이며, 새끼는 바로 둥지를 떠나 어미등에 업혀 먹이를 받아먹는다.

새끼가 잠수하여 먹이를 잡기위해 훈련이 필요하므로 1.5~3개월간 양육되어야 독립할 수 있다. 새끼를 업는 것은 사람이나 유인원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논병아리류도 새끼를 업어 키운다. 이렇게 새끼를 업어 키우는 이유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고,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차가운 수온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새끼들이 모두 성장하면 새끼들의 독립을 위해서 냉정하게 쫓아낸다.

## 다. 닭목 꿩과

### 8. 꿩-Phasianus colchicus Linnaeus, 1758

#### 〈매사냥감 꿩〉



1-휴식 취하는 수컷 꿩 2011년 6월 20일 황성읍 섬강 산책로



2-날아가는 수꿩(장끼) 2019년 12월 15일 황성읍 섬강

2011년 5월 7일 운암정 부근 섬강 산책로에서 장끼를 만났다. 바위 위에서 화려한 자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니 당당하고 용감하지만 조심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촬영을 했지만 망원렌즈가 아니라서 화질이 많이 떨어져 아쉬웠다. 그 후로 꿩을 촬영하려고 많이 노력하던 중 친구네 집에서 사육하는 꿩을 보았는데 장끼와 까투리는 물론 새끼까지 볼 수 있었다. 자연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매우 아쉽다.

꿩은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며 대표적인 수렵조로, 몸길이 수컷 80cm 암컷 60cm이고, 수명은 27년이다.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로 부르는데 크기와 색깔이 아주 다르다. 번식기에는 가장 힘세고 나이 든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산란기는 4월 하순에서 6월까지이며 산란 수는 6~10(때로는 12~18)개이다. 포란기간은 21일이며, 알에서 깨어 나오면 곧 활동하고 스스로 먹이를 찾는 조숙성 조류이다. 평지 및 1,000m 이하의 산지에서 살며, 800m 이상에서는 보기 어렵다. 먹이는 짙레열매를 비롯하여 수십 종의 나무열매, 풀씨, 곡물과 거미류, 다족류, 갑각류 복족류 등의 각종 동물을 먹는 잡식성이나 식물성 먹이를 많이 먹는 편이다. 꿩은 밤이면 나무 위에 앉아서 천적을 피한다.



3-장끼(수꿩)과 까투리(암꿩)  
2019년 6월 28일 공근면 부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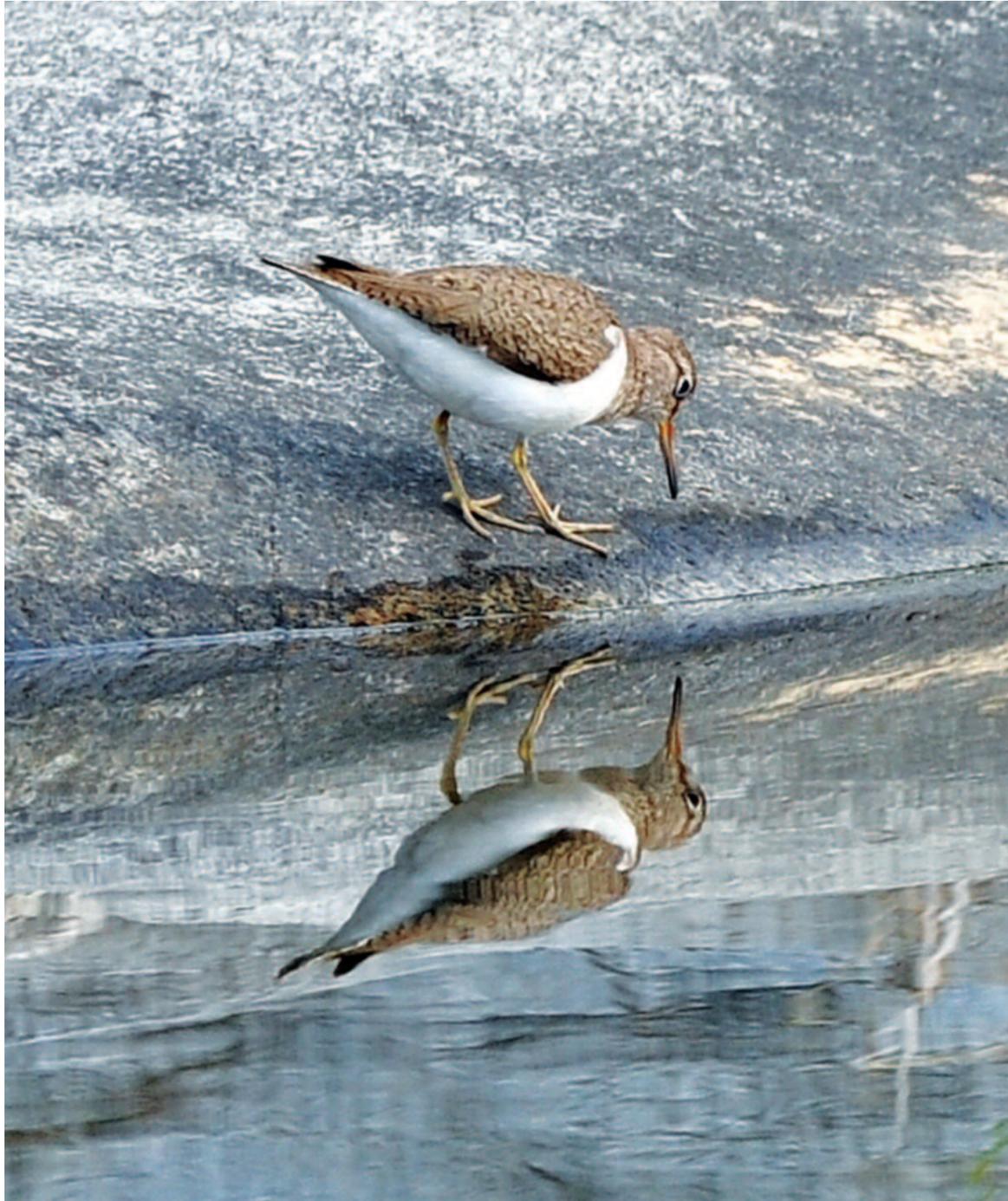
4-암꿩(까투리)과 꿩의병아리(까병이)  
2019년 6월 28일 공근면 부창리

## 라. 도요목

### A. 도요과

#### 9. 갑작도요 - *Tringa hypoleucos* Linnaeus, 1758

〈꼬리를 위 아래로 흔드는 갑작도요〉



1-갑작도요의 먹이 활동 2010년 4월 6일 황성읍 섬강



2-갑작도요의 먹이 활동 2010년 4월 6일 공근면 금계천



3-갑작도요의 먹이 활동 2010년 4월 6일 공근면 금계천

2010년 4월 6일 공근면 부창리 냇가에서 썩지를 위아래로 흔드는 새를 보았다. 사진을 찍어 새이름을 찾아보니 갑작도요이다. 땅에 앉아 있을 때 머리와 꼬리를 끊임없이 상하로 까딱이며 먹이를 찾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새들의 특징을 잡아 잘 지어진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러한 특징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되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이름이지만 이름에도 이렇게 그 새를 표현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갑작도요는 봄과 가을에 이동 중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새로 4, 5월 9, 10월에 관찰 된다. 몸길이 22cm 먹이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다. 봄과 가을에 강가나 호숫가에 내려앉아 단독으로 지내거나 2~6마리씩 작은 무리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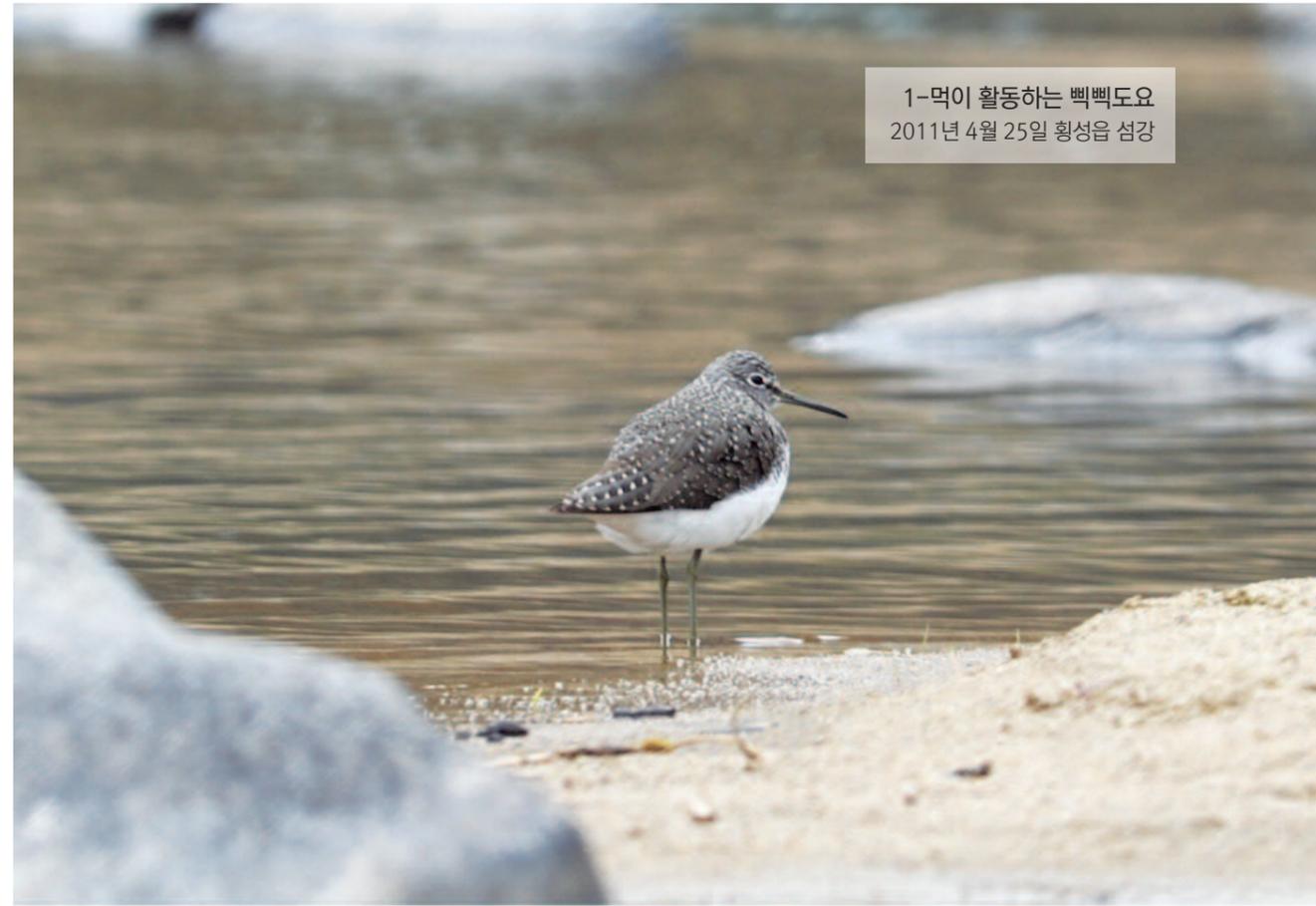
갑작도요는 일상적일 때 ‘삐잇- 삐잇- 삐, 삐, 삐, 쯤이- 쯤이- 쯤이-’ 하고 울며, 새끼를 보호할 때는 ‘뻗, 뻗, 뻗, 뻗’ 하며 우는 차이를 보인다. 번식기가 되면 물가 근처의 모래와 자갈이 있는 곳에서 지름이 10~12cm, 깊이는 4cm 정도의 오목한 접시 모양으로 둥지를 만든다. 알을 낳는 시기는 4월 하순에서 7월 상순이며, 한배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만 알을 품으며, 알을 품는 기간은 20~23일이다. 수명은 14년이다.



4-구애 활동하는 갑작도요 2010년 4월 6일 황성읍 섬강

10. 뺨뺨도요-Tringa ochropus Linnaeus, 1758

〈뺨뺨 소릴 내며 날아가는 뺨뺨도요〉



1-먹이 활동하는 뺨뺨도요  
2011년 4월 25일 황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뺨뺨도요 2011년 4월 25일 황성읍 섬강



2011년 4월 25일 섬강둘레길을 걷는데 바위에 앉아 조용히 쉬고 있던 새가 갑자기 ‘뺨. 뺨’ 소리를 내면서 5~6m 거리를 지그재그로 날아오른 뒤 멀리 날아가는 뺨뺨도요를 만났다, 새의 울음소리를 따온 재미있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뺨뺨도요는 봄과 가을에 흔히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며, 중부 이남 지역의 물가나 해안의 도처에서 1~2마리 또는 4~5마리의 작은 무리들이 흔하지 않게 월동하는 겨울새라고 한다. 9월 중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이듬해 4, 5월 까지 얹이 트인 물가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아 걸어 다니면서 쪼지를 까딱거린다. 좀처럼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데, 종종걸음으로 부지런히 먹이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먹이는 주로 곤충이나 복족류·갑각류 따위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몸길이 약 24cm이며 수명은 11년이다. 단독생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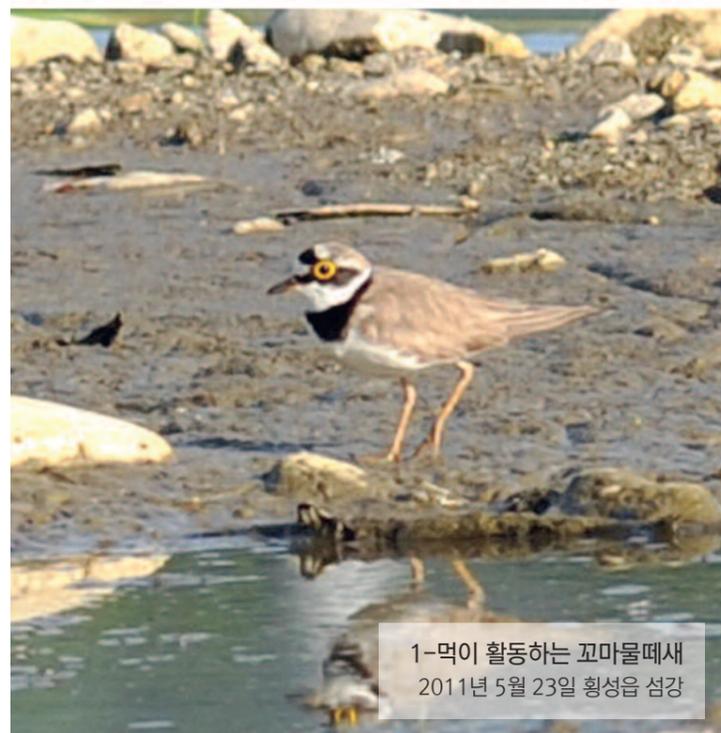
멸종 위기 2급으로 분류된 새이지만 섬강과 전천에서 봄과 가을에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가고 봄에 북쪽으로 가다가 잠시 쉬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번식은 북위 40~58°의 시베리아(남부)·캅카스·몽골·중국(북동부)·아무르 등지에서 한다고 한다. 물가 습지 풀밭에 7월 중순에서 8월에 알을 낳는데, 한배에 3~4개의 알을 낳아 암컷이 20~23일간 품는다고 한다.

## B. 물떼새과

### 11. 꼬마물떼새-Charadrius dubius Scopoli, 1786

〈종종걸음이 귀여운 꼬마물떼새〉



1-먹이 활동하는 꼬마물떼새  
2011년 5월 23일 황성읍 섬강



2-털고르기(상)와 내쫓을 지키려는 꼬마물떼새(하)  
2011년 5월 23일 황성읍 섬강



3-정다운 꼬마물떼새 한 쌍 2009년 4월 23일 황성읍 섬강

2009년 4월 23일 섬강가에서 종종걸음으로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작스럽게 멈추고 먹이를 잡아먹는 꼬마물떼새를 처음 보았는데 눈 둘레의 노란 고리모양 띠가 뚜렷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몸길이 16cm 정도의 크기이며, 물떼새류 중에서 가장 작아서 ‘꼬마물떼새’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한 여름철새로 3월 중순에 도래해 번식하며 11월에 한국을 떠나 인도·동남아시아·스리랑카·뉴기니에서 겨울을 난다. 하천, 자갈밭, 매립지의 키 작은 풀과 모래, 자갈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며 주로 곤충을 먹는다. 산란시기가 되면 둥지를 땅 위의 작은 돌 사이에 틀고 알자리에는 잔돌이나 마른 풀, 조개껍데기 등을 깐다. 4월 하순~7월 상순에 한배에 3~5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기간은 24~28일이다. 천적이 알을 낳은 둥지 가까이 오면 어미새는 날개를 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친 것처럼 의사행동을 해서 천적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간다. 수명은 약 10년이지만 자갈밭이 각종 개발로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 12. 흰목물떼새(Charadrius placidus Linnaeus, 1758)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는 흰목물떼새〉

1-먹이 활동하는 흰목물떼새  
2019년 4월 27일 황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흰목물떼새  
2019년 5월 11일 황성읍 섬강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몸길이 20cm 정도이며, 수명은 5년이다. 과거에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새나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4년 5월 경기도 가평군 현리에서 번식하는 것이 처음 관찰되었다. 이후 전국 단위의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에서 텃새로 번식하며 사는 것이 확인되었다

먹이활동을 할 때는 총총걸음으로 달리듯이 걷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달리듯이 걷는 동작을 반복한다. 걷다가 멈추면 몸을 위아래로 흔드는 습성이 있다. 날 때는 힘차게 직선으로 날아오른다. 3~5마리에서 15~20마리씩 무리지어 개울가에서 먹이를 찾아다닌다. 주로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강바닥 준설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었다.

번식기가 되면 하천 중류 이상의 자갈·모래밭에 둥지를 튼다. 3~7월에 번식하며 3~4개의 알을 낳아 28~29일 간 암수가 교대로 포란한다. 위험할 때 어미가 경계음을 내면 새끼는 자갈 사이에 숨어 움직이지 않는다. 포식자가 새끼 쪽으로 가까이가면 어미는 다친 척해서 포식자의 주의를 끈다.



3-휴식하는 흰목물떼새 2019년 5월 11일 황성읍 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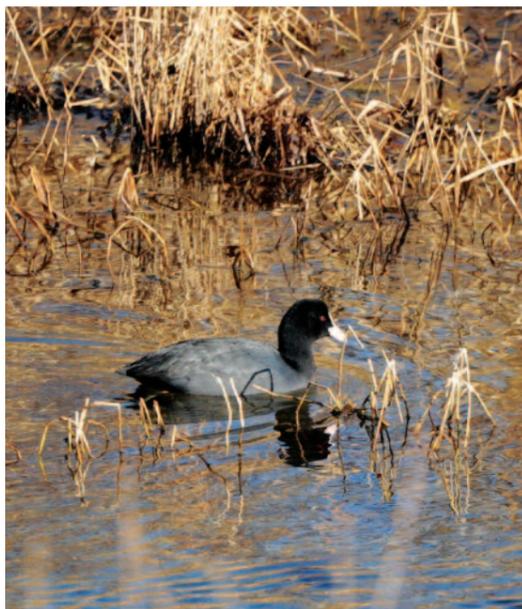
## 마. 두루미목 뜰부기과

### 13. 물닭-Fulica atre Linnaeus, 1758

〈물에 살면서 닭과 유사하게 생긴 물닭〉



1-물닭 2019년 12월 1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물고기를 잡아먹는 물닭  
2019년 12월 2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2019년 12월 14일 남산리 전천에서 까마귀처럼 새카만 물닭이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물닭의 몸길이는 약 32~42cm인데, 흰 이마판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은색이다.

우리나라에 10월경에 찾아와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이지만 일부 무리는 번식도 하는 텃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강이나 호수, 저수지에서 흔히 관찰된다. 물갈퀴와 유사한 판족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 수영과 잠수에 능하며, 위험할 경우 수면을 박차며 물위를 뛰면서 날아간다. 겨울에는 많은 수가 오리류 등과 무리를 지어 월동한다. 강, 저수지에서 곤충, 작은 어류, 식물의 줄기 등을 먹는다.

탁탁하는 소리, 폭발음, 트럼펫 소리를 낼만큼 시끄러우며 밤에 종종 그러하다. 물닭은 개방된 물에서 헤엄치는 모습이나 물가 초지를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공격적인 종으로서 짝짓기 시기에 영토 주장을 심하게 하며 부모 모두 영토 방어 자세를 취한다. 짝짓기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큰 무리를 이루는데, 이는 포식자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는 야간에 이루어지며 놀랍게도 드넓은 지역을 날아다닌다. 물닭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닭이라는 이름 앞에 물이 붙었는데 이것은 닭과 이름이 비슷한 것일 뿐, 실제 닭과는 목부터 나뉘어, 생물학적으로 가깝지는 않다.



3-먹이 활동하는 물닭 2019년 12월 2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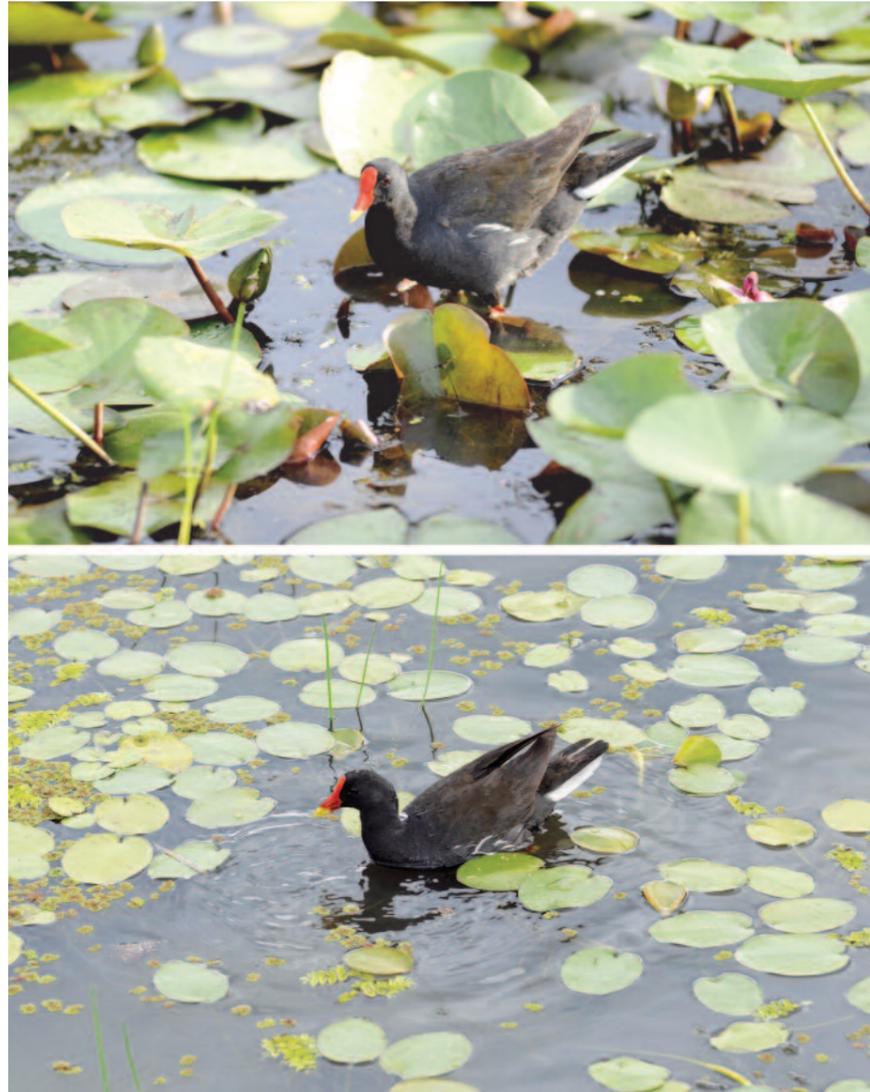


4-물고기를 잡아먹는 물닭 2019년 12월 24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저수지나 하천 등 습지 주변의 풀숲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번식을 시작한다. 둥지는 수면과 약간의 경사도가 있도록 입구를 만든다.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6~10개 정도이고, 암수가 교대로 21~24일간 포란한다. 부화 후 약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14. 쇠물닭-Gallinula chloropus Linnaeus, 1758

〈이마가 빨간 쇠물닭〉



1-먹이 활동하는 쇠물닭 2010년 7월 22일 부여 공남지

2010년 7월 22일 부여 공남지에서 쇠물닭을 처음 보았다, 그 후 황성 남산리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 쇠물닭은 몸길이 33cm이다. 이마에 달걀 모양의 붉은 판이 있다. 수명은 7년 정도이다.

중부 이남에 번식하는 여름새이다. 보통 4월 중순부터 도래하며 10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땅 위에서는 쪼리를 많이 흔들면서 걷고 물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는데, 못이나 농경지·수로·물웅덩이, 하구나 하천 지류의 수초 지대에 산다. 물이 얇은 곳에서는 풀줄기 사이를 숨어 다니므로 잘 보이지 않지



2-먹이 활동하는 쇠물닭 2020년 2월 11일 황성읍 남산리 전천

만 사방이 트인 넓은 곳에서는 잠수도 하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먹이는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 곤충, 연체동물, 갑각류, 환형동물 등을 먹는다. 호숫가나 못가, 저수지, 하구 등 갈대, 줄풀, 마름, 가시연꽃, 큰고랭이, 개연꽃 등의 수초가 우거진 곳에서 번식을 한다. 둥지는 갈대, 부들 줄기 사이에 풀줄기를 엮어 만들고, 알을 낳는 시기는 5월 중순에서 8월 상순이며 한 둥지에 보통 5~8개에서 많게는 12~15개까지 낳는데, 이는 둥지 하나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알을 낳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은 암수 함께 품고, 기간은 19~22일이다. 부화 후 둥지를 떠나 어미와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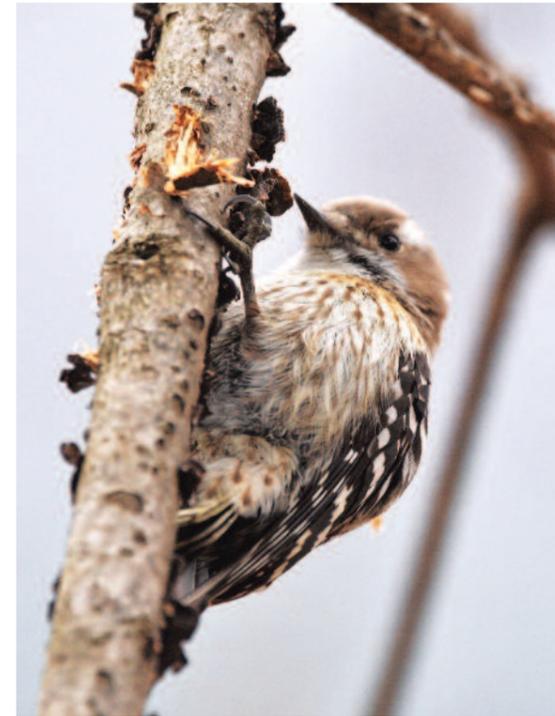
바.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

15. 쇠딱따구리-Dendrocopos canicapillus Blyth,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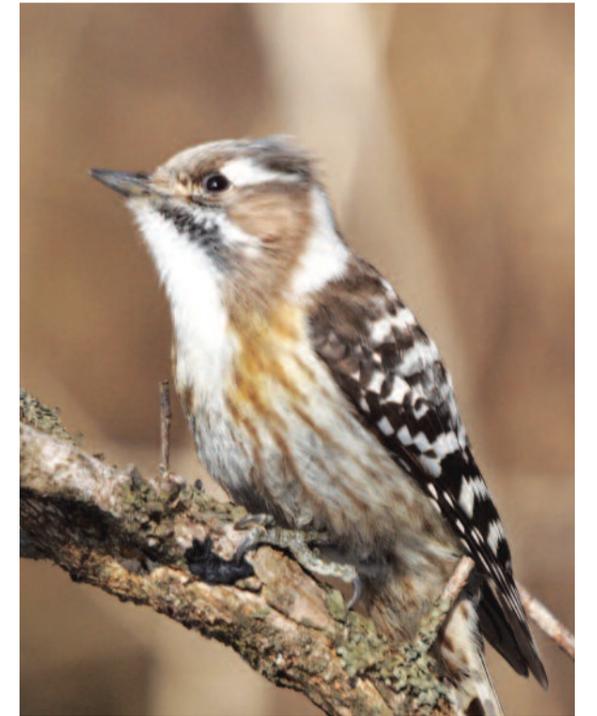
〈딱따구리 무리 중 가장 작은 쇠딱따구리〉



1-먹이 활동하는 쇠딱따구리 성조  
2010년 2월 20일 공근면 상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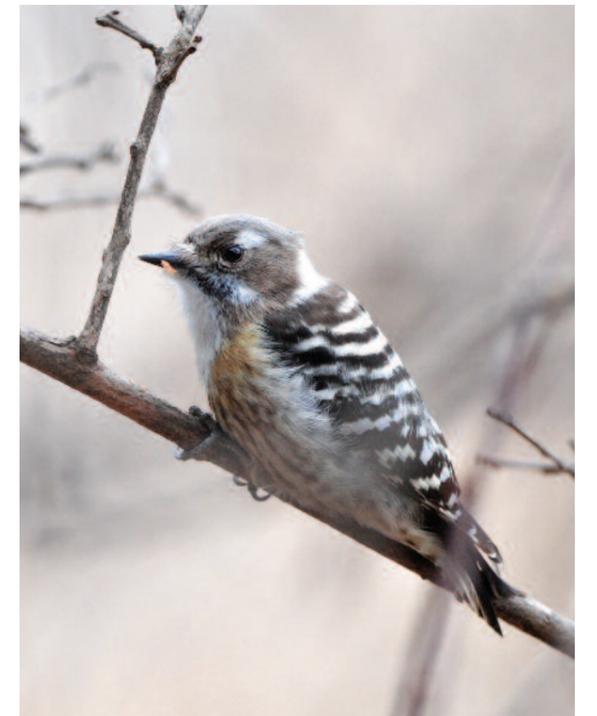
2-먹이 활동하는 쇠딱따구리 성조  
2019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쇠딱따구리 성조  
2019년 3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먹이 활동하는 쇠딱따구리 성조  
2010년 2월 2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먹이 활동하는 쇠딱따구리 성조  
2020년 3월 1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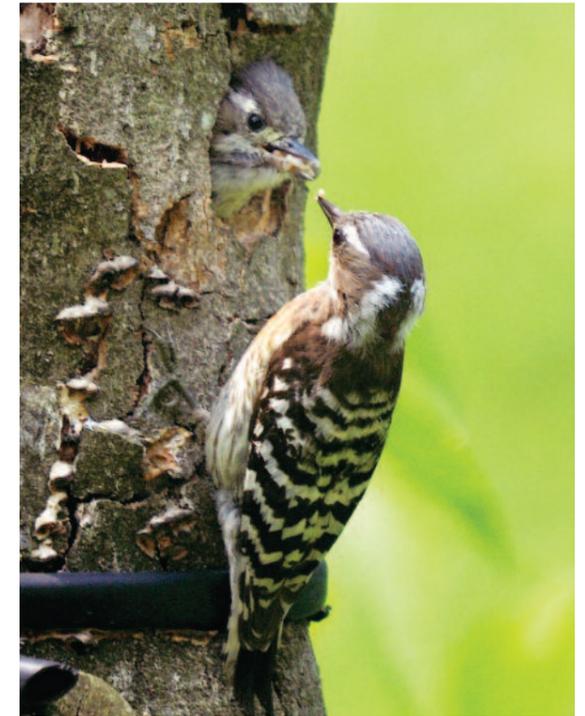
6-어미를 기다리는 쇠딱따구리 유조  
2016년 6월 17일 공근면 상동리



7-유조의 먹이를 가져 온 어미 쇠딱따구리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8-유조에게 먹이를 주는 쇠딱따구리 어미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9-유조에게 먹이를 주는 쇠딱따구리 어미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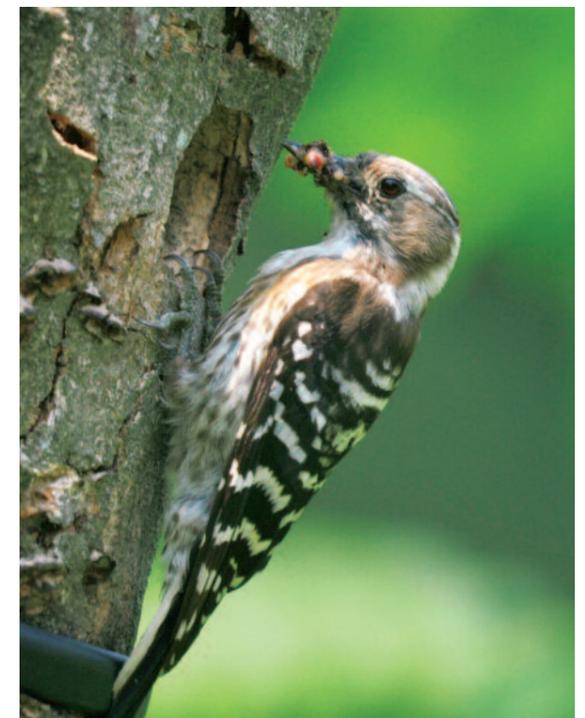
2010년 2월 20일 공근면 상동리에서 마른풀 위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몸길이 약 15cm인 쇠딱따구리를 만났다. 딱따구리류 중 몸이 가장 작아서 쇠딱따구리라고 부른다. 2016년 6월에는 새끼 키우는 모습을 자세히 촬영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 암수가 번갈아가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쇠딱따구리는 전국에 걸쳐 번식하는 텃새인데, 섬강산책로를 걸을 때 가장 많이 만났다. 주로 활엽수림이나 잣목림의 교목 줄기에 구멍을 파고 둥지를 튼다. 단단한 꼬리깃털로 몸을 지탱하여 나무줄기에 세로로 앉거나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어오른다. 나무줄기를 부리 끝으로 쪼아 구멍을 뚫고 긴 혀를 이용하여 곤충의 유충이나 성충을 잡아먹는다.

번식기에는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사는데, 수컷이 나무줄기를 부리로 두들겨 소리를 내면서 자기 구멍으로 암컷을 유인하여 짝을 이룬다. 알을 낳는 시기는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이며 한배에 5~7개의 알을 낳는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털이 없으며 암수가 모두 새끼에게 먹이를 먹인다. 먹이를 먹이는 횟수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많다. 먹이는 곤충류와 식물의 열매이다. 곤충류로는 딱정벌레목, 벌목, 나비목, 파리목, 메뚜기목 등과 다족류, 거미류 등을 즐겨 먹는다. 간혹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 새끼를 키울 때는 대부분 동물성을 먹인다

수명은 약 10년이다.



10-유조에게 먹이를 주는 쇠딱따구리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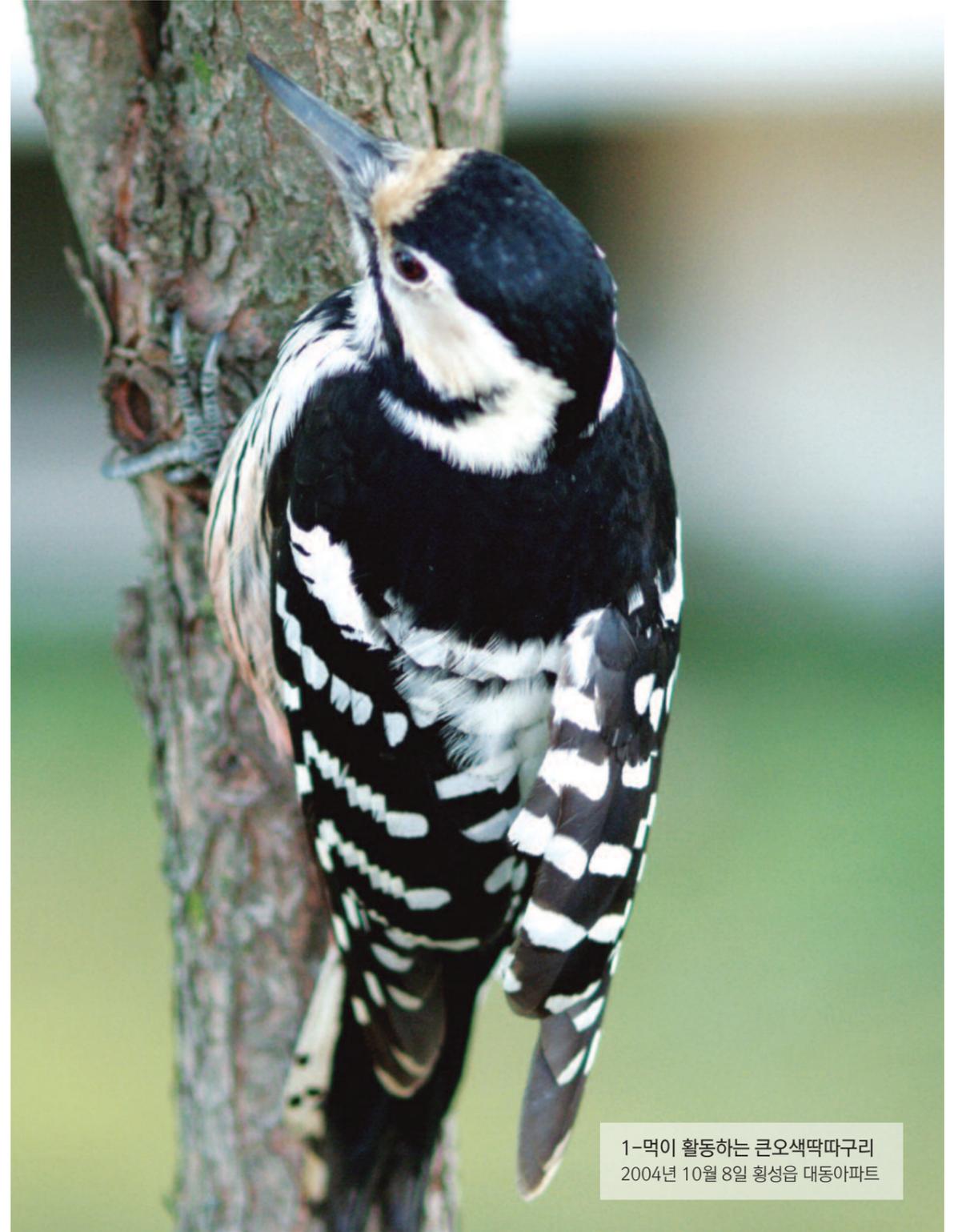
11-유조의 먹이를 가져 온 어미 쇠딱따구리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12-유조의 먹이를 가져 온 어미 쇠딱따구리  
2016년 6월 18일 공근면 상동리

16. 큰오색딱따구리-Dendrocopos leucotos Bechstein, 1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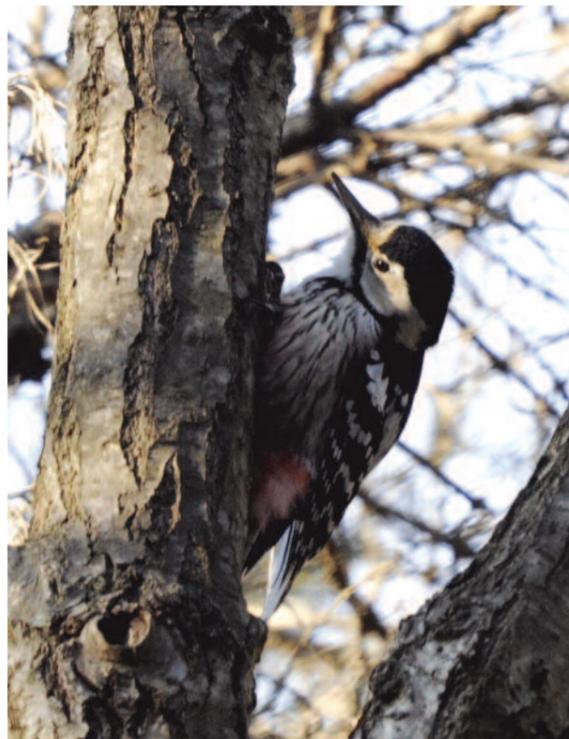
〈번식기 때 드럼소리 내는 큰오색딱따구리〉



1-먹이 활동하는 큰오색딱따구리  
2004년 10월 8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2-먹이 활동하는 큰오색딱따구리  
2004년 10월 8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3-먹이 활동하는 큰오색딱따구리  
2010년 3월 28일 황성읍 승지봉 산책길

비교적 흔하지 않은 텃새로 군청공원 숲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몸길이 약 25~28cm이며, 수명 약 10년이다. 활엽수림 속에서 부리 끝으로 나무줄기를 쪼아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곤충류의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큰 나무가 우거진 활엽수림 또는 아고산대의 혼합림에서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사는데, 쪼아낸 나무줄기에 세로로 앉기도 하며 줄기를 빙빙 돌면서 올라가기도 한다. 연중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다. 번식기에는 속이 비고 단단한 나무나 함석지붕 등을 부리로 두드려 '두루루룩 두루루룩' 하는 드럼 치는 듯한 소리를 낸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번식을 시작하며 오동나무, 백양나무 같은 단단하지 않은 나무나 죽은 고목의 줄기를 직접 파서 둥지를 만든다.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3~5개 정도이고 알의 색은 반점이 없는 하얀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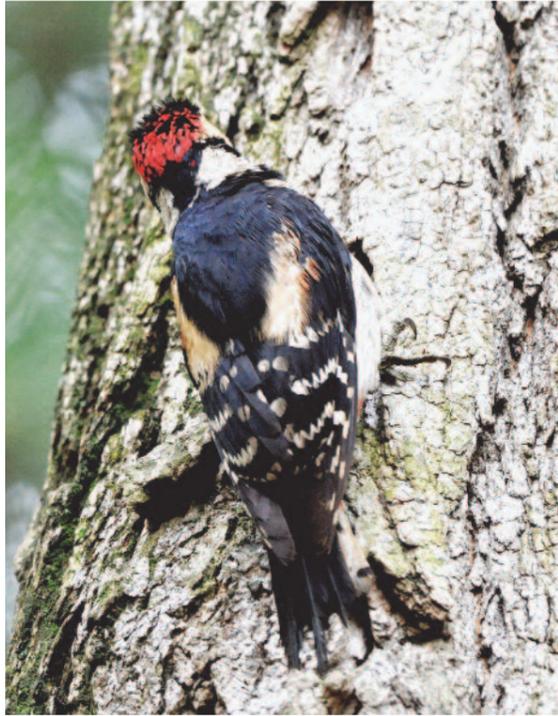
먹이는 주로 딱정벌레(갑충), 나비, 벌, 파리 등의 곤충과 다지류 따위를 잡아먹는다. 식물 씨앗도 먹는다.

## 17. 오색딱따구리-Dendrocopos major Linnaeus, 1758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오색딱따구리〉



1-오색딱따구리 성조 수컷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2-오색딱따구리 성조 수컷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3-오색딱따구리 성조 암컷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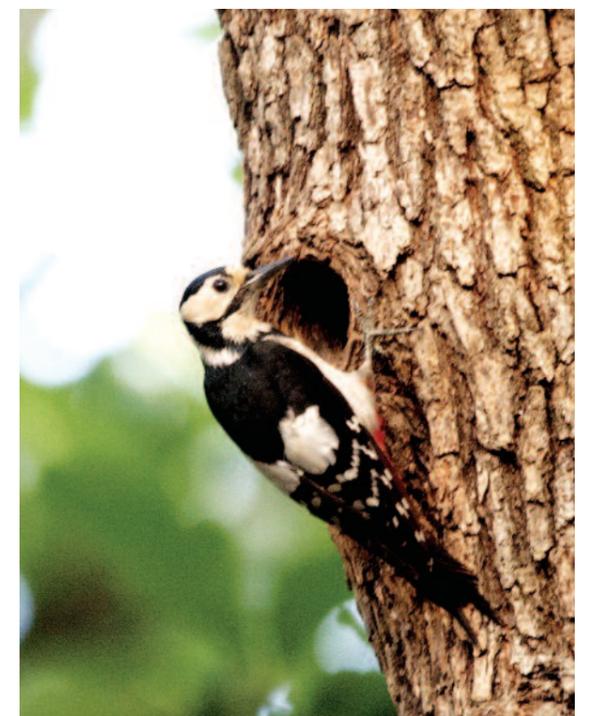
4-오색딱따구리 성조 암컷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5-오색딱따구리 어미의 유조 기르기  
2019년 5월 28일 황성읍 삼일공원



6-오색딱따구리 어미의 유조 기르기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7-오색딱따구리 어미의 유조 돌보기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삼일공원에서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 까지 암수가 함께 새끼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래된 참나무 구멍에 새끼를 쳤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소란스럽게 경계음을 내는 모습이 애처러웠다. 굴속의 새끼를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오색딱따구리는 크기 약 23cm 이며, 흰색·검은색·진홍색·연갈색 등 다채로운 몸 빛깔을 가진 것에서 이름 붙여졌다. 산지 숲속에서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할 때가 많은 흔한 텃새이며 딱따구리류 중 가장 수가 많다. 단단한 공지를 이용해서 나무줄기에 세로로 앉는다. 밤에는 나무구멍 속에서 잔다. 나무줄기를 두드려서 구멍을 파고 긴 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곤충류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곤충류와 거미류 및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

번식기가 되면 숲속 나무줄기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둥지를 튼다. 5~7월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14~16일이며 새끼는 부화한지 20~21일만에 둥지를 떠난다. 번식이 끝나면 가족단위로 무리 짓는다. 수명은 약 10년이다.

## 18. 청딱따구리-Picus canus Gmelin, 1788

### <개미를 좋아하는 청딱따구리>



1-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2-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 4월 15일 황성읍 삼일공원

2016년 4월 6일 삼일공원에서 처음 본 후 2020년 4월 6일과 15일에 두 차례 오후 5시 삼일공원을 산책하다 운 좋게도 수컷을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30cm이다. 이마의 빨간색이 두드러져 수컷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암컷은 이마에 빨간색 부위가 없는 점 외에는 수컷과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회색이 강하다고 한다. 단독으로 나무를 옮겨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 쫓지갯을 이용해서 나무줄기에 수직으로 앉아 있거나 나무줄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고 풀밭에 앉아 먹이활동도 하는데 어찌나 빠르지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높은 음절에서 낮은 음절로 ‘뽀 뽀 뽀 뽀’ 하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고 나서 날개를 몸통에 붙인 채 파도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갔다. 주로 부리로 나무

줄기를 쪼아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사는 곤충류를 먹는데, 그 외에 특히 개미를 좋아하고 딱정벌레, 매미, 나비, 메뚜기 따위를 잡아먹는다. 장미과 식물의 열매도 즐겨 먹는다. 관목이나 땅 위에도 내려앉아 개미를 잡아먹는데, 사람이 다가가면 나무에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4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번식을 시작하며, 오동나무, 백양나무 같은 단단하지 않은 나무나 죽은 고목의 줄기를 직접 파서 둥지를 틀고 4월 하순에서 6월까지 6~8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2주 정도 암수가 교대로 품되 수컷이 품는 기간이 약간 길다. 수명은 10년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텃새라고 한다.



3-청딱따구리 수컷의 먹이활동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4-풀밭에서 먹이 활동하는 청딱따구리 수컷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 사. 매목

### A. 매과

#### 19.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 Linnaeus, 1758

#####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북천리 섬강변에서 촬영한 황조롱이는 농약과 공장폐수 그리고 그 밖의 오염원으로 농축된 새나 짐승과 그 밖의 동물성 먹이를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식률의 저하와 서식환경의 파괴, 그리고 남획까지 겹쳐져 그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어, 1982년 11월 4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323-8호로 지정되어 있다. 몸길이 30~33cm인데 전국적으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텃새이다. 번식기 외에는 단독 생활을 하며 먹이는 주로 땅 위의 목표물 위에서 낮게 날거나 정지비행을 하다가 급강하하여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한다.

먹이는 설치류(들쥐) 두더지, 작은 새, 곤충류, 파충류 등을 먹는다. 산지에서 번식한 무리가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와 흔히 눈에 띄나 여름에는 평지에서 보기 어렵다. 번식기인 4~5월 사이에는 암수가 짝을 지어 생활한다. 주로 강가 산림에서 번식하고, 도시의 아파트, 고층건물에서의 번식이 늘고 있다. 알은 보통 4~6개 정도 낳으며, 색깔은 흰색이나 크림색 바탕에 적갈색 또는 흑갈색의 얼룩무늬가 흩어져 있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7~31일 정도이며, 암컷이 주로 알을 품는다. 새끼는 부화 후 약 30일 이내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 약 10년이다.



1-먹이감을 찾는 황조롱이  
2016년 4월 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 B. 수리과

### 20. 말뚝가리-Buteo buteo Linnaeus, 1758

〈정찰기처럼 천천히 날면서 먹이를 찾는 말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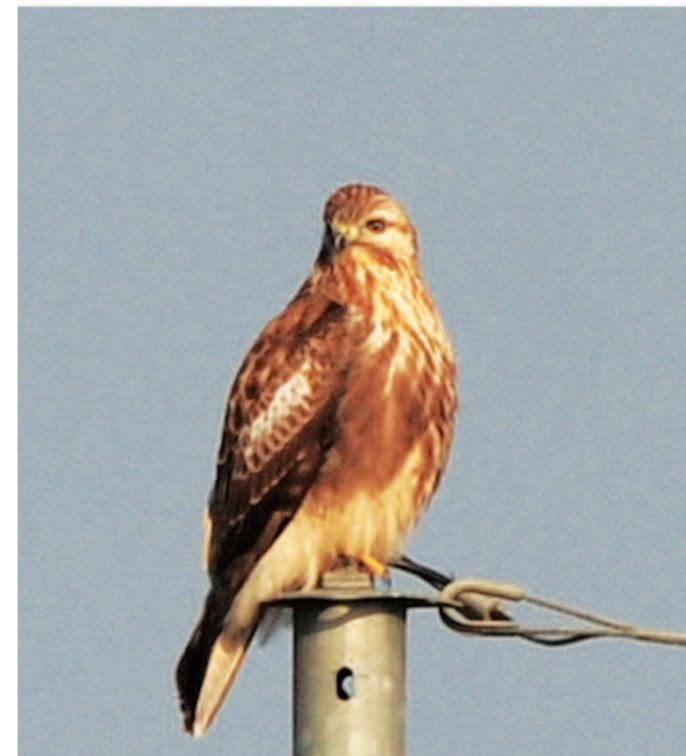
1-먹이감을 찾는 말뚝가리  
2010년 2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대체로 단독생활을 하는데 농경지 주변의 전신주나 높은 나무위에 앉아 먹이가 되는 작은 들쥐를 기다리거나 비행기처럼 하늘을 천천히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날개를 반쯤 접어 빠르게 낙하를 하여 강한 발톱으로 먹이를 낚아챈다.

말뚝가리는 땅딸막한 체형으로 다른 수리과 새에 비해 느리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몸길이 51~57cm이다. 4~6월 번식기가 되면 2~3개의 알을 낳는데 먼저 낳은 알부터 포란한다. 포란 기간은 약 28일 정도이며 육추(育雛: 부화한 조류의 새끼를 키우는 일) 기간은 39~42일이다.

먹이는 포유류의 설치류나 소형조류이며 양서류의 무미목, 파충류의 뱀류, 곤충의 딱정벌레목·매미목·나비목 등도 즐겨 먹는다. 수명은 10년이다. 산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이면 평지로 내려오는 흔한 텃새이다.



2-먹이감을 찾는 말뚝가리  
2020년 1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 21.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 Linnaeus, 1758

### <꼬리깃이 흰 흰꼬리수리>



1-먹이감을 찾는 흰꼬리수리 2020년 1월 13일 황성읍 갈풍리



2-먹이감을 향해 날아가는 흰꼬리수리 2020년 1월 13일 황성읍 갈풍리

몸길이 80~94cm로 크고 육중한 대형 맹금류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드물게 관찰된다. 꼬리깃이 희기 때문에 흰꼬리수리라고 불린다. 성조는 황갈색에서 담황갈색의 머리와 목, 백색 꽂지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이다. 흰꼬리수리는 타고난 물고기 사냥꾼이다. 물가 주변을 날다가 수면 가까이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면 그대로 물 위로 내려앉아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챈다. 주로 연어, 송어 등과 같은 큰 물고기와 짐승인 산토끼와 쥐, 조류인 오리, 물떼새, 도요새, 까마귀 등을 주식으로 삼는다. 내륙의 호수, 하천, 하구 및 개활지나 산림에도 서식하나 산악지대에는 살지 않는다.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번식 직후 어린 새를 동반하기도 한다. 겨울철새로만 알려졌던 흰꼬리수리가 최근에 전남新安군 흑산도와 대둔도 등 섬에서 둥지를 짓고 알을 품는 것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의 산란기는 3~4월이며, 나무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 접시형의 둥지를 짓고 흰색의 알을 1~3개 낳는다. 알은 암수가 교대로 품어 38일 정도 지나면 깨어난다.

새끼는 암수가 함께 기르며 부화한지 3달 정도가 되면 둥지를 떠날 수 있게 된다. 둥지를 떠난 후에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반가량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겨울에는 결빙되지 않은 수면을 찾아 일부가 남하 이동한다. 한국에서는 임진강·한강·낙동강 등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동서 해안 및 남해도서 연안 등 도처에서 월동한다. 1973년 4월 12일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아. 비둘기목 비둘기과

### 22. 바위비둘기-Columba livia Gmelin, 1789

〈훈련이 가능한 바위비둘기〉



1-먹이 활동하는 바위비둘기 2019년 9월 19일 황성읍 파크골프장

리비아 원산의 비둘기이다. 집비둘기·전서구 등 사람이 기르는 비둘기의 원종이며 바위비둘기의 뼈는 구석기 베이징 원인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자극통제가 가능한 조류이며 훈련이 가능하다. 몸길이 32~37cm 정도이며, 절벽에 집을 지으며 먹이로는 과일, 곡류, 전분류, 곤충이나 작은 시체 등이다.

바위비둘기는 집단생활을 하며 서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서열이 낮은 비둘기는 먹이가 있는 지점에서 20~6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비둘기가 식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를 먹는다. 바위비둘기는 길을 찾을 때 방향 지각 능력과 주변 사물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길을 찾는다. 이때 다수의 비둘기는 같은 무리의 비둘기 중 길을 찾는 데 있어 정확도가 높은 비둘기를 따라간다.

### 23. 양비둘기-Columba rupestris Pallas, 1811

〈다양한 색깔의 양비둘기〉



1- 먹이 활동하는 양비둘기 2019년 9월 19일 황성읍 파크골프장



2-먹이 활동하는 양비둘기 2019년 9월 19일 횡성읍



3-양비둘기 유조 2020년 3월 27일 횡성읍 섬강



횡성읍 파크골프장을 지나는 다리 밑에 서식하는 비둘기 무리를 만났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몸길이 33cm 정도이다. 바위 벼랑과 굴, 다리 교각에서 10~3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알은 보통 2개 정도 낳아 암수가 교대로 포란하기 시작해서 17~18일이 되면 새끼가 부화하고, 어미는 소낭에서 젖과 같은 것을 분비하고 새끼가 어미의 입안에 부리를 넣어서 빨아들인다. 20일 정도 지나면 새끼가 둥지에서 날개를 펴덕이며 나는 연습을 하고 4~5일후 홀로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먹는다.

24. 멧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 Latham, 1790

〈구구 구구하며 노래하는 멧비둘기〉



1-먹이 활동하는 멧비둘기 성조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멧비둘기 성조  
2019년 9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휴식하는 멧비둘기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텃새로 대표적인 사냥새이며 범씨와 곡물을 가로채는 유해 조류로 인식되기도 한다. 몸길이는 약 33cm이다. 먹이는 낱알과 나무열매가 주식이지만 여름에는 메뚜기나 그 밖의 곤충류도 잡아먹는다. 이가 없는 멧비둘기는 뺏속의 모래주머니가 있어 먹이와 함께 먹는 모래와 돌맹이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부수어 소화를 돕는다. 낮은 야산과 구릉 숲에 살고 겨울에는 농경지 부근이나 도시에서도 산다. 번식기가 되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목 부분의 깃털을 한껏 부풀려 암컷에게 구애를 한다. 3~6월에 나뭇가지 사이에 마른 나뭇가지로 영성하게 둥지를 틀고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과 수컷이 하루마다 번갈아 15~16일 동안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어미새는 목에 있는 모이주머니 안쪽 벽에서 생성되는 영양제인 ‘비둘기젖(피존밀크)’을 부화한 새끼에게 먹이며, 새끼는 이 젖을 먹고 10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씨앗 등의 딱딱한 먹이를 먹는다. 비둘기젖은 암컷과 수컷 모두 나온다.

비둘기는 귀소본능(자신의 서식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 옛날부터 여러 용도로 길러졌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통신용 비둘기이다.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전화와 인터넷 등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비둘기는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이용되



4-구애활동(좌), 이소를 준비하는 멧비둘기 유조(우) 2019년 3월 20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었다.

그 예로 1918년 미국과 독일 사이의 전쟁 당시 미국은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수의 통신용 비둘기를 날렸다. 대부분의 비둘기는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거나 흩어져 도망가 버렸지만, '쉐어 아미'라는 비둘기는 한쪽 눈과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도착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에서는 이 비둘기에게 훈장을 수여했으며, 현재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박제로 보존되어 있다.

최근에는 경주용 비둘기가 애호가들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 비둘기 경주는 주로 서유럽의 대중적인 인기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화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경주는 경주에 참가하는 비둘기 개체에 번호를 부여한 각대를 다리에 끼고 출발점에서 동시에 비둘기를 날린 뒤 결승장소에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둘기 경주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에서는 400km급의 제주도 코스와 부산 코스의 두 경주가 있으며, 외국에서는 2000km 이상의 장거리 코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경주용 비둘기는 1분당 700m를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분당 1000m 이상의 속도를 내는 품종도 있다고 한다. 최근 경주용 비둘기 중에는 31만 유로(한화 약 4억 4천 500만 원 상당)에 거래된 비둘기와 26억 원에 거래된 경주용 비둘기도 있다고 한다.

## 자. 뺨꾸기목 두견새과

### 25. 뺨꾸기-Cuculus canorus Linnaeus, 1758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게 하는 뺨꾸기〉



1-뺨꾸기 성조 200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2-유조가 자라는 곳을 향해 신호를 보내는 뺨꾸기 어미 200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삼일공원에서 여름철이면 피꼬리소리와 함께 가장 많이 듣는 새소리다. 몸길이 약 32~36cm이며 수컷이 암컷보다 약간 더 크다. 산지나 평지 또는 하천부지 숲에 사는데, 낮은 지대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새이다. 5월에서 8월까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울음소리 초입부나 사이에 '꾸 꾸룩'하는 소리를 작게 내기도 하며 '삐꼭 삐꼭'하고 우는 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삐삐삐'하는 소리를 낸다.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다. 주로 관목에 앉아 쉬지만 전선에도 곧잘 앉는다. 스스



3-뺨꾸기 유조를 기르는 붉은머리오목눈이  
공근면 학담리 참깨밭

로 둥지를 틀지 않고 때까지, 멧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종달새 등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 5월 상순에서 8월 상순까지 한 개체의 암컷이 12~15개의 알을 12~15개의 둥지에 낳는다. 한국에 도래하는 뺨꾸기 알의 색깔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붉은머리오목눈이의 흰색 알의 둥지와 파란색 알의 둥지 중, 주로 파란색 알의 둥지에 탁란한다.

가짜 어미가 품은 지 10~12일 지나면 진짜어미 새끼보다 먼저 부화하는데 부화 후 1~2일 사이에 같은 둥지 안에 있는 진짜 어미의 알과 새끼를 등에 엮고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둥지를 독차지한다. 진짜 어미로부터 20~23일간 먹이를 받아먹은 뒤 둥지를 떠난다. 그러나 둥지를 떠난 뒤에도 7일 동안은 진짜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다. 먹이는 곤충, 특히 송충이를 즐겨 먹고 새끼에게는 곤충의 유충을 먹인다. 둥지 1개에 1~3개의 알을 낳지만 1마리만이 성장한다. 2000년 여름에 공근면 학담리 참깨밭 속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가 몇 배나 덩치가 큰 뺨꾸기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했다.

뺨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탁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뺨꾸기를 관찰해 보면, 암뺨꾸기는 적어도 네 개에서 여섯 개의 알을 낳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알을 한 두 개 낳을 때마다 꼭 교미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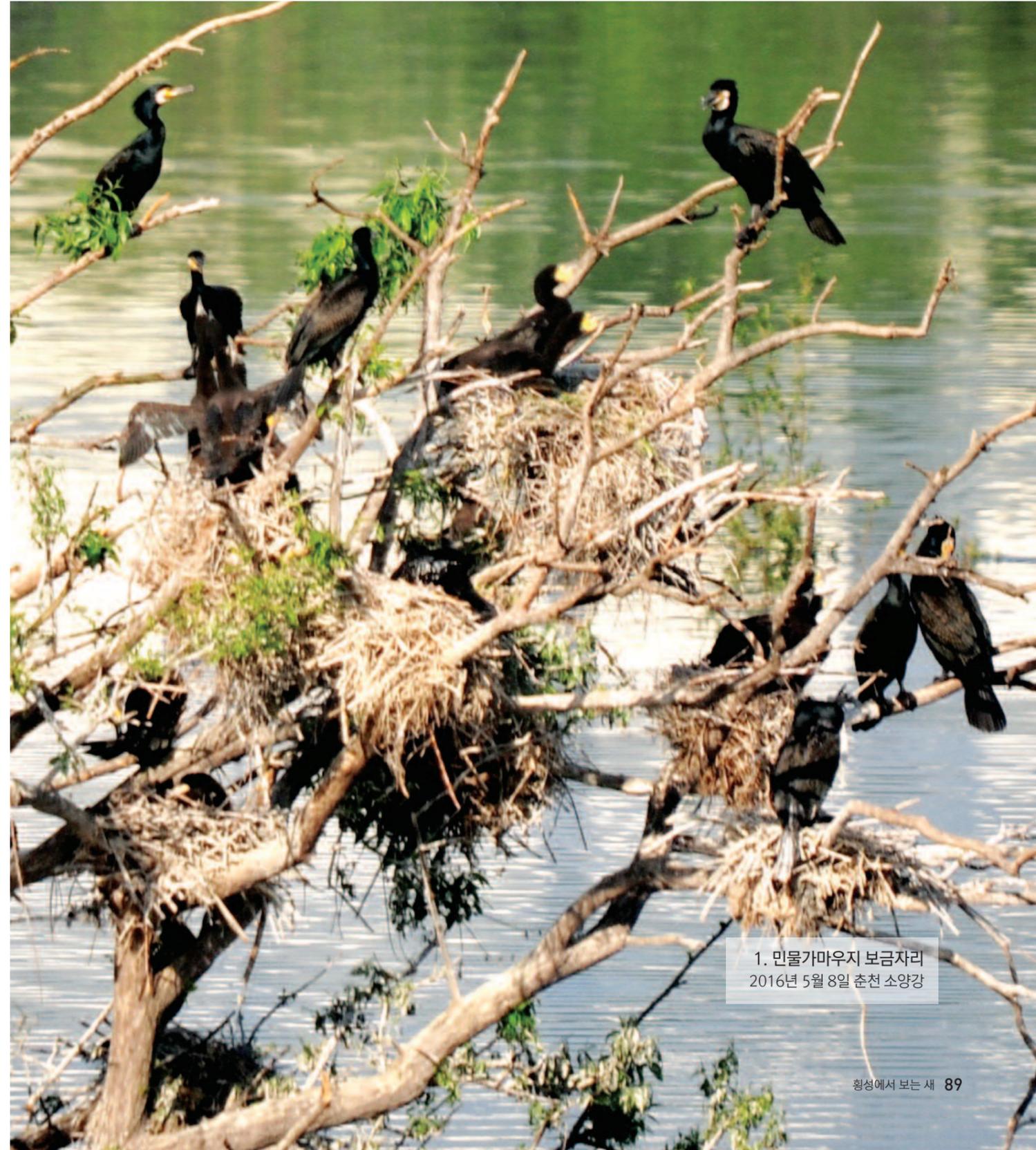
그러나 뺨꾸기가 모든 알을 직접 품는다면 교미 전에 먼저 낳은 알 한두 개는 품어 주지 못하는 동안 썩어 버릴 것이다. 아니면 교미하여 알을 낳을 때마다 한두 개씩 각각 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뺨꾸기는 아주 짧게 머무는 철새이기 때문에 계속 알을 품고 있을 시간이 없다. 뺨꾸기는 이렇게 여러 차례 교미한 후 한두 개씩 주기적으로 알을 낳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양부모가 돌보게 한다.

뺨꾸기 중 일부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은 양육보다 더 많은 알과 새끼를 갖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된다.

## 차. 사다새목 가마우지과

### 26. 민물가마우지-*Phalacrocorax carbo* Linnaeus, 1758

〈기후변화로 이사 온 민물가마우지〉



1. 민물가마우지 보금자리  
2016년 5월 8일 춘천 소양강

3-휴식하는 민물가마우지  
2019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



2-날개를 활짝 편 민물가마우지  
2019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

4-휴식하는 민물가마우지  
2019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





5-날아오르는 민물가마우지 2019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



2016년 5월 8일 소양강에서 처음 보았을 때 ‘까마귀 무리가 물에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민물가마우지다. 2017년 6월에는 황성에서도 촬영할 수 있었다. 몸길이 89~102cm, 뺨과 목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이다. 시베리아 북극 인근 지역에서 번식하고 늦가을 즈음 주로 남해 거제도과 서해 앞바다 섬에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로 한국에서도 많이 나무에 무리지어 번식하고 있다.

둥지는 암초나 죽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접시 모양으로 만드는데, 산란기는 5월 하순에서 7월이며,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4~5개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34일이며, 부화한 새끼는 약 40일간 둥지에 머무른다.

가마우지들은 잠수를 매우 잘하는 새로, 보통 30초쯤 5~10m 깊이까지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가마우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다. 가마우지는 부리 끝이 갈고리 모양을 한 뾰족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 물속에서 물고기를 쉽게 잡아챌 수 있는데,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삼킬 수 없도록 어부는 목 아랫부분을 실 같은 것으로 묶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물고 올라온 가마우지의 입에서 물고기를 꺼내는 것이다. 먹이를 구하는 곳과 휴식하는 곳의 이동시 기러기처럼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며, 무리지어 날아다닌다. 수명 15~20년이다.

## 카. 올빼미목 올빼미과

### 27. 수리부엉이-Bubo bubo Linnaeus, 1758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부엉이〉



1-낮잠자는 수리부엉이 2011년 7월 9일 덕고산

2011년 7월 9일 덕고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수리부엉이를 보았다. 몸길이 약 70cm의 대형 조류로 머리에 난 귀 모양 깃털이 특징인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낮에는 깊고 어두운 숲 속이나 나무구멍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하여 새벽 해 뜰 무렵까지 활동한다. 실 때는 곧게 선 자세로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다가 낮게 파도 모양으로 날며, 밤에는 하늘 높이 떠서 바위산을 오가기도 한다. 야행성 조류와 마찬가지로 깃털이 부드러워 날아다닐 때 거의 날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이나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수명은 21년이다.

바위굴 밑의 편평한 곳, 또는 바위벽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둥지 없이 한배에 2~3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34~36일이고, 새끼의 성장 기간은 35일이다. 새끼에게 주로 꿩·산토끼·쥐를 잡아 먹고, 어미새는 그 밖에 개구리, 뱀, 도마뱀, 곤충 따위도 잡아먹는다.

민속에서는 한밤중에 우는 부엉이 소리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로부터 부엉이가 동네를 향해 울면 그 동네의 한 집이 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조로 여긴다. 또 먹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다가 쌓아 두는 습성이 있어 재물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 얼굴을 닮은 매’라고 해서 묘두웅(貓頭鷹)이라고도 불렀다. ‘고양이 묘(貓)’는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耄)’자와 음이 비슷해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부엉이가 울면 풍년이 든다’는 말은 수리부엉이가 곡식을 먹어치우는 쥐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생긴 말이며, ‘부엉이 곳간 같다’는 수리부엉이가 새끼에게 먹일 먹잇감을 둥지 주변에 저장해 두는 습성에 빗대어 온갖 재물을 모아 두어 풍족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부엉이 집 만났다’는 ‘부엉이 곳간 같다’와 비슷한 뜻으로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발견하면 주변에 숨겨둔 꿩이나 토끼 등을 얻을 수 있었기에, 뜻하지 않게 먹을 복이 생겼거나 재물이 생겼다는 뜻이다. 낮에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해 어리석어 이해타산이 분명하지 못한 셈을 부엉이셈이라 한다.

## 타. 참새목

### A. 까마귀과

#### 28. 까마귀-Corvus corone orientalis Linnaeus, 1758

##### <영리한 새 까마귀>



1-먹이 활동하는 까마귀  
2019년 10월 18일 황성읍 섬강



2-먹이 활동하는 까마귀 2009년 6월 4일 황성읍 덕고산

까마귀사진은 여러 장 촬영했으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아직도 얻지 못해 안타깝다. 까마귀는 몸길이 50cm로 산지 숲, 농경지, 농촌 인가 부근, 하천부지, 공원에서 무리지어 생활한다. 평소에는 벌씨, 식물의 열매, 곤충, 죽은 동물의 시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먹지만, 번식기에는 주로 동물성 먹이를 많이 먹는다.

알을 낳는 시기는 3월 하순~6월 하순이고, 1년에 한 차례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날라다 먹인다. 암컷이 주로 알을 품고 수컷은 먹이를 운반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 알을 품는 기간은 19~20일이고 새끼는 부화한 지 30~35일이면 둥지를 떠난다. 어린 새는 둥지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어미 새와 함께 지낸다. 번식이 끝나면 제각기 무리를 지어 휴식처와 텃세권을 정하고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까마귀는 다른 종류의 새에 비해 대뇌가 발달해 학습 능력이 좋은 새, 영리한 새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까마귀의 집단은 리더가 없는 단순한 집합체인데, 이 때문에 '오합지졸(烏合之卒)'이라는 말이 생겼다. 또 까마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해서 피해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주도 신화 '차사본풀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인간의 수명을 적은 적패지를 강림이 까마귀를 시켜 인간 세계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마을에 이르러 이것을 잃어버린 까마귀가 자기 멋대로 외쳐댔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의 죽는 순서가 뒤바뀌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죽어갔다. 이때부터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29. 까치-Pica serica Gould, 1845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



1-먹이 활동하는 까치 성조  
2019년 6월 1일 황성읍 삼일공원



2-먹이 활동하는 까치 성조 2019년 8월 3일 황성읍 삼일공원



3-먹이 활동하는 까치 성조 2019년 5월 31일 황성읍 삼일공원

까치도 까마귀처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기가 힘들었다. 몸길이 50~54cm, 정도로 까마귀보다 조금 작는데, 꼬리가 길어서 26cm에 이른다. 어깨와 배·허리는 흰색이고 머리에서 등까지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검정색이다. 암수 같은 빛깔이다. 날 때 둥근 날개를 펼치며 비교적 천천히 난다. 한곳에서 사는 텃새로서, 둥지는 마을 근처 큰 나무 위에 마른가지를 모아 지름 약 1m의 공 모양으로 짓고 옆쪽에 출입구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둥지는 해마다 같은 것을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2~7개이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8일이고, 부화한 새끼는 약 22~27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암컷이 알 품기와 새끼 기르기를 전담하고, 수컷은 둥지를 비롯한 세력권을 방어하는 등 번식기에는 암수가 역할 분담을 한다. 번식기에는 세력권을 형성하며, 세력권의 크기는 서식지 조건에 따라 다르며 적게는 1ha~10ha 이내이다. 번식기가 아닐 때에는 세력권을 형성하지 않는다.

번식이 끝난 6~8월에는 소수가 무리를 이루며, 월동기인 12월에 가장 큰 무리를 이루어 먹이활동, 천적방어 등을 하며 겨울을 난다. 식성은 잡식성이어서 쥐 따위의 작은 동물을 비롯하여 곤충·나무열매·곡물·감자·고구마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다.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는 익조이기도 하다. 또 까치는 머리

가 아주 좋아서 대략 6~8세 아이 정도 지능이 있으며, 거울을 알아본다고 한다. 적응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산다고 한다. 인간의 도시에서도 잘 살아가는 편. 참새, 비둘기, 제비와 함께 한국인에게 친숙한 새다.

까치는 현재 울릉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흔한 텃새이지만, 1989년까지 제주도에 까치가 살지 않았었다. 1963년 국제조류보호위원회에서 한차례 까치 8마리를 육지에서 공수해 제주도에 내 산림이 가장 밀집된 삼성혈 수림에 방사하였으나 방사된 개체가 서서히 줄면서 70년대 이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을 당시 조류 학자들은 제주도의 기후조건과 주변 다른 종들과의 관계로 인해 까치가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후 80년대 중반까지도 제주도에서는 까치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1989년 아시아나항공과 일간스포츠가 창간 기념행사로 까치 53마리를 제주도에 방사하면서 현재 많은 수의 까치가 제주도에 서식하게 되었다. 울릉도에는 현재까지 까치가 살고 있지 않는다. 1991년 경상북도에서 까치 34마리를 울릉도에 방사하였으나 매년 개체가 줄어들더니 1997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까지 관찰이 되지 않고 있다.

길조로 알려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까치가 현재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산림 개발 및 도시화를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까치의 천적이던 맹금류의 수가 줄어들어 번식력이 좋은 까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데 원인이 있다.

봄, 여름에 나무의 유해 곤충을 잡아먹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반해 딸기, 수박, 감귤, 사과 등의 과



4-성조4 2019년 5월 31일, 성조(우) 2020년 4월 14일 황성읍 삼일공원

실을 쪼아 먹어 과수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비닐하우스를 쪼아 구멍을 뚫어놓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는 까치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다각적인 연구 및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학습 능력이 좋은 까치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농작물의 재배시기에 따라 까치를 유해조수로 분류하여 해마다 포획하고 있어 더 이상 길조로 사랑받던 새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5-까치 유조 2019년 7월 23일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 30. 물까치-Cyanopica cyanus Pallas, 1776

〈온가족이 함께 새끼를 돌보는 물까치〉



1-휴식하는 물까치 성조  
2010년 5월 15일 평창군 수항리



2-먹이 활동하는 물까치 2017년 6월 25일 갑천면 황성휴양림

2017년 6월 초에 황성자연휴양림에 물까치가 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유조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주위의 물까치 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몸길이는 약 37cm이다. 산기슭의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 덩굴이 무성한 마을 부근 숲에서 가족 중심의 무리를 지으며, 적체는 5-10개체에서 많게는 30개체 이상이 집단생활을 한다.

천적이 세력권 내로 들어오면 집단 방어를 하며, 육아를 할 때도 친지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를 찾기 위해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울음소리를 주고받으며 계속 이동한다. 식성은 잡식성이어서 양서류·어

류·갑각류·연체동물 따위의 동물성 먹이 외에 벼·콩·옥수수·감자 등 농작물과 배·감·귤·포도 등 과일도 즐겨 먹는다. 그러나 새끼에게는 주로 여치·털매미 따위 곤충이나 청개구리·거미 따위를 잡아 먹이고 약간의 식물성 먹이를 먹인다.

번식기가 되면 낙엽송 등 나무와 대나무숲에 둥우리를 틀고 5월부터 산란한다. 한배에 6~9개의 알을 낳아 17~20일 동안 품는다. 새끼는 18일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은 뒤 등지를 떠난다. 자연의 세계는 냉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미가 약하거나 죽을 경우, 그 새끼는 죽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까치의 세계는 다르다.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가 적을 경우에는 이모, 삼촌, 형, 누나들이 먹이를 갖다 주며 공동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죽었을 경우에도 주변의 가족들이 사체에 모여서 추모를 하듯이 한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3-휴식하는 물까치 성조 2017년 6월 21일 갑천면 황성휴양림



4-유조에 접근하자 날아와 경고하는 물까치 성조 2017년 6월 21일 갑천면 황성자연휴양림



5-유조를 돌보는 어미 물까치 2017년 6월 18일 갑천면 횡성자연휴양림



6-물까치 유조 2017년 6월 18일(좌), 2017년 6월 21일(우) 갑천면 횡성자연휴양림



7-물까치 유조 2017년 6월 25일(좌), 2017년 6월 28일(우) 갑천면 횡성자연휴양림

### 31. 어치-Garrulus glandarius Linnaeus, 1758

〈다른 새의 소리를 흉내 내는 어치〉



1-어치 성조 2010년 4월 8일 황성읍 승지봉



2-날아가는 어치 성조 2010년 4월 8일 황성읍 승지봉



3.먹이 활동하는 어치 성조 2019년 3월 20일 황성읍 승지봉

매우 민첩하고 경계심이 강하여 접근하기가 힘들었다. 몸길이 약 34cm 정도로 중형이며,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는 동일하다. 산까치라고 불려왔던 친숙한 새로, 산림조류의 대표종이다. 어치는 동물성(들쥐, 새의 알·새끼, 개구리, 도마뱀, 어류, 연체동물 등)과 식물성(벼·옥수수·콩 등의 농작물과 나무열매, 과일 등)을 혼식하는 잡식성이다.

다른 새의 소리를 흉내내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치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소리로 괴성을 지르기도 하며, 간혹 맹금류의 소리를 흉내 내어 자신의 서식지로 천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때로는 피꼬리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까치나 까마귀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한다. 나뭇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갈 때나 땅 위에서 걸을 때는 양쪽 다리를 함께 모아 툭툭 뛰며 걷는다.

임지와 구릉의 낙엽활엽수림과 혼효림에 나뭇가지로 접시모양의 둥지를 틀고 4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걸쳐 한배에 4~8(보통 5~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16~17일이며, 새끼는 부화 후 약

17~20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새끼를 키울 때에는 곤충의 유충·성충, 거미류, 개구리 등을 먹이는데, 특히 송충이·털매미·청개구리 등을 주로 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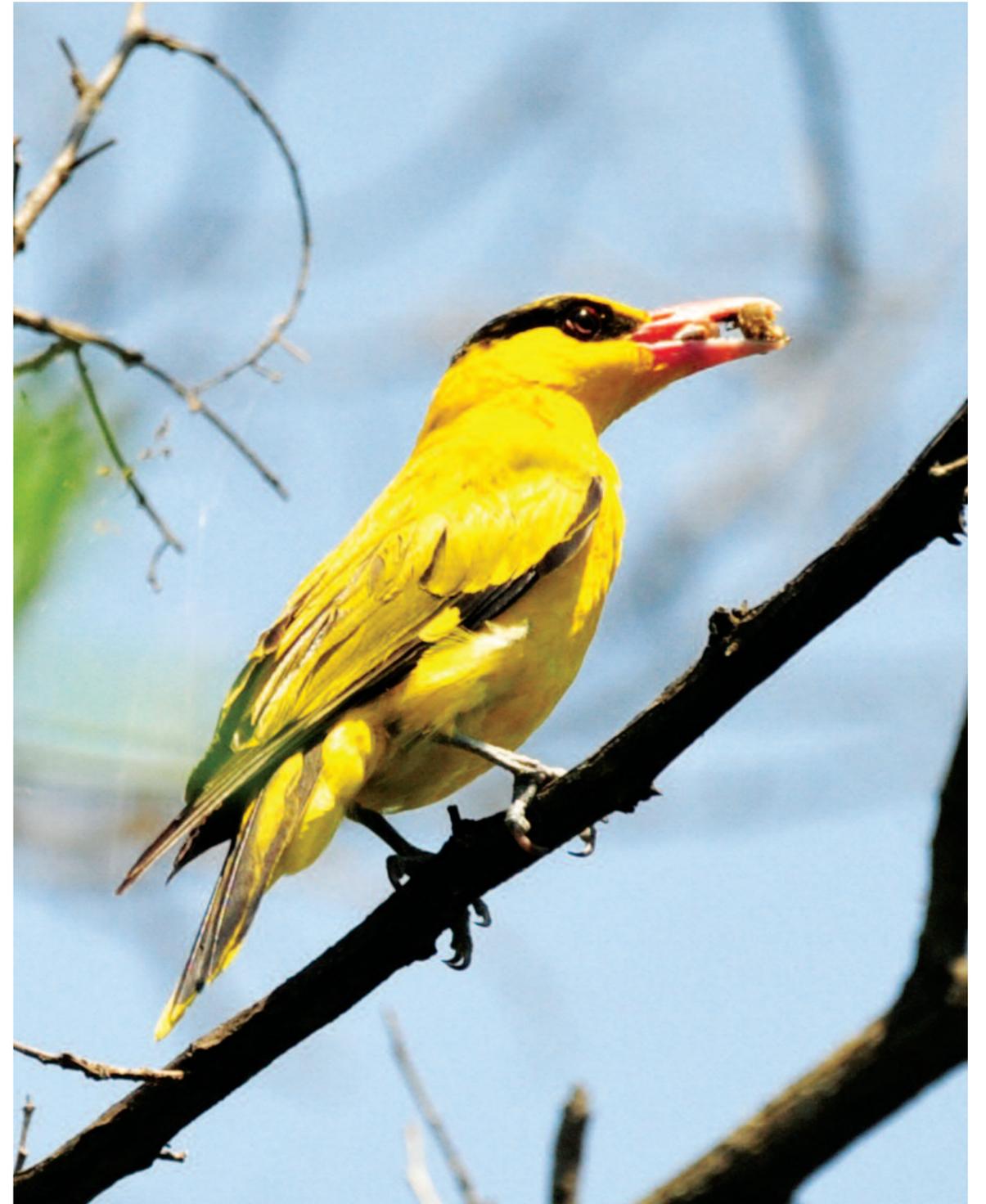
어치의 경우, 도토리 같은 잘 썩지 않는 열매를 열심히 목 부분에 담고 저장장소에 옮겨 놓는 습성이 있다. 한 번에 목 부분에 담을 수 있는 양은 보통 4-5개, 많게는 10개이다. 이러한 행동은 도토리가 여물기 시작할 때부터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저장소로는 땅을 이용하는데, 땅에 구멍을 낸 뒤 도토리를 한 알씩을 집어넣고 낙엽이나 이끼 같은 것으로 덮어 놓는 방식이다. 가끔 땅 외에 나무와 나무사이에도 보관을 하며, 보관된 장소는 위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이러한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치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감춘 먹이를 쉽게 찾아낸다. 수명은 약 7년이다.

32. 피꼬리-Garrulus glandarius Linnaeus, 1758

〈노래 소리가 맑고 고운 피꼬리〉



1-휴식하는 피꼬리 성조 2019년 6월 22일 황성읍 삼일공원



2-유조를 돌보는 피꼬리 성조 2019년 6월 22일 황성읍 삼일공원



3-피꼬리 성조 2016년 5월 5일 황성음 삼일공원



4-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피꼬리 성조  
2019년 6월 22일 황성음 삼일공원



5-알 품기하는 피꼬리 성조  
2019년 5월 28일 황성음 삼일공원





7-먹이 활동하는 피꼬리 유조 2019년 6월 26일 황성읍 삼일공원

5월 초 삼일공원 진입로에서 피꼬리 집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 있고 장애물이 있어 사진 촬영하기가 어려워 아쉬웠다.

피꼬리는 몸길이는 25cm로 제법 크고, 몸 전체는 노란색이다. 여름철새로, 중국 남부·인도 남부·인도차이나 등에서 겨울을 나고 4~5월에 한국에 찾아와 널



8-물마시러 온 피꼬리 유조  
2019년 6월 26일 황성읍 삼일공원



9-물마시러 온 피꼬리 유조 2019년 6월 26일 황성읍 삼일공원

리 번식하고 10월 말이면 남쪽으로 날아간다, 주로 아까시나무, 참나무 숲 등 활엽수림에서 생활하며 곤충을 주식으로 한다. 땅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몸 색깔이 특징이다. 또한 피꼬리는 ‘황조’라고도 불리며 봄철에는 곤충의 애벌레와 성충, 특히 송충이 등을 즐겨 먹으며, 가을철에는 식물의 열매를 많이 먹는다. 피꼬리는 울음소리가 매우 맑고 고우며 모양도 아름다워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시가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가 전하는데 유리왕은 자기의 고독한 처지를 암수의 피꼬리가 의 좋게 노는 것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피꼬리는 자웅의 정의가 두터운 새로도 알려져 있다. 도시의 공원이나 정원, 사원, 농

경지의 소나무 숲, 침엽수림, 낙엽 활엽수림, 침엽수와 활엽수가 함께 자라는 곳에서 암수 또는 혼자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몸단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의 접근을 두려워하며 항상 나무 위 높은 곳에 숨어 있다. 알을 낳는 시기는 5~7월이다. 번식기에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며 일정한 세력권을 갖으며, 둥지에 접근하면 요란한 소리로 경계한다. 둥지는 수평으로 뾰족한 나뭇가지 사이에 풀뿌리를 거미줄로 엮어 밥그릇 모양으로 늘여지게 만든다. 5월에 번식하며, 한배 산란 수는 3~4개다. 포란기간은 18~20일이다. 수명은 8년이다.

## B. 동고비과

### 33. 동고비-Aix galericulata Linnaeus, 1758

〈나무 줄기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동고비〉



1-제물(祭物)을 먹는 동고비 2005년 2월 20일 대관령 산신당



2-나무줄기에서 먹이 활동하는 동고비(좌) 2019년 5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나무줄기에서 먹이 활동하는 동고비(중) 2010년 3월 28일 섬강둘레길  
 4-나무줄기에서 먹이 활동하는 동고비(우) 2019년 5월 1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나무줄기를 거꾸로 바쁘게 오르내리며 자유자재로 기어다니는 동고비는 몸길이 14cm이며, 전국에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다. 섬강둘레길을 걸을 때 많이 보았던 새이다. 낙엽이나 활엽수림에서 서식하며 혼자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고, 번식 후에는 다른 종과 함께 무리를 형성한다. 흔히 박새나 쇠박새의 무리 속에 섞여 지낸다. 여름에는 거미류나 곤충류를 잡아먹고 겨울에는 식물의 씨앗이나 나무열매를 먹는다. 울음소리가 크고 금속성 소리를 낸다. 대체로 지상으로 잘 내려오지 않으나 때로는 땅위에서 양쪽 다리를 함께 모아 뛰거나 걸으며, 물을 먹을 때도 있다.

둥지는 딱따구리의 낡은 둥지나 나무구멍을 이용하여 틀고 출입구가 크면 흙으로 입구를 막아 좁힌다. 산란기는 4~6월이고 한배의 산란 수는 7개이며,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새끼는 알을 품은 후 14~15일이면 부화하고, 그 후 23~25일이면 둥지를 떠난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 C. 되새과

#### 34. 방울새-*Carduelis sinica ussuriensis* by Hartert, E, 1903

##### <쫓로롱 쫓로롱 방울새>



1-방울새 성조  
 2011년 4월 29일 황성읍 읍하리



2-서리 내린 땅위에서 먹이 활동하는 방울새 2014년 3월 22일 횡성읍 삼일공원



4-먹이활동1 2014년 3월 22일 횡성읍 삼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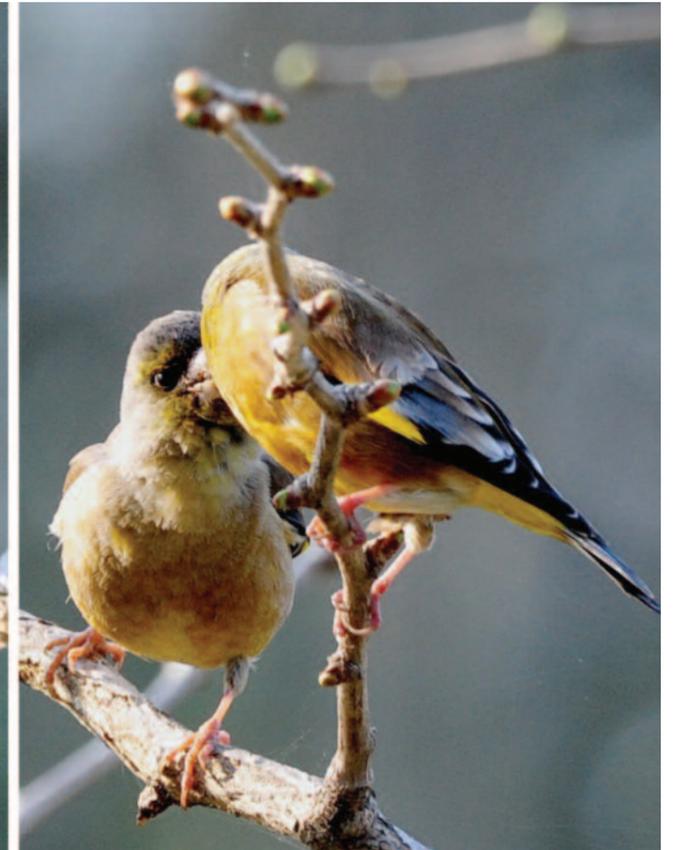
3-풀밭에서 먹이활동하는 방울새 2016년 4월 20일 횡성읍 삼일공원





5-들깨씨를 찾아 먹는 방울새 2014년 3월 22일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6-먹이활동 2020년 4월 14일 황성읍 삼일공원



7-구애활동하는 정다운 방울새 한쌍 2020년 4월 15일 황성읍 삼일공원



8-휴식하는 방울새 무리 2011년 4월 29일 황성읍 섬강테니스코트

‘방울새야, 방울새야, 쫄로롱 방울새야’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불렀던 노래의 방울새를 테니스장 옆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참으로 신기했다. 몸길이 약 14cm인 방울새는 낮은 산지 숲이나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탁 트인 농경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시골 마을 근처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사는 흔한 텃새이지만 보통은 20~30마리씩 작은 무리를 이룬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목을 좌우로 흔들면서 또르르르륵, 또르르르륵하고 방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방울새라는 이름이 생겼다. 나무뿌리나 풀뿌리·나무껍질 등을 사용하여 둥지를 트는데, 알을 낳는 시기는 4월 중순~8월 초순이며 한배에 2~5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2일이다. 겨울철 먹이는 주로 식물성인데, 잡초씨와 조·벼·밀·수수 등의 곡류가 대부분이다. 번식 기간인 여름철엔 대부분 곤충류를 먹는다.

‘방울새’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울소리와 가까운 청아한 소리의 방울새는 동요로도 불리질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김영일 작사, 김성태 작곡의 ‘방울새’라는 동요가 있는데 방울새의 방울소리를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수명은 약 2~3년 이다.

### 35. 밀화부리-Eophona migratoria Linnaeus, 1758

〈노래 소리가 아름다운 밀화부리〉



1-먹이를 찾는 밀화부리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삼일공원

예전에 삼일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새를 소개하는 안내판에 밀화부리가 있어 궁금했는데 삼일공원에서 만났다. 몸길이 약 19cm로 짧고 강하며 밀랍 같은 누런빛이 나는 부리가 인상적이어서 밀화부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흔하게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중북부 지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새이기도 한다.

봄에 번식지를 찾아 이동할 때는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을 거치며, 가을에 월동지를 찾아 이동할 때는 9월 초순에서 11월 초순으로 이동한다. 번식기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하지만, 번식기 외에는 떼를 이루어 생활한다. 삼림에 살며 나무 위에서 먹이를 구한다. 간혹 땅 위로 내려와 식물의 종자를 먹는다. 과실·곤충·곡식 등을 먹으며 한국, 중국 등지에 번식하고,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서 월동한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볼 수 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노래를 참 잘한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원스럽다. 노래 소리도 맑고 커서 멀리 있어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수컷이 암컷을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래를 하는데 맞은편 나무에서 화답을 하는 암컷의 노래 소리도 일품이다. 대부분의 야생조류들이 암컷은 노래를 하지 못하는데 밀화부리는 그렇지 않다 어떤 암컷은 수컷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다. 1955년 6월 5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오래전 평양기생들은 처마 밑에 이 새를 걸어놓아야 손님이 온다고 하여 노래 소리가 좋은 새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둥지는 활엽수의 나뭇가지에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밥그릇 모양으로 만든다. 산란수는 4~5개이며, 포란기간은 약 11일이다. 암수 함께 새끼를 기르며, 새끼는 부화 12~13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 36. 되새-Eophona migratoria Linnaeus, 1758

〈까만 투구를 쓴 병사 같은 되새〉



1-나무위에서 먹이 있는 곳을 찾는 되새 2016년 4월 20일 황성음 삼일공원

2-나무위에서 먹이 있는 곳을 찾는 되새  
2020년 4월 18일 황성읍 삼일공원



3-풀밭에서 먹이를 찾는 되새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삼일공원

머리가 새까만 것이 인상적인 새다. 마치 까만 투구를 쓴 로마병사 처럼 보인다. 몸길이 약 16cm이고, 한국에서는 매우 흔한 겨울철새며, 흔히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10월 초순부터 도래해 통과하거나 월동한다.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무리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일제히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는다. 무리를 짓는 까닭은 작은 새들이 부엉이, 매, 수리 같은 맹금류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알을 낳는 시기는 5~6월이며 한배에 6~7개의 알을 낳는다. 여름에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겨울에는 나무열매나 풀씨 따위를 먹는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4-먹이를 찾는 되새 2016년 4월 20일 황성읍 삼일공원

### 37. 멧쟁이새-Pyrrhula pyrrhula Linnaeus, 1758

#### <정장 신사의 모습 멧쟁이새>



대동아파트의 정원수에서 나무의 새순을 따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몸길이 15cm인 이름도 재밌는 멧쟁이새다. 이름처럼 나무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장을 차려 입은 멋진 신사처럼 느껴진다.

여름철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겨울철에는 작은 무리를 이룬다. 나무 위의 생활이 주가 되지만, 물을 먹을 때나 수욕을 할 때는 땅위로 내려온다. 시베리아, 러시아 일본 등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국내에는 드물게 찾아오는 겨울철새다. 11월 초순부터 도래해 월동하며, 4월 초순까지 관찰된다.

1-땅에 내려와 먹이를 찾는 멧쟁이새  
2013년 4월 15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2-땅에 내려와 먹이를 찾는 멧쟁이새 2013년 4월 15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3-땅에 내려와 먹이를 찾는 멧쟁이새 2013년 3월 29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4-나무의 새순을 잘라 먹는 멧쟁이새 2013년 3월 29일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겨울에는 평지나 산지의 산림, 농경지 주변의 잡목림에서 먹이를 찾는다. 주로 나무 열매와 겨울눈 또는 새순을 잘라먹는다. 경계심이 없어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멧쟁이새는 그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를 끼치는 알미운 새로 취급받고 있다. 풀열매나 나무 싹, 새싹 등을 먹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 봄에 벚나무 가로수에 무리가 모여서 개화 전의 싹을 먹어버리는 일도 있다.

둥지는 침엽수림의 1~3m 나뭇가지에 만든다. 산란기는 5~7월이고 산란수는 4~6개이다. 해에 따라서 두 번 번식하는 일이 많다. 포란은 암컷만 하고 수컷은 약 50분마다 둥지를 방문하여 포란 중인 암컷에 먹이를 준다. 알은 12~14일에 부화한다. 부화 후 6일경부터 암컷은 새끼를 품고 먹이는 암수가 같이 준다. 새끼에게 주는 먹이는 주로 곤충이다. 멧쟁이새는 일부일처이고 형성된 쌍은 번식기 내내 유지된 각 쌍은 각각 단독으로 번식하지만 명확한 영역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수컷은 자기의 둥지 가까이 다른 수컷이 있더라도 무시하는 일이 많다. 때로는 두 개의 둥지가 인접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 마리의 수컷 둥지에서 2마리의 암컷이 포란하는 광경도 관찰된다. 부화하여 12~16일 만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 38. 콩새-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Linnaeus, 1758

〈부리와 눈빛이 날카로운 콩새〉



1-풀밭에서 먹이 활동하는 콩새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2-먹이 활동하는 콩새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어린 시절 겨울철에 어른들이 새잡이틀을 만들어 잡아 구워먹었던 기억이 나는 새로 몸길이 약 18cm이다. 부리가 투박하고 목이 굵으며 꽂지가 짧다. 깃은 전체적으로 분홍빛을 띤 갈색이고 날개는 파란빛이 도는 검정색, 윗목은 회색이다. 색깔은 암수 거의 같지만 머리 부위의 색이 수컷은 갈색, 암컷은 잿빛이 도는 갈색이어서 구별된다. 턱밑이 검다.

이동 시기에는 10마리 안팎의 작은 무리를 짓고 겨울철에는 작은 무리를 짓거나 단독으로 생활한다. 주로 높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만 땅 위에 내려앉기도 하고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씨앗을 찾아 먹는다. 금속성의 예리한 소리로 우는데, 번식기에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저귐다. 낙엽활엽수림 가장 자리에서 자라는 관목 또는 하구의 관목 숲에 둥지를 틀고 5월에서 6월에 한 배에 3~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은 지 10~11일이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10~11일이면 둥지를 떠난다. 새끼는 암수가 함께 기른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이다. 가을에서 봄까지는 느릅나무과와 녹나무과 나무의 씨앗이나 열매를 즐겨 먹고 여름철에는 장미과 식물의 씨앗이나 복숭아 따위를 먹는다. 단, 번식기에는 딱정벌레를 잡아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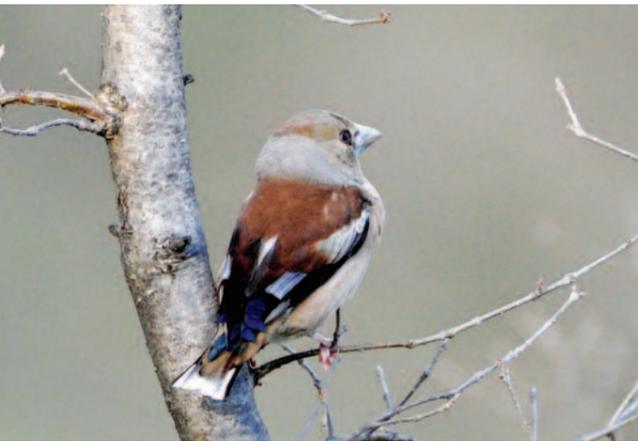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겨울을 나는 흔한 겨울새이다. 도시 공원이나 정원, 학교 교정, 교외 숲, 경기도 포천의 광릉과 같은 우거진 혼합림 등지에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단풍나무 씨를 비롯한 각종 낙엽활엽수의 씨앗을 따 먹는다.



3-먹이 활동하는 콩새 2020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5-나무위에서 먹이를 찾는 콩새  
2020년 3월 31일 황성읍 삼일공원



4-먹이 활동 2020년 4월 7일 황성읍 삼일공원





6-풀밭에서 먹이를 찾는 공새 2020년 4월 5일 황성읍 삼일공원

D. 딱새과

39. 큰유리새-Cyanoptila cyanomelana Temminck, 1829

〈파란색이 돋보이는 큰유리새〉



1-나무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큰유리새  
2019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나무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큰유리새  
2019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9년 4월 20일 섬강둘레길을 걷는 데 처음으로 큰유리새를 보았다. 색이 고운 아름다운 새였다. 사진 촬영할 때 마다 조금씩 옆가지로 옮겨 가지만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다. 전국에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라고 하는데 나는 난생 처음 보는 새였다. 이동하다 횡성에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새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고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는 여름철새로 몸길이는 16.5cm이다. 수컷은 이마와 머리꼭대기로부터 등까지는 광택이 있는 파란색이다. 대개 암수 함께 살다가 번식이 끝날 무렵에는 어린 새를 데리고 가족무리를 이룬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땅 위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수컷은 둥지 부근의 전망이 좋은 나무꼭대기에 앉아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며 번식기에는 일정한 텃세권을 차지한다. 날개를 펴덕여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재빨리 이동하는데,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고는 다시 본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다.

4월 하순부터 지저귀기 시작해서 8월 상순까지 계속 지저귄다. 깊은 골짜기의 낙엽활엽수림에서 번식하고 바위 또는 절벽의 흠속에 둥지를 튼다. 5~7월에 한배에 3~5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후 부화하여 약 13~15일간의 육추를 거쳐 이소하게 된다. 먹이는 주로 딱정벌레(갑충),매미,벌,나비,메뚜기 따위를 잡아먹고 그 밖에 거미류나 다지류도 잡아먹는다. 식물성으로는 장미과 식물의 열매를 먹는다. 수명은 4~5년이다.



3-먹이를 찾는 큰유리새 2019년 4월 2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0. 붉은머리오목눈이-Paradoxornis webbianus Gould, 1852

〈오목한 눈이 인상적인 붉은머리오목눈이〉



1-눈이 오목하게 들어간 붉은머리오목눈이 모습  
2016년 4월 1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짹을 부르는 붉은머리오목눈이  
2019년 4월 3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붉은머리오목눈이  
2019년 3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섬강둘레길이나 파크골프장 덩굴에서 시끄럽게 울부짖으며 숨기에 바쁜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자주 만나는데 언제 봐도 참 귀엽다.

흔히 뱀새라고도 하는데, 붉은 머리에 눈이 오목하게 들어간 모습이 이름이 된 몸길이 약 13cm의 작은 새이다. 산림 가장자리 덩굴, 갈대밭, 관목, 잡초가 자라는 풀밭에서 서식하며 번식 후에는 무리를 이룬다. 20~30마리 또는 40~50마리씩 무리지어 바쁘게 움직이면서 시끄럽게 울며 돌아다니는 습성 때문에 수다쟁이라는 별명이 붙은 텃새이다.

짧은 휘파람소리 같은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며 이동하는데 덩굴에서 덩굴로 차례차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잦은 날갯짓으로 낮게 난다. 주로 곤충류, 거미류를 잡아먹는다. 겨울철에는 갈대에 매달려 씨

앗을 먹거나 부리로 껍질을 뜯어내어 그 속에 있는 애벌레를 꺼내먹는다. 둥지는 관목 줄기 사이에 긴 밥그릇 모양으로 마른풀과 식물 줄기를 섞어 만들고 거미줄로 표면을 견고하게 한다. 4~7월에 2회 번식한다.

알을 하루에 한 개씩 4~6개를 낳으며 13~14일간 포란한다. 새끼를 기를 때, 새끼에게 주로 곤충류와 소형 거미류를 먹인다. 암컷에 따라 알 색깔이 달라 흰색과 푸른색 두 빛깔의 알이 있다. 한국을 찾아오는 빼꾸기는 대부분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낳는다. 번식 후에는 무리를 지어 집단생활을 시작한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4-구애활동하는 붉은머리오목눈이  
2019년 3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튼튼하게 지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집 2019년 3월 2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1. 딱새-*Phoenicurus aureus* Pallas, 1776

〈나무에 부리를 부딪쳐 딱딱딱 경계음을 내는 딱새〉



1-먹이 활동하는 딱새 수컷  
2009년 4월 6일 황성읍 삼일공원



2-유조에게 위험이 닥치자 날아와 경계음 내는 딱새 수컷 2009년 5월 14일 황성읍 삼일공원



3-청솔모가 등지에 접근하자 다친척하는 딱새 수컷 2009년 5월 13일 옛 황성군청테니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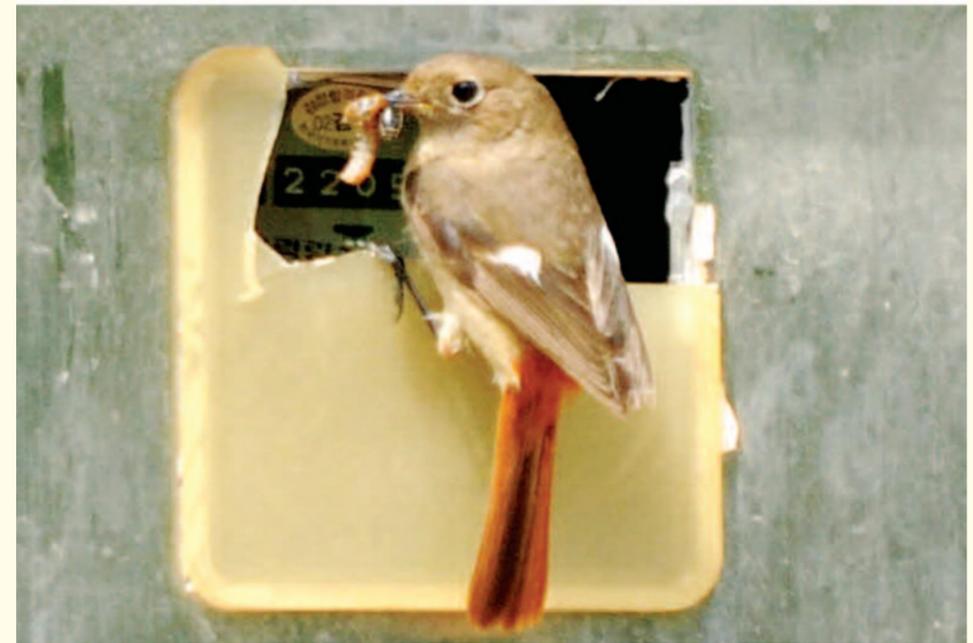


4-딱새 암컷 2009년 7월 2일 황성읍 삼일공원

5-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있는 암컷  
2009년 5월 14일 옛 황성군청테니스장



6-유조를 보살피는 딱새 암컷 2009년 5월 14일 옛 황성군청테니스장



7-새끼에게 먹이 주는 딱새 부부 2009년 5월 14일 옛 황성군청테니스장



8-딱새 유조 2009년 7월 2일 횡성읍 섬강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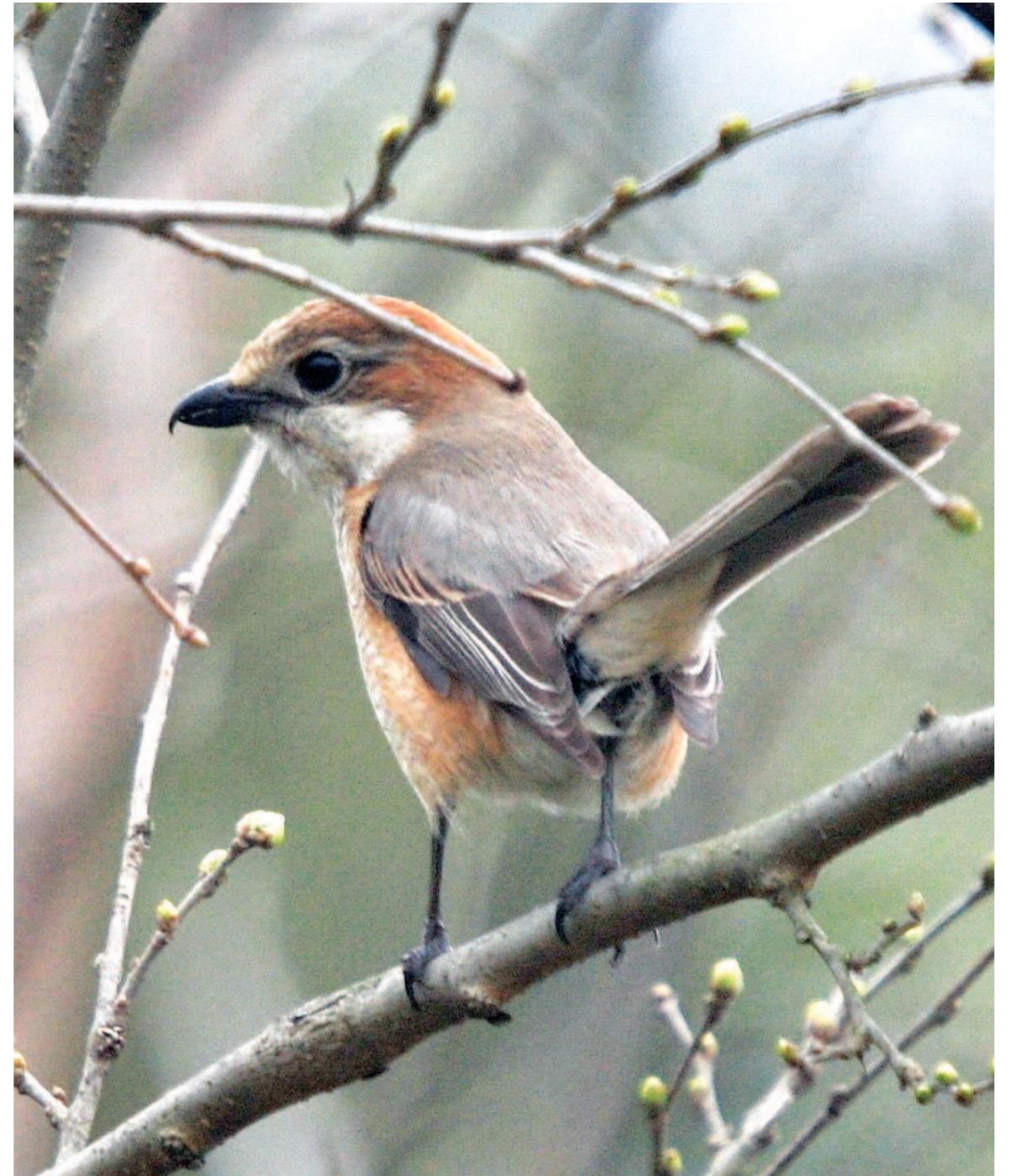
적이 다가가면 부리를 부딪쳐 ‘딱딱딱’하는 소리 때문에 이름을 갖게 된 딱새는 세력권을 가지고 연중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다. 몸길이 약 14cm이며, 나무 열매, 딱정벌레, 벌, 파리, 나비 등을 먹는다. 주로 단독생활을 하며 촌락의 울타리, 공원에 서식하는데 관목에 앉아 꼬리를 파르르 떠는 것이 인상적이다. 2009년 5월 횡성군청 테니스장 배전함 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딱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다가 접근하는 청솔모를 보자 땅에 내려가 날개를 다친척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다.

알 낳는 시기는 5~7월이며 나무나 바위, 절벽, 심지어 오래된 건물에도 둥지를 트는데, 둥지는 나뭇가지와 풀, 이끼류, 나무껍질 등을 사용하여 컵 모양으로 만들고 한 번에 5~7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기간은 12~13일, 육추기간은 약 13일이다. 보통 연 2회 번식한다. 건물 위 또는 나뭇가지에 앉아 한 곳을 응시하다가 빠르게 땅 위로 내려와 먹이를 잡아먹는다. 수컷은 일정한 지역에 텃세권을 갖고 생활하며 나무꼭대기와 전깃줄 등 개활지에 앉아 울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띈다. 수명은 약 10년이다.

## E. 때까치과

### 42. 때까치-*Lanius bucephalus* Temminck and Schlegel, 1845

〈때때때 소리내는 때까치〉



1-먹이 활동하는 때까치 수컷 2016년 4월 25일 횡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때까치 암컷  
2016년 4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때까치 수컷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먹이 활동하는 때까치 암컷  
2016년 4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유조에게 줄 먹이를 준비한 암컷 때까치  
2016년 4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1월 21일 오후 4시 쯤 섬강둘레길에서 "때때때때때때때때" 하는 새소리가 들려 처음 촬영하였다.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생겨난 때까치는 작은 체구에 사냥본능을 가진 귀여운 학살자로 몸길이 약 18~20cm, 수명은 약 7년이다. 마을 주변 야산, 개활지(앞이 막힘 없이 탁 트여 시원하게 열려 있는 땅)에서 살며 나뭇가지, 전선 등에 앉아 있을 때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특징이 있다. 동물성(곤충, 도마뱀, 개구리, 작은 새, 쥐 등) 먹이를 잡으면 나뭇가지의 작은 가지나 가시에 먹이를 꽂아두는 습성이 있으며, 이것을 먹이 꼬지라 한다. 높은 나무나 관목림 가지 사이에 부드러운 식물의 줄기나 가지, 나무껍질 등을 이용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든 다음 한배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4일이고 새끼는 부화 후 약 14일 후에 둥지를 떠난다. 번식기에 어미새는 평균 130m 이내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최대 200m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번식이 끝나면, 암컷과 수컷은 단독으로 겨울을 지낸다. 때까치도 종종 빠꾸기의 보모새 노릇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동물과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 내서 백설조로 불리기도 한다. 겨울철이 되면 영남과 호남지방, 거제도와 제주도 등지의 들판이나 민가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황성에서도 전천가 파크골프장 주변에서 겨울철에 가끔씩 볼 수 있었다.



6-노래하는 때까치 암컷 2020년 2월 7일 황성읍 파크골프장

43. 칩때까치-*Lanius tigrinus* Drapiez, 1828

〈먹이를 낚아 저장하는 칩때까치〉



1-먹이 활동하는 칩때까치 수컷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칩때까치 수컷(좌)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칩때까치 수컷(중)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먹이 활동하는 칩때까치 수컷 (우)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먹이 활동하는 칩때까치 수컷(하)  
2019년 7월 10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9년 7월 정오쯤 강변둘레길에서 "때때때때때때때때" 하는 새소리에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18.5 cm로, 수컷의 앞이마부터 눈 뒤까지 큰 검은색 눈선이 있다. 머리와 목은 잿빛이다. 윗면은 적갈색으로 각 깃털에는 가는 검은색 선이 있다. 꼬리깃은 옅은 갈색으로 옅은 색의 가로띠가 있다. 전국에 번식하는 여름새이며, 수명은 약 7년이다.

때까치처럼 뾰족한 가지나 철조망 가시에 먹이를 낚아 놓는 습성이 있다. 잡목림이나 소나무 숲에 둥지를 틀고 6월 상순에서 7월 하순에 옅은 청록색 바탕에 옅은 갈색과 올리브 갈색의 얼룩점이 있는 알을 3~6개 낳는다. 알을 품은 지 14~15일이면 부화하고 14일 정도면 새끼는 둥지를 떠난다. 한국에서 번식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F. 멧새과

44. 멧새-*Emberiza cioides* Temminck, 1830

〈새봄의 노래 전령사 멧새〉



1-먹이 활동하는 멧새 수컷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멧새 암컷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멧새 암컷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17cm 가량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는 흔한 텃새로 언뜻 보면 크기나 색깔이 참새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참새보다 꼬리가 길고, 흰색의 눈썹선과 꼬리 양쪽의 흰색 깃이 눈에 띈다. 빛이 잘 드는 산지 숲 가장자리를 즐겨 찾고 그 밖에 주로 저지대의 관목림이나 농경지, 초지 등의 개활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인가 주변에서 종종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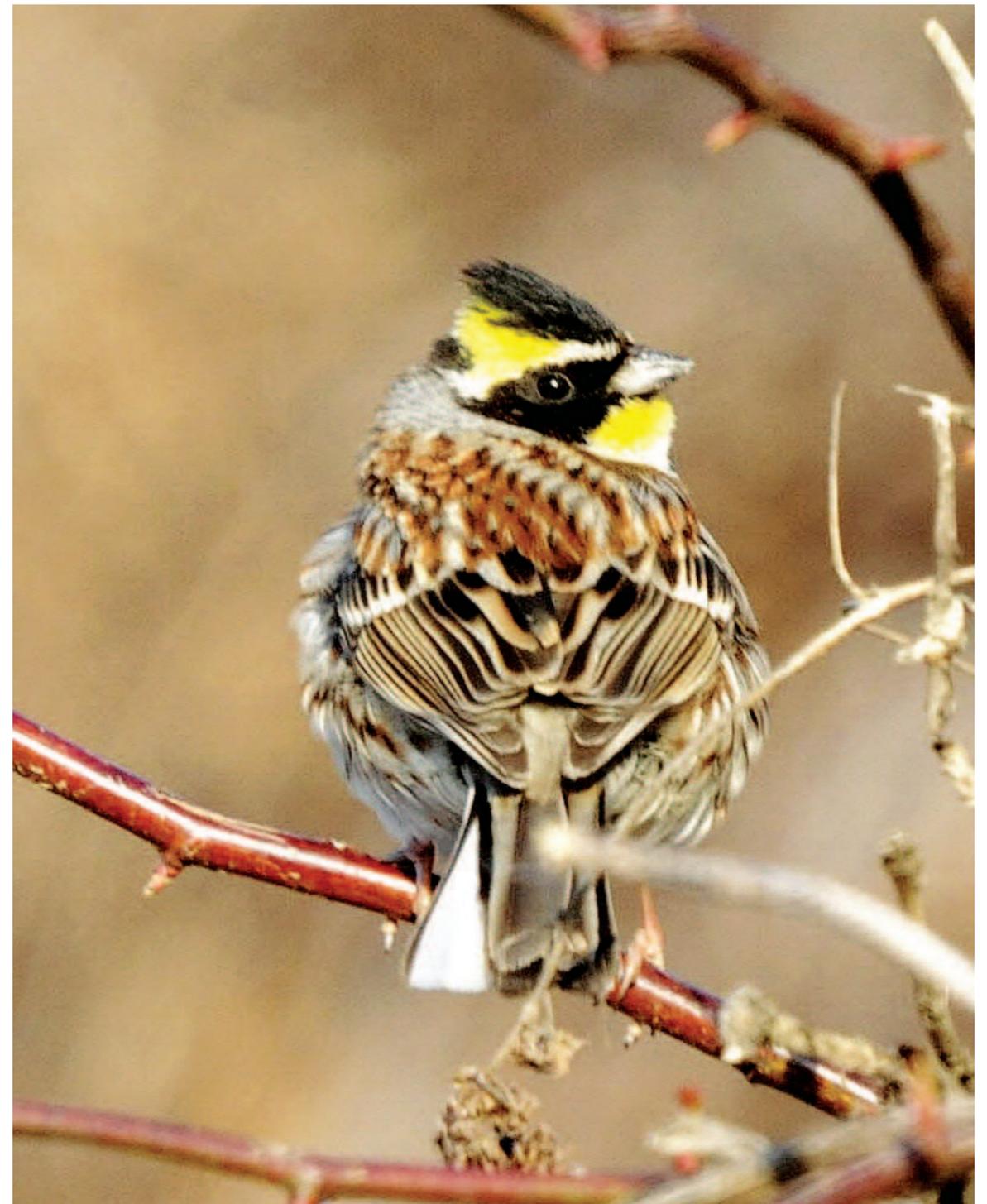
관목이 자라는 평지 숲에 등지를 틀며 4~7월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를 먹여 기르는 기간은 약 11일이다. 세력권을 강하게 방어하는 종으로 세력권 내에서 날카로운 소리로 자주 지저귐다. ‘짹 짹 짹 짹’하고 소리를 내며 레퍼토리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소리로 들리기도 하나, 앞부분에 ‘짹’하고 높게 시작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 번 내는 소리의 길이가 1~2초로 노랑턱멧새보다는 짧은 편이다. 관목, 나무꼭대기, 전깃줄 등 눈에 띄는 곳에 앉아 울기 때문에 관찰하기 쉽다. 겨울에는 주로 풀씨를 먹고 여름에는 곤충의 유충이나 성충을 잡아먹는다. 수명은 약 6년이다.



4-먹이 활동하는 멧새 암컷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5.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 Temminck, 1836

〈새봄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랑턱멧새〉



1-먹이 활동하는 노랑턱멧새 수컷 2010년 3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노랑턱멧새 수컷  
2010년 3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노랑턱멧새 수컷  
2010년 3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16cm이다. 혼한 텃새이자 겨울새이다. 보통 나무꼭대기나 전깃줄 등 노출된 곳에서 울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하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여름에는 나무 위에서 또는 날아가며 곤충의 성충, 유충 등을 먹고, 겨울에는 땅 위에 내려와 보통 4~5마리, 많게는 10마리씩 무리지어 땅 위에서 주로 식물성 먹이를 구한다. 볍씨나 씨앗을 부리에 물고 굴러가면서 부리로 살살 눌러 껍질을 까먹는다.

특히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번식 조류이기도 하다. 마을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이른 봄 짝짓기를 위해 울어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 번식기간 중에는 격렬한 노랫소리로 세력권을 강하게 지키기 때문에 봄소식을 일찍 알려주는 새로 알려져 있다. 산지 숲 가장자리나 관목 숲 또는 냇가 덩굴숲에 마른 풀을 이용하여 둥지를 틀고, 5월에 한배에 5~6개의 알을 낳는다. 암컷이 주로 알을 품는데, 알을 품는 기간은 약 14일이며, 부화 후 23~25일이 되면 둥지를 떠난다. 북한에서 번식한 무리는 한국 남부에서 겨울을 난다. 수명은 약 6년이다.



4-먹이 활동하는 노랑턱멧새 수컷  
2010년 3월 26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 G. 박새과

### 46. 진박새-Parus ater Linnaeus, 1758

〈갯버들 가지 끝에 매달려 먹이활동 하는 진박새〉



1-먹이 활동하는 진박새  
2010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진박새  
2010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0년 4월 5일 8시쯤 섬강둘레길에서 갯버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진박새 무리를 만나 처음으로 촬영하였다. 약 10~11cm 정도의 크기인데 머리와 목·윗가슴은 검고 흰색 뺨과 날개에 있는 두 줄의 가는 흰색 띠가 두드러진다. 흔한 텃새로 비번식기에는 다른 종의 새와 섞여 무리를 이룰 때가 많은데, 주로 나무에서 살고 나무꼭대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먹이를 찾는 경우도 있다. 번식기에는 암수 함께 살며, 고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데 수컷들은 나무꼭대기에 앉아 있는 힘을 다하여 계속 지저귀다. 알을 낳는 시기는 5~7월인데, 알은 흰색바탕에 옅은 자색과 붉은 자색의 미세한 얼룩점이 있으며, 5~8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14~15일이며 새끼는 부화 15~16일 뒤에 등지를 떠난다. 부화 직후의 새끼는 털이 전혀 없다. 먹이는 곤충류, 거미류, 식물의 열매 등을 먹는다. 수명은 약 4~5년이다.



3-먹이 활동하는 진박새  
2010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먹이 활동하는 진박새  
2010년 4월 5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7. 박새-Parus major Linnaeus, 1758

〈뺨의 흰무늬가 돋보이는 박새〉



1-먹이 활동하는 박새  
2019년 5월 22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박새  
2016년 4월 7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먹이 활동하는 박새  
2019년 3월 1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몸길이 약 14cm이다. 평지나 산지 숲, 나무가 있는 정원, 도시공원, 인가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이다. 곤충을 주식으로 하며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풀이나 나무의 씨앗을 주워 먹는다. 비번식기에는 10마리 내외의 작은 무리를 지으며, 다양한 울음소리를 낸다. 먹이활동을 통해 해충구제에 기여하고 있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7월에 나무 구멍, 처마 밑, 바위 틈, 돌담 틈 또는 나뭇가지에 마른 풀줄기와 뿌리·이끼 등을 재료로 둥지를 틀고 한배에 6~12개의 알을 낳는다. 특히 인공 새상자를 좋아해서 크기만 적당하면 정원에서도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른다. 12~13일간 포란한 뒤 부화되면 먹이는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먹인다. 16~20일의 새끼를 기르는 기간을 지나 둥우리를 떠난다. 수명은 7~9년이다.



4-유조를 기르는 박새 2013년 5월 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5-먹이 활동하는 박새 2019년 4월 27일

48. 쇠박새-*Parus palustris* Linnaeus, 1758

〈종자를 저장하는 쇠박새〉



1-먹이 활동하는 쇠박새  
2009년 5월 18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쇠박새  
2010년 3월 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07년 4월 7일 8시쯤 섬강둘레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박새를 처음으로 촬영했다. 쇠박새는 몸길이 약 12cm로 식량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텃새이다. 수명은 약 4~5년이다. 번식기에는 암수 함께 살다가 번식을 마치면 진박새, 동고비 등과 함께 무리지어 산다. 산지나 평지 숲에 살면서 보통 나무꼭대기에 앉아 지내는데, 관목 가지에도 앉는다. 둥지는 주로 소나무에 생긴 구멍이나 딱따구리류가 뚫어 만든 둥지를 이용하는데, 더리는 직접 둥지를 만들기도 한다. 이끼를 많이 사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틀고 알자리에는 동물의 털을 깎는다.

4~5월에 한배에 7~8개의 알을 낳아 약 13일 동안 품고 새끼가 부화하면 16~17일 동안 기른다. 먹이는 주로 곤충류이지만 식물성도 먹는다. 소형 조류 중 몇몇 새는 행동권 안에서 종자를 수집하고 그 행동권 안에 나무의 옹이나 틈과 같은 장소에 종자를 저장한다. 쇠박새도 종자를 저장하는 조류이다. 주로 딱딱한 종실을 저장한 뒤 초겨울부터 다음해 봄까지 식량 부족에 대비한다. 저장 행동을 하는 조류 중 더러 겨울 동안 죽는 경우도 있고 식량을 저장해 놓은 장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저장된 종자가 다음해 봄에 싹을 틔우곤 한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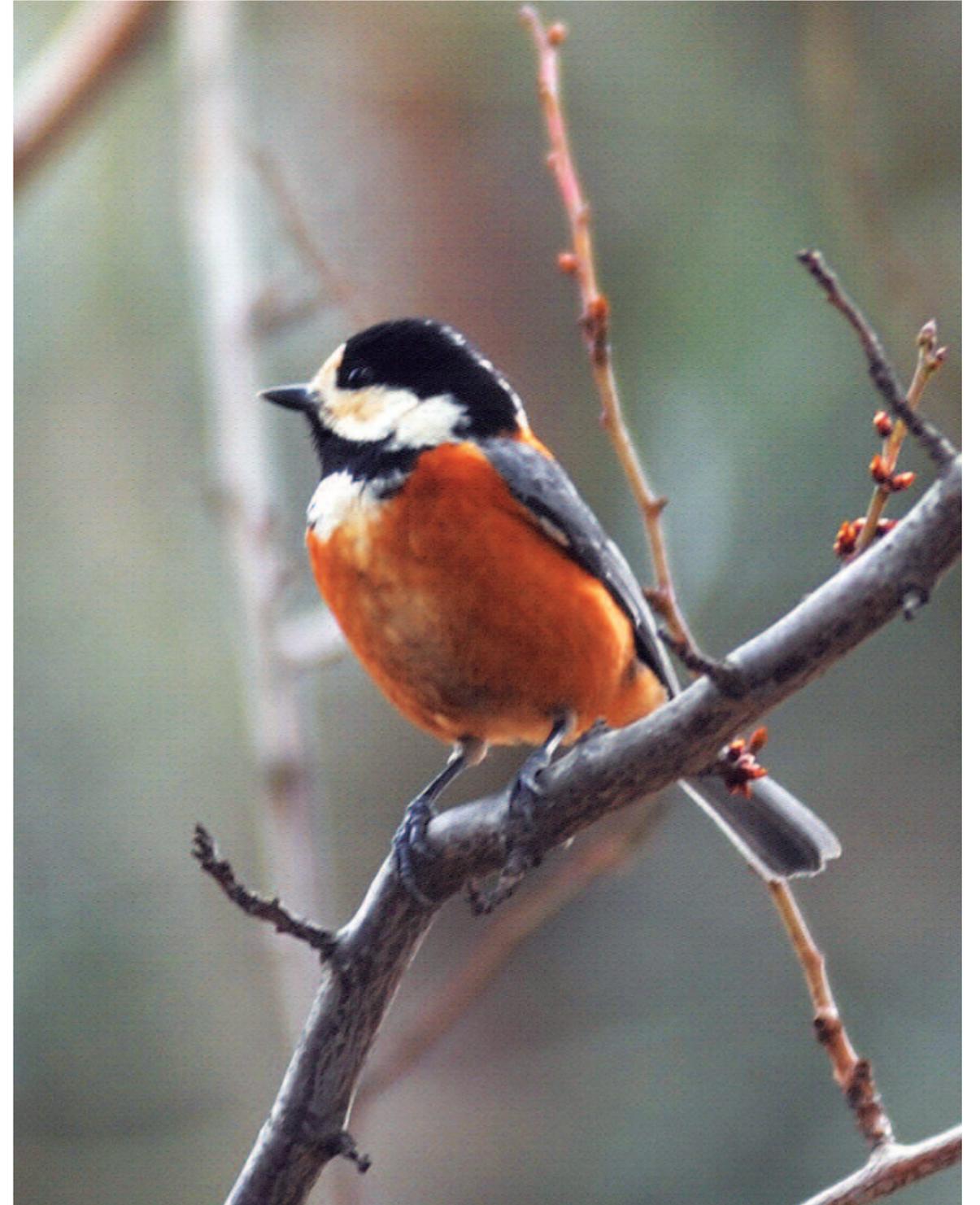
3-먹이 활동하는 쇠박새 2010년 3월 4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49. 곤줄박이-*Parus varius* Temminck & Schlegel, 1848

〈인간과 가까운 곤줄박이〉



1, 2-먹이 활동하는 곤줄박이 2013년 3월 19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3-먹이 활동하는 곤줄박이 2013년 3월 19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4-저장했던 먹이를 찾아 부리로 깨먹는 모습 2013년 3월 19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5-먹이 활동하는 곤줄박이 2013년 3월 19일 황성읍 대동아파트

몸길이 약 14cm이다. 곤줄박이의 ‘곤’은 ‘까맣다’라는 ‘곰’의 의미이고 ‘박이’는 일정한 장소에 박혀 있다는 의미로 ‘곤줄박이’라는 의미는 ‘검정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뜻이란다.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번식이 끝나면 소수의 무리로 몰려다니거나 다른 종들과 섞여 생활한다. 주로 나방, 거미 등 곤충을 주식으로 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식물의 열매나 사람이 제공해주는 인공먹이도 잘 먹는다.

나뭇가지에 앉아 딱딱한 씨앗을 부리로 망치질하듯 두들겨 까먹는다. 종종 땅에 내려와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다. 열매를 나무껍질이나 돌 틈, 땅속에 감추어 두는 습성이 있다. 호기심이 많고 땅콩, 호두 등 곡류를 든 손바닥 위에도 앉는다. 일생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일부일처제 종이다. 낙엽활엽수나 잡목림의 나무구멍 인가의 건물 틈, 전봇대 구멍, 인공소상(人工素像) 등에 동물의 털, 이끼, 마른 풀을 이용해 밥그릇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한배에 낳은 알의 수는 5~8개이며, 암컷이 알을 품는다. 알을 품

는 기간은 12~13일이며, 부화 후 15~21일이 지나면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난 후에도 일정기간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며, 먹이를 얻어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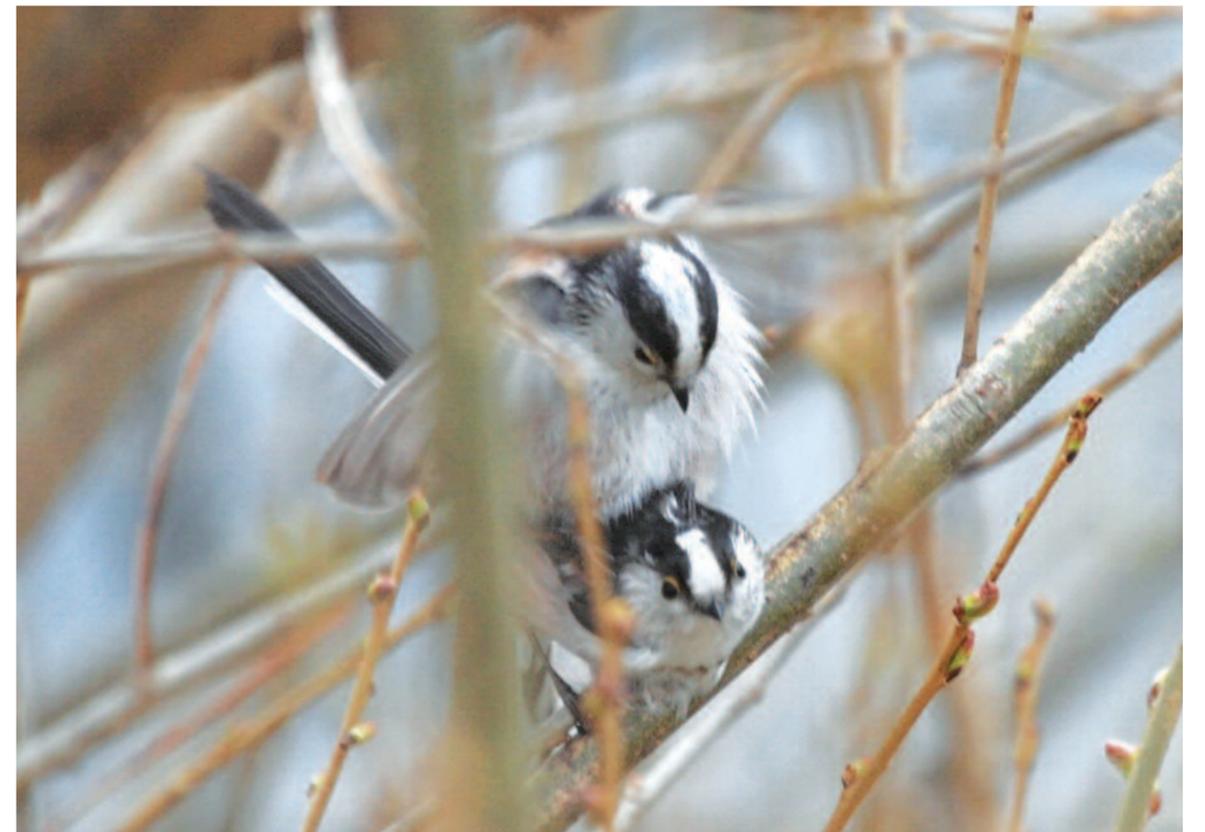
예로부터 곤줄박이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 습성과 예쁘게 생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 새를 이용하여 집을 치기도 했을 정도이다. 고산지대보다는 산림의 저지대에서 주로 서식하여 인간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쉽게 관찰되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의 연구 대상 조류로 많이 이용된다.

가을에 식물 줄기 사이나 썩은 나무의 작은 구멍에 숨겨놓았다가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꺼내먹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간혹 숨겨놓은 장소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씨앗이 분산하기도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봄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및 기후변화 연구 대상종으로 선정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명은 약 10년이다.

H. 오목눈이과

50. 오목눈이-*Aegithalos caudatus* Linnaeus, 1758

〈행동이 민첩한 오목눈이〉



3-번식 활동하는 오목눈이 한쌍 2019년 3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3-오목눈이 성조 2019년 3월 23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9년 3월 5일 정오 무렵 섬강둘레길에서 아름답게 지저귀며 재빠르게 옮겨다니는 오목눈이를 처음으로 촬영하였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며 먹이활동을 하는지 쫓아다니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덕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몸길이 14cm 정도로 몸이 가늘고 꼬리가 긴 것이 특징이었다. 텃새이며, 사람이 사는 주변 산림에 서식하고, 평상시에는 4~5마리 또는 10마리씩 가족 집단을 형성하는데 다른 종과 섞여 큰 무리를 지을 때도 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쉴 새 없이 울음소리를 내며 나무와 나무사이를 이동한다. 번식기 외에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박새류와 무리 지어 다니기도 한다. 땅 위에 내려앉는 일은 극히 드물고, 비행시 불규칙한 비행을 한다. 낙엽활엽수림, 소나무 숲, 잣목림, 관목림 속에 둥지를 만든다. 나뭇가지 사이에 이끼류와 거미줄로 엮어 길쭉한 모양으로 만든 후, 지붕을 만들고 옆쪽으로 작은 출구를 만들며 내부에 많은 양의 깃털이나 동물의 털을 깐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오목눈이는 절대 깊은 산속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에는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4월~6월까지 번식을 하고, 한배에 낳는 알의 수는 평균 7~11개이지만, 많을 때는 15개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한다. 알은 흰색 바탕에 옅은 자색과 붉은 갈색의 미세한 얼룩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알을 품은 후 13~15일이면 부화되고, 부화 후 14~17일 만에 둥지를 떠난다. 수명은 2~3년이다.

## I. 제비과

### 51. 제비-*Hirundo rustica* Linnaeus, 1758

#### <중앙절에 강남 갔다 삼진날에 돌아는 제비>



1-제비 성조 2019년 5월 24일 공근면 수백리



2-제비 성조 2009년 5월 28일 공근면 수백리

몸길이 약 18cm인 제비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에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삼진날에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수가 겹치는 날에 갔다가 수가 겹치는 날에 돌아오는 새라고 해서 민간에서는 감각과 신경이 예민하고 총명한 영물로 인식하고 길조로 여겨왔다. 따라서 집에 제비가 들어와 보금자리를 트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조짐으로 믿었으며 지붕 아래 안쪽으로 들어와 둥지를 지을수록 좋다고 본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제비에게서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비가 새끼를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3-제비 성조 2019년 5월 24일 공근면 수백리

흔하게 번식하는 여름철새인데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겨울에는 동남아시아, 뉴기니섬,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3월 하순에 도래해 번식하고, 10월 하순까지 관찰된다. 귀소성이 강해서 여러 해 동안 같은 지방에 돌아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경희대학교 조류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미 새는 약 5%, 새끼는 약 1%가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 농경지, 하천 등 개방된 곳에서 빠르게 날아다니며 곤충을 잡는다.

둥지 재료를 얻기 위해 땅에 내려앉는 것 외에는 거의 땅에 내리지 않는다.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거나 기류를 타고 신속하게 나는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고 땅 위에 있는 먹이도 날면서 잡아먹는다. 높이 날다가 땅 위를 스치듯이 날기도 하며 급강하와 급선회를 반복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날아오를 때도 있다. 이동 시기에는 큰 무리를 이루어 하천, 하구 같은 습지를 통과한다. 둥지는 인가의 처마 밑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사발 모양으로 만든다. 목은 둥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배 산란수는 4~5개이고, 포란기간은 14~15일, 새끼는 부화 20~23일 후 둥지를 떠난다. 보통 연 2회 번식한다. 암수가 함께 새끼를 기른다. 수명은 약 7년이다.



4-유조에게 벌레를 먹이는 어미 제비 2009년 5월 29일 공근면 수백리



5-유조에게 벌레를 먹이는 어미 제비 2009년 5월 28일 공근면 수백리

J. 지빠귀과

52. 개똥지빠귀-Turdus eunomus Temminck, 1831

〈까치밥을 좋아하는 개똥지빠귀〉



1-개똥지빠귀 성조 2019년 8월 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개동지빠귀 성조 2019년 8월 9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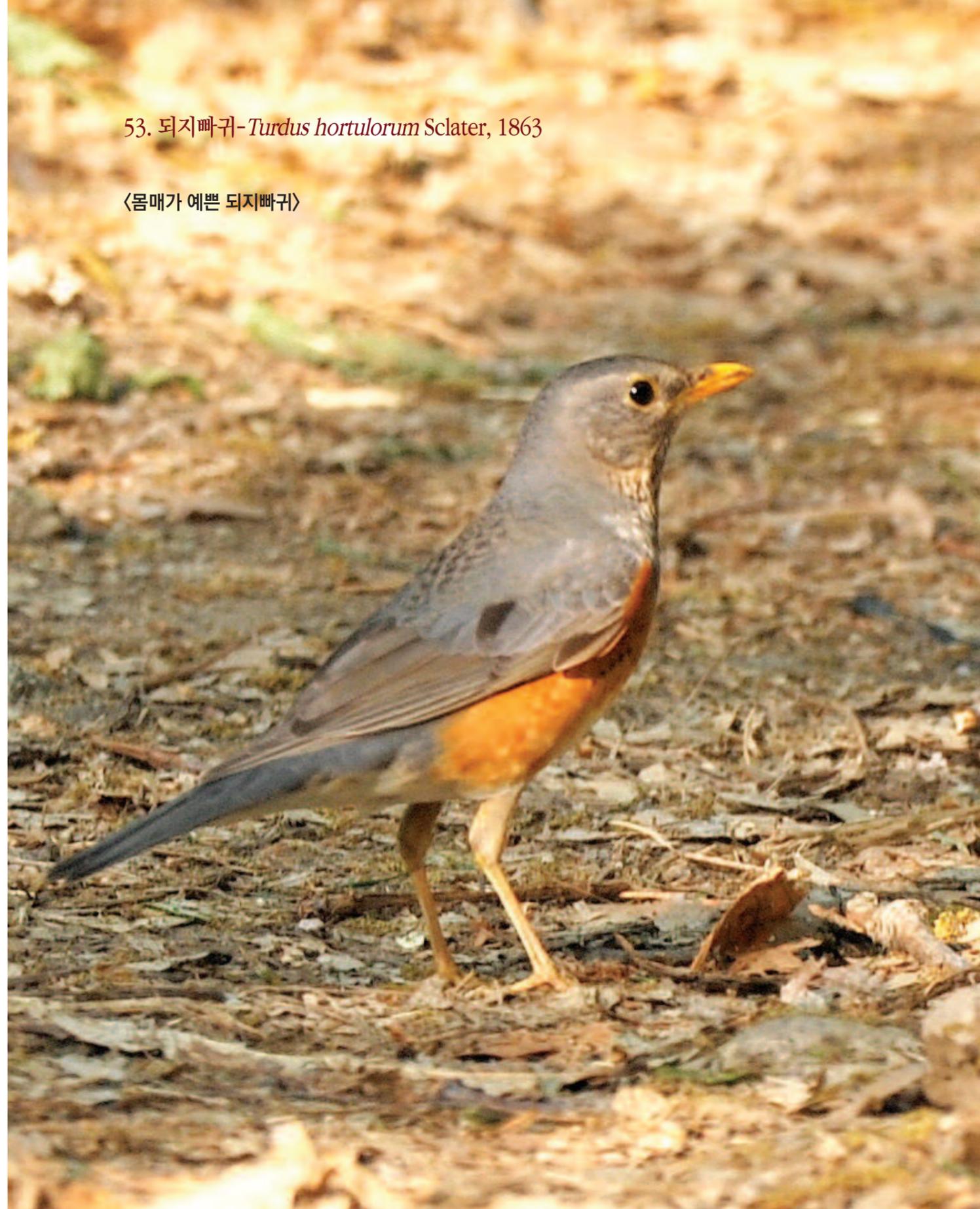
2019년 3월 9일 정오쯤 섬강둘레길 나무위에서 아름답게 지저귀는 개동지빠귀를 처음 촬영하였다. 몸길이 약 23~25cm 정도인, 개동지빠귀는 흔한 겨울철새이며 나그네새로 10월 초순부터 도래해 통과하거나 월동하며, 5월 초순까지 관찰된다. 야산 주변의 관목, 강가의 나뭇가지, 땅 위에서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노랑지빠귀와 섞여 월동하는데 보통 개동지빠귀 수가 많다. 비행하거나 먹이를 찾을 때에 자주 울음소리를 주고받는다.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찾을 때 몇 걸음 빠르게 이동하고 잠시 가슴을 들어 주위를 살핀 후에 먹이를 먹는다. 먹이로는 주로 식물의 열매를 먹는데 지렁이나 벌레 따위도 좋아한다.

알을 낳는 시기는 5~6월 중순이다. 알은 청록색 바탕에 붉은 갈색의 얼룩점이 있으며, 4~5개 낳는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감나무에 감을 일부러 남겨놓는데 이를 ‘까치밥’이라고 하였으며 개동지빠귀가 즐겨 먹었다고 한다. 먹이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동물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풍습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을 위한 선조들의 아름다운 미담이다.

### 53. 뒤편지빠귀-*Turdus hortulorum* Sclater, 1863

〈몸매가 예쁜 뒤편지빠귀〉



1-먹이 활동하는 뒤편지빠귀 성조 2019년 5월 1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먹이 활동하는 되지빠귀 성조  
2019년 5월 11일 황성읍 섬강둘레길



2016년 4월 16일 오후 세시쫘 섬강둘레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되지빠귀를 처음 촬영했는데 사진이 흐려서 무척 아쉬워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1일 오전 8시, 3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얼마나 반가웠던지 꿈만 같았다. 되지빠귀는 몸길이 약 20cm, 수컷은 등, 턱 아래 부위, 윗가슴이 담황색이고 아래가슴과 배는 흰색이다. 옆구리는 선명한 밤색을 띤 오렌지색이다.

암컷의 등은 갈색이며 배는 흰색이다. 턱 아래 부위에는 세로무늬가 있고 가슴에는 반점이 있으며 옆구리는 수컷과 같이 밤색을 띤 오렌지색이다. 봄과 가을철 이동 중 우리나라의 숲에 머물렀다 떠나지만 일부 무리는 번식도 하는 여름철새이다. 4월 초순부터 도래해 번식하고, 10월 중순까지 관찰된다. 지렁이와 곤충의 애벌레를 먹으며, 열매도 즐겨 먹는다. 가는 나뭇가지 위에 식물의 줄기와 뿌리 및 흙을 이용해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내부에는 가는 풀뿌리를 깐다. 한배에 녹색에 적갈색 반점이 있는 알을 4~5개 낳는다. 포란기간은 약 14일이다. 육추기간은 약 12일이다. 수명은 약 2~3년이다.

54.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 Gmelin, 1789

<경계심이 강한 흰배지빠귀>



1-흰배지빠귀 성조  
2010년 5월 15일 평창군 진부면 수향리